

김 주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茶儀禮에 대한 史的 考察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구 영 본

한국 茶儀禮에 대한 史的 考察

김주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구 영 본

인 준 서

구 영 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보는 것이며, 문화전통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이기도 하다. 차는 우리나라에 있어 사원을 비롯하여 궁정과 귀족과 민간에서 하나의 의례문화로서 자리하였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고조선 시대에서는 자연숭배가, 삼국시대에는 부처와 자연에 대한 다의례(茶儀禮)가 행하여졌다. 차는 제사에 바쳐져서, 사자(死者)의 영혼을 달래고, 제사를 지내는 자의 복을 기원하는 다의례로 행하여졌다. 고려 이전에는 사원과 궁정·귀족계층에서만 행하던 의례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의례가 국가적으로 널리 거행되었으며,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어 차와 관련한 의례의 규범이 생활의 주요한 한부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시로 삼으면서 유교적 의례에 따라 다문화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고려만큼 번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차는 의례로 엄격하게 행하여져 왔다. 우리 문화 속에서 다사(茶事)는 작은 문화이지만 다문화 속에 표현된 의례는 사원·왕실·사대부·일반 서민 등에서 다양하게 행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속에 나타난 의례의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생각하고 다문화의 의례가 지닌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나타난 의례의 특징과 사원, 궁중, 민간에 나타나는 의례의 실상을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의례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전래와 변화를 살펴보면 신라시대를 궁정과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계층의 다문화로 ‘귀족차 시대’라고 말할 수 있

다. 고려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호국불교로서 궁정과 사원에서 의례가 다양하게 거행되는 이른바 ‘사원차 시대’이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불교적 의례가 유교적 의례로 변해 가면서 사대부·문인들의 차생활이 중심이 되는 ‘문인차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토속신앙에서 출발한 불교문화는 중국의 선종의 영향을 받으며, 고려시대 고유의 의례로 발전하였고, 조선시대에 차를 구하지 못하여 정갈한 물 한잔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례를 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속 신앙으로 남아 있는 민간의 풍속이 유·불·도교와 만나면서 고유한 우리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의례는 여러 종교가 혼입된 문화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다의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중국과는 다르게 격식을 갖춘 다의례 속에 있었으므로 일상적인 음다문화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상에서의 다의례는 사라졌으나 의례 속에 좀 더 격식을 갖춘 문화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사원의례에서 차가 공양물로 올려지면서 중국의 청규에도 없는 다계(茶僞)가 만들어 진 것이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원의례는 각 전(殿)과 부도에서만 행해지는 의례로 축소화되는 현상이 되었으나 의례에 대한 다양한 경서들의 출판은 의례의 격식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다문화의 특징이다.

왕실의례에서 수로왕의 제사에서 예를 갖추어 올리는 데에 정성을 다하는 공경의 의미가 있었다. 왕실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이며, 그것은 의례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으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주다례가 행해진 것처럼 민간에서는 잠신다례(蠶神茶禮)와 생일다례를 지내기도 했는데, 그 기저에는 오례(五禮)나 속절(俗節)에는 없지만 정리(情理)로서 다의례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의례중에 차가 선품(膳品)이 된 것은 다른 제물과 함께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손님에게 선물하거나, 대접한 것도, 하사품으로 쓰인 것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의 의미와 신성한 영물이라는 인식이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다성(茶性)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철학적인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한 다의례는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표현하는 마음과 구복을 기원하는 마음, 수신을 위한 도구로서 격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다문화를 고찰하면 다사(茶事)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례이며, 철학적 정신이 담겨 있어 아름답고 오묘한 문화임을 확신하게 된다. 차 한 잔을 마시기에 앞서 차를 의례로 높인 선인들의 정신을 다시 살피서 오늘과 미래의 생활 문화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다문화의 전래와 변화	15
1. 삼국시대	16
2. 고려시대	23
3. 조선시대	29
III. 사원 다의례	36
1. 토속신앙에 의한 다의례	36
2. 청규(淸規)에 의한 다의례	39
3. 헌공다례(獻供茶禮)와 다계(茶偈)	44
4. 승려들의 차생활	47
1) 안분지족(安分知足)	48
2) 사무사(思無邪)	51
3) 투다(鬪茶)와 품천(品泉)	60
4) 증객진다(贈客進茶)	64
IV. 궁정 다의례	71
1. 길례(吉禮)	72

2. 가례(嘉禮)	82
3. 빈례(賓禮)	91
4. 흉례(凶禮)	99
5. 궁정의 차생활	105
1) 삼국시대	105
2) 고려시대	108
3) 조선시대	110
V. 민간 다의례	113
1. 불교식 다의례	113
2. 주자와 주자가례	116
3. 유교식 다의례	119
4. 민간의 차생활	125
1) 접빈의 차생활	126
2) 수신의 차생활	132
3) 다선일미의 차생활	136
4) 기원을 담은 차생활	142
5) 기타 차생활	143
VI. 결론	152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목적

문화는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생활양식이다. 또한 전(前)시대의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주변국가와의 교류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그 깊이가 더해진다. 차의 이용은 마시는 행위 이전에 약이나 음식으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고도의 문화적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의례(儀禮)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의례는 한 집단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것의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의례는 한 사회의 문화적 중심부분이 되고 지배적인 이념과 가치를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예를 갖추어 차를 올리는 의례를 신라에서는 ‘헌다(獻茶)’, 고려에서는 ‘진다(進茶)’, 조선에는 ‘다례(茶禮)’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신라의 문무왕(文武王)은 수로왕(首露王)의 제사에 술과 떡, 쌀, 과일과 함께 차를 올렸으며,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 등의 국가제전에도 다의례를 행하였다. 또한 차는 국가 간의 외교에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며, 사신을 맞는 의례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궁정에서 태후와 태자의 책봉식에 거행되거나 임금과 신하가 차를 마시거나, 신하의 사망에 부의품으로 하사하거나, 왕자의 회강(會講)에도 다의례가 있었다. 이러한 차의 수요에 따른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관들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사원에서는 부처에게 공경의 예로, 선왕(先王)의 영전에 제사, 훌륭한 조사(祖師)스님에게도 헌다의식(獻茶儀式)을 행하였다. 승려들이 수양을 하는데 잠을 깨워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로, 왕의 방문이나 문인

들에게 차를 대접할 때에도 다의례가 있었다.

민간에서는 관·훈·상·제례에 다의례가 있었으며, 그 의례를 ‘다례’ 또는 ‘차례’로 칭하였다. 민간에서 귀족·사대부들의 모임에 초대나 접대를 행할 경우에도 다의례로 맞이하였다. 민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상(詩想)을 떠올리고 선비정신을 기르고,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에 이르는데 차가 사용된 것은 육우(陸羽, 703-803)¹⁾가 말한 ‘정행검덕(精行儉德)’²⁾한 사람만이 차를 마신다는 말과 통한다.

이렇듯 궁정과 사원, 민간에서 행해진 다의례로 인하여 차의 수요에 따른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관들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기관인 다방(茶房)과 다군사(茶軍士)가 필요하게 되었고, 필요한 차의 수요를 위해 차 생산지인 다소(茶所)가 많아졌으며, 공다제도(貢茶制度)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의례가 주는 의미와 차가 주는 정신적 신체적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이로움은 후세 사람들에게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일상적인 것(日常茶飯事)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문헌적 기록은 신라의 흥덕왕(興德王, 826-836) 때이다. 기록에 의하면 왕명으로 차를 심게 된 것³⁾으로 보아 차가 궁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특별한 목적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당나라에 유학하는 승려와 학자들에 의하여 다문화가 전해져 차를 마시는 방법과 풍습이 중국과 비슷하게 되었고, 궁정과 일부 귀족층, 승려 등 특수한 사람들이 차를 마셔 삼국시대를 ‘귀족차 시대’라고 말할 수 있

1) 육우는 자(字)를 홍점(鴻漸), 질(疾), 계비(季疵) 등 세 가지를 가졌으며, 스스로를 상저옹(桑苧翁)이라 자칭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경릉자(竟陵子)라고도 불려졌다. 복주(復州) 경릉현(호북성 천문시) 출신이다. 당의 지덕 원년(756)에 당시 24세의 육우는 안사의 난(安史의亂, 755-756)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강남 지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절강성의 호주(湖州)에 정착했다. 육우는 14년에 걸쳐서 연구한 다사(茶事)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경』을 저술하고, 10년 후에 다시 정리하여 당의 건중 원년(780)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2) 陸羽. 『茶經』一之源,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

3) 金富軾. 『三國史記』, 卷 第10 新羅本紀, ‘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다.

고려에 이르러서는 불교가 국교(國敎)가 되었고, 궁정과 사원에서의 국가적 의례는 불교식으로 거행되었다. 중국에서 전해진 차와 불교문화는 사원에서의 의례의 격식을 갖추게 하였고, 승려들에게는 정진을 통하여 선(禪)을 추구하게 되었고,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다문화가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대의 육우의 『다경』과 선종이 송대에 이르러 예문화와 융합하면서 당·송 이래 중국의 다문화의 범도가 되었고(이광주, 2002 : 50-51)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불교의례와 다문화의 절정을 이루는 ‘사원차 시대’가 되었다.

고려 말기에 이르면 송대의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의례에 불교적·유교적 색채가 함께 나타난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은 『주자가례』의 도입을 상주(上奏)하였으며, 조선은 유교적 국가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서로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정척(鄭陟, 1390-1475)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⁴⁾의 예법과 절차 등의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으로 국가의 기본 예전(禮典)이다. 궁정에서는 『국조오례의』를 채택하고 민간에서는 『주자가례』를 받아들이면서 의례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으며,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는 ‘문인차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유교식 의례가 뿌리를 내리면서 조선 중기에 이르면 궁정의 다의례는 술과 차가 함께 의식으로 거행된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경제적 상황이 피폐해져서 차를 마시는 풍습은 쇠퇴하였으나, 궁정에서는 차가 의례에 엄격하게 사용되었고 사원이나 민간에서는 차 대신 물이나 송늪 등으로 바뀌었지만, 그 명칭은 의식 속에 아직도

4) 五禮란 吉禮, 凶禮, 賓禮, 嘉禮, 軍禮로 구성되는데, 高麗의 四禮에 軍禮를 합친 것이다.

남아있다.

공식적 의례로서 다의례는 마시는 것보다는 그 의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담을 나누며 상호간 관계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궁정과 사원, 민간에서의 다의례는 그 격식을 통하여 선왕, 불전,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게 되었고, 왕과 신하, 승려와 문인, 문인들끼리 차를 마시고 다담을 나누는 동안에도 예를 잘 갖추었으며, 다회(茶會)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 안분지족(安分知足), 예술적인 승화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다의례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격식이나, 차를 바치는데 쓰이는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의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인이 다의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변천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시대별로 단편적인 다의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전체 시대를 대상으로 다의례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행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원과 궁정, 민간에서 행해진 다의례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고찰하여 각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차의 역사와 다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의 성분과 효능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과학적 연구⁵⁾, 다문화와 다고전(茶古典)을 고찰한 연구⁶⁾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인성을 교육하는 데 있어 차를 이용한 다례교육의 필요성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육장으로 확대되어 차생활 교육을 주제로 한 다도·다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품격을 갖춘 여가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구영분, 2001 : 16-18). 다문화에 대한 각계의 노력으로 1990년대에는 차생활 교육과 관련한 사단법인체 교육장이 늘어났으며, 1999년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의 ‘예절과 다도’를 연구하는 전문과정의 개설을⁷⁾ 시작으로 2000년대를 다문화 연구의 황금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박준식, 이순영, 2005 : 31-47)에 의하면 2003년까지 우리나라에 출판된 차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차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논문이 276편 중에 178편(64.4%)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의·약학적 관점의 논문이 148편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다구, 제다, 다문화 일반에 관한 연구 순이었다. 그런데 차를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다도와 다례에 관한 연구는 전

5) 한국식품과학회에서 「국제 녹차 심포지엄」은 198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하여 2005년 8번째에 이르렀다. 그것은 녹차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녹차 연구가들의 학술발표와 교류의 장이 되어왔다.

6) (사)한국 차학회에서는 1995년부터 차에 관한 식물학적, 인문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차의 학문적 접근을 다하고 있다.

7) 한국의 학계로서는 처음으로 성신여대 대학원과정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문화 연구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서대학교에 연구과정이 개설되었고, 2006년 현재 학부과정이 서원대, 원광디지털대학에 개설되어있다.

체 차 관련 연구의 6.9%에 불과했다. 물론 이 논문은 국내 석·박사의 차 관련 논문을 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다문화 전반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아직도 차 또는 다문화가 대학의 사회·인문학적 연구영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초기단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근래에 이르러 다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다문화 고전의 연구, 다의례와 점다방법의 고찰, 다문화 공간(육선자, 2002 ; 이일희, 2004), 복식(이주향, 2002), 음악(장정현, 2003), 다시(茶詩)(이혜자, 1994 ; 김길자, 1998) 등의 연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에 나타난 의례의 고찰을 위하여 다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 고전, 다의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근대의 다문화 업적은 이능화(李能和, 1869-1943)의 『조선불교통사』에 수록된 ‘차’관련 기록과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의 『다고사(茶故事)』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연구의 성과로 최범술(1973)은 일찍이 불가에 입문하여 차와 인연을 맺고, 일본 유학에서 경험한 다도문화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예속과 비교연구를 하여 차생활의 실제에는 ‘차도용심(茶道用心)’이 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차생활로서, 차와 선, 차와 멋을 강조하여 행위적인 차생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부록에 차고전인 『다경』과 『대관다론』, 『다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의 원문을 실었다. 최규용(1979)은 토목건축가로 활동하면서 1946년부터 우리나라의 녹차 산지를 다니면서 전시대(前時代)에 행해진 실제 차생활을 기록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조들의 차생활의 흔적을 찾아내었다. 석성우(1981)는 승려이면서 시조 시인으로 우리나라의 차의 전래를 인도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며, 차의 역사, 차와 인연이 있는 장소와 이야기, 시(詩)들을 모았다. 최계원(1983)은 생활차의 정립을 위하여, 차의 전래와 분포, 차의 재배와 가공, 차와 건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박영희(1985)

는 초의(草衣)의 유작인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을 연구하였고, 차에 대하여 전해온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면서 국적불명의 다도생활을 경계하였다. 위 연구서들은 근대 한국의 다문화 연구의 시작으로 다소 주관적 해석이 보이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 김상현·김봉호(1984)는 한국 다문화의 흐름을 다예사(茶藝史)라 하였으며, 고전과 문헌에 나타난 차의 효능을 정리하였고, 음다법의 고찰에서 차를 마시는 형식에 따라 음다법을 생활차와 의식차로 구분하였다. 김명배(1984)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를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여 ‘다도학’이라 하였으며, 차의 식물학과 다도의 원리, 한국다도의 역사 등을 연구하면서 개념을 통일하기 위한 다도와 다례의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석용운(1988)은 실제 차생활을 위한 입문서를 출판하였는데, 차를 크게 대용차와 정통차로 구분하였고, 차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 불, 도구, 포법(泡法), 재배법, 제다법, 보관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일본인 모로오카는 조선의 차의 역사와 분포를 연구하여 『조선의 차와 선(禪)』을 1940년에 출간하였으며, 한국에서 1982년, 1983년에 번역되어(김명배, 1982) 근대 다문화 연구의 업적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 다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2000년대는 다문화의 활발한 연구와 차생활의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웰빙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돋움한 것으로, 전통문화 중에서 늦게 재조명이 되었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이 문화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으며, 일상적인 음료로 건강적인 측면에서 문화로서의 다문화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문화 고전의 번역과 분석하는 시도들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김진숙(2001)은 『다경』을 저술한 육우는 ‘茶’字의 정립과 다구, 제다, 음다

등을 정립시킴으로써 차의 이론과 실체를 체계화 하였고 이로 인한 보편적인 다문화를 형성하여 중국 다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당조(唐朝) 음다문화 성행요인은 경제문화의 안정, 불교와 도교의 성행, 과거제도와 시풍만연, 금주령, 온난한 기후 등이 다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정에서 일반백성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중문화가 되었다고 하였다(2005). 신미경(2004)은 중국의 많은 다서와 앞선 다문화를 『동다송』의 내용 분석과 우리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초의(草衣)의 생애와 저술배경, 구성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진영(2003)은 『다부』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 다문화 정신을 재조명하고 형성,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한재(寒齋)의 차생활은 차가 하나의 수양방법으로 유도(儒道)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칠수(七修), 오공(五功), 육덕(六德)의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인’에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전반적 다례연구 성과로 황을순(1988)은 한국차에 관한 역사적 유래는 신라시대로 대렴(大廉)이 중국에서 차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심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음다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허충순(1988)은 다례의 시대적 고찰을 통하여 불교다례는 신라시대의 토속신앙과 중국의 선종의 영향으로 각 종파의 다례가 습합(摺合)되어 있다고 하였고, 불교와 유교의 다례관습은 오늘날까지 관행으로서 계승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영선(1995)은 차와 선(禪)은 서로 돕고 마음의 상태가 같은 상황에 있게 되므로 때로는 같은 것으로 인식되며 승려들과 선비들의 차생활에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박숙희(1994)는 신라시대의 헌다의식이 고려시대에 진다의식(進茶儀式)으로 발전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자가례』에 영향을 받아 의례가 더욱 유교화 되어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다의에 대한 연구로 이은주(2001)는 “고려시대의 궁정의례에 나타난 다례는 조선과 송(宋)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궁정의례

는 고려의 음다문화의 적극성과 개성을 짐작한다.”고 하였고, 홍금이(2002)는 고려의 궁중 다의례의 종류와 절차를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정영선(2002)은 『고려사』에 나타난 다례를 의전다례와 수진(修真)다례, 취미다례, 평소다례, 회연다례 등으로 구분하여 다례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였으며, 독창적인 다례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일희(2002)는 고려시대 다승(茶僧)의 선다시(禪茶詩) 연구에서 승려들의 차생활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다의례 연구는 주로 제례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한기정(2003)은 승가(僧家), 왕실(王室), 민간(民間)의 상·제례의 헌다의(獻茶儀) 속에는 각 의례가 갖는 목적과 의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그 기저에 자리한 인간 본연의 마음에 내재된 ‘정(情)’이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윤명희(2003)는 통문관지(通文館志)를 중심으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영사다례(迎使茶禮)에서 접빈시의 의례의 진행절차·다례의 장소·차의 종류·접빈자의 역할·다례에 있어서의 왕과 신하의 방위적 요소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련된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재춘(1998)은 왕조실록에 나타난 주다례(晝茶禮)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제사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이영옥(1999)은 「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오례에 나타난 다례를 연구하여 다례의식의 과정, 절차, 형식을 알아보았고, 진복선(2003)은 왕실에 나타난 제사다례와 접빈다례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그 상이점과 공통점, 그 속에 담겨진 다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정영선(2004)은 헌다제사를 포함한 다례제사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례문화로서 일가(一家)와 마을과 궁정에 까지 풍교(風教)를 공유하였는데, 유교, 불교, 선도 및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아 행해지면서 다양한 양식을 지니고 문화적 단절없이 행해져 왔다고 보았다.

민간 다의례의 연구로 박순주(2003)는 왕실과 사원이 아닌 선조들의 개

별적인 다회에서 나타난 시를 분석하여 한국 전통다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김기원(1995, 1996, 1997)은 서민들의 노동을 통해 구전되어 나타나는 다민요(茶民謠)의 수집으로 민요의 내용에서 사찰의식, 의례, 위인의 추모와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과 생활속에 전하는 기복적 가시풍속(家時風俗)을 발견하였다. 사원의례에 대한 연구로 김미숙(2003)은 조선시대 이르러 억불숭유정책의 영향으로 다문화가 쇠퇴하였으나 많은 의식집(儀式集)의 간행으로 육법공양을 비롯한 헌공다례의 절차가 정형화 되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의례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시작은 신라시대로 대립이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오면서 부터이고, 신라의 불교는 토속신앙이었으나 중국 선종의 영향으로 불교의례가 융합되어 발전하였다. 고려 이전의 연구는 사료가 많지 않아 다양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고려시대의 궁정의례에서는 다의례의 종류와 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을 뿐 의례의 목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승려들의 선다시(禪茶詩)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사원에서 행해진 의례의 연구는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궁정의례와 제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이나 주로 공식적 의례만이 다루졌으며, 민간의례는 고려말 주자학의 도입에 따라 주자는 의례에 차를 올리는 다의례의 실천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실제 의례를 행하였던 사례의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다문화에 나타난 공식적·일상적으로 행해진 의례의 변천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상적 차생활을 의례에 넣지 않은 것과 고려시대 사원의례가 중요함에도 연구가 미진한 것, 조선시대의 민간의례에서 실제 행하였던 의례의 종류와 목적을 보완하였다. 또한 한 시대나 한 종류의 의례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원·궁정·민간에서 행해진 의

례의 성격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영향을 준 중국의 자료가 많지 않아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다문화와 의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문화 연구는 단일한 계층의 의례, 한 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 통합적 의례의 연구의 사례는 소략하게 나타나므로, 좀더 광의적인 형태의 다문화와 의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의례의 고찰은 현대인들에게 차를 의례에 올렸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의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용어정의

1) 차의 정의

차는 의미상 세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는 식물로서의 차나무, 둘째는 물에 타거나 달여 음료를 만드는 재료, 세 번째는 차물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는 두 번째 정의를 따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차(cha)’는 광둥성(廣東省) 마카오에서 나왔고, 영어에서 쓰이는 ‘티(tea)’는 복건성(福建省) 아모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蕭慧娟, 許玉蓮 編著, 1999 : 15). 차의 한자의 원음은 ‘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차’와 ‘다’의 두 가지 발음을 함께 쓰고 있는데 용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차를 독립적으로 말하거나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차’라고 하고 주로 한자 어휘로 표현하고자 할 때 ‘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차의 명칭은 ‘차’와 ‘다’를 혼용하여 쓰며, ‘차생활’, ‘다문화’, ‘다의례’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2) 다문화

차를 마시는 풍속이 유행하면서 우리 문화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차가 제사에 올려 졌고, 차를 주제로 한 시(詩)가 쓰였고, 다기구(茶器具)는 공예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 마시는 공간이 생겨났다. 고려시대에는 음다풍(飲茶風)이 유행하면서 민간에까지 음다풍속이 전해졌으며, 정원이나 다실의 품격을 높여 주었다. 이렇듯 차로 인하여 생겨난 문화를 다문화라 정의한다.

3) 다의례

일반적으로 ‘茶禮’는 차를 마실 때의 예의범절, 즉 차에서 행하는 예이다. 다실에서 차를 마실 때나 일반 가정에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 혹은 어떤 의식에 차를 사용할 때는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예의가 필요한데, 이때에 행해지는 모든 범절을 다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의식이 있을 때 다례가 행해졌다.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 명절날, 조상의 생일 등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고 하며, 사람이나 신(神)에게 예를 갖추어 차를 달여서 올리거나 마시는 일은 ‘다례(茶禮)’라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의례의 범위는 궁정의례의 하나인 하늘에 대한 제사와 종묘에 대한 제사와 개인의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의례 행사(관·혼·상·제)와 종교적 지위 변화에 따르는 의례행사와 사원이나 궁정, 민간에서 공식적인 의례 이외의 자리에서 차를 접대하고 마실 때에 예의를 갖추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였다. 차를 이용하여 의례를 행한 경우는 앞서 말한 ‘다례’가 되겠으나 조선시대 차가 의례에 사용된 ‘다례’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의례(茶儀禮)’란 용어를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4.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다부』와 『동다송』, 『다경』, 『대관다론』, 『북원별록(北苑別錄)』, 『다록(茶錄)』 등의 다문화 고전을 참고하였다. 사원에서의 다문화는 승려들의 시문집과 『백장청규(百丈淸規)』, 『선원청규(禪院淸規)』,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 등의 사원의 청규를 살펴보았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도경』,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들을 통하여 궁정과 사원에서 의례적 측면의 다문화를 살펴보았다. 귀족 사대부들의 차생활은 여러 문집들에 나와 있는 다시(茶詩)를 통하여 차를 단순한 마실 거리로 여기지 않고, 차를 대할 때는 그 예를 갖췄으며, 차의 덕성을 칭송한 글들로 의례성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일반서민의 의례는 관혼상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주례(周禮)』, 『예기(禮記)』와 송대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식의 예문화로 정립한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등의 가례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근대 다문화 연구업적인 『중국다엽역사자료선집(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과 『다향선미(茶香禪味)』 『다향선미2』의 다문화 원문을 참고하였으며,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고전국역총서」와 「한국문집총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의례자료집성(I,II,III,IV,V)』과 그 동안의 연구서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 논문구성은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5장으로 하며, 각 장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다문화의 전래와 변화에서 우리나라 다문화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한국 다문화의 특색과 그 역사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원에서의 다의례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궁정에서의 다의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의례는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하여 과정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사원과 궁정 이외 민간의 다문화 속에 나타난 의례의 연구로 불교식 다의례, 주자와 주자가례, 유교식 다의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에서는 사원과 궁정, 민간의 다의례의 연구로 얻어진 성과와 의례에 표현된 의미를 종합하였다.

Ⅱ. 다문화의 전래와 변화

차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다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고려에 이르면 더욱 융성하게 발전하였다. 신라에서는⁸⁾ 궁정과 사찰, 화랑 등 일부 상류계층이 차를 즐겨 차가 생활 속에 퍼졌다. 불교문화가 융성한 고려시대에는 차는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 등 중요한 의례로서도 부각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제도로써도 굳혀졌다. 그리고 음다문화는 사대부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배척과 유교의 숭상은 일반 서민의 생활까지 전해진 다문화를 쇠퇴의 길로 가게 하였으며, 특히 양란(兩亂) 이후 음다풍속이 크게 쇠퇴하였으나 궁중의식과 선방(禪房)에서의 다의례는 고려때보다 격식을 더욱 존중하면서 존속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다문화사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초의 장의순(草衣 張意恂, 1786-1866)을 비롯하여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와 같은 다인의 존재에서 보듯이 승려, 문인(文人)들의 다문화는 사무사(思無邪), 다선일미(茶禪一味)와 예술로 표현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가 중국 다문화의 영향 아래 걸어온 도정을 멀리 삼국 통일 이전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그 변화와 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8) 신라시대에는 토속불교가 있었고 중국에서 선종의 전래와 차씨를 가져오면서 차는 사찰에서의 헌다의식, 궁정에서 제사나 일상음료로, 화랑들의 수행에 사용된 것 등을 볼 때 일부 계층의 다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삼국시대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차는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유래를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다문화가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정치·경제적 교류와 다문화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차나무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차잎을 여러 형태로 이용하게 되었으니, 차는 세 가지의 형태로 이용되었다. 즉, 처음에는 약(藥)으로, 다음으로는 음식(飮食)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용(飮用)으로 변하면서(陸天羽, 1993 : 104-105) 그로부터 다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의 차는 대체로 음용의 형태(陸天羽, 1993 : 104)로 널리 애용되고 있으나, 당대 이전에는 약으로서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당나라(唐, 618-907) 사람 육우(陸羽, 727-803)는 B.C 2700년 전의 신농씨(神農氏)⁹⁾가 차를 처음 마셨다고 하였다. 신농씨는 차를 해독제로 사용하였으니, 그로부터 차에는 독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신농식경(神農食經)』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기분이 상쾌해진다¹⁰⁾”고 하여 차가 인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후한시대의 호거사(壺居士)의 『식기(食忌)』에는 “고다

9) 신농씨는 고대 삼황오제의 한 사람으로 신농씨를 염제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불로 물을 끓여 먹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 방법을 세상에 전하기도 했다. 또 농사짓는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고 온갖 초목을 헤치고 다니며 수백 종의 식물을 맛보아 약초를 찾아내었다. 산야를 거닐면서 하루 칠십여 가지씩 풀잎, 나뭇잎을 씹어 그 효용을 알아보다가 독이 심한 것을 맛보고 중독이 되었는데 차잎을 씹었더니 그 독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신농씨는 차잎에 해독의 효능이 있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의 능(陵)마저 차능(茶陵)이라 불리운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햇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다신(茶神)인 신농씨에게 차례를 지내고 있다.(참고: 中國茶葉博物館(1999). 『品茶設茶』. 浙江人民美術出版社.)

10) 육우 『다경』 卷下 七之事, ‘茶茗久服 令人有力悅志’

(苦茶)를 오래 마시면 날개가 생긴 듯 가벼워진다¹¹⁾”고 하였다. 진나라의 유곤(劉琨)이 조카 연(演)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몸에는 어지러운 병이 있어서 늘 진다(眞茶)를 바랐는데, 네가 지극히 믿음직하다¹²⁾”는 기록은 차가 인간의 오장(五臟)을 다스려¹³⁾ 몸을 가지런하게 하며 답답함의 증세를 다스려 주는 기능이 있음을 말해준다.

육우가 펴낸 『다경(茶經, 751년경)』은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으로 3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당대 이전의 차생활과 당대의 차생활에 필요한 차잎의 제다법에서 음다법·차산지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한 저술을 통하여 다문화를 일으켰으며, 당대 이전의 음다풍습을 정리하여 차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 같은 지식을 안겨주었다.

육우의 『다경』과 함께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여 사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차가 졸음을 막아주어 차가 일상적으로 이용되었다. 과거 시험에 참가하는 문인과 시험관인 한림관(翰林官)을 위로하기 위해 조정에서 차와 건과(乾果)를 하사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응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대에 차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공다제도, 금주령, 남중국과의 개발과 인구 증가 그리고 대운하 개통 등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문인의 시회(詩會), 선방(禪房), 조정(朝廷)과 외교(外交),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다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다문화

11) 육우. 『다경』 卷下 七之事, ‘壺居士食忌 苦茶久食羽化 與葦同食 令人體重’.

12) 육우. 『다경』 卷下 七之事, ‘吾體中憤悶 常仰眞茶 汝可信致之’.

13) 일본의 승려 영서율사(榮西律師, 1121)는 『喫茶養生記』에서 사람의 오장이 고르지 못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차를 마시면 심장을 고르게 하고 만 가지의 병을 털어버린다고 하였다 (김명배, 1987 : 113-124)

14) 『다경』 상권에서는 차의 근원(一之源), 차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二之具), 차를 만드는 방법(三之造)이 들어있다. 중권에는 차를 끓이는 데 필요한 그릇(四之器)을 설명하고 있다. 하권에는 차를 끓이는 방법(五之煮), 차를 마시는 방법(六之飲), 차를 마셨던 사람들의 이야기(七之事), 차가 생산되는 지역(八之出), 차를 마실 때 생략해도 되는 그릇(九之略), 차를 따서 우려마시는 데 필요한 그릇들의 그림을 그려 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림(十之圖)으로 이해를 도왔다.

는 당대에 성숙(成熟)되었으며, 외국으로 전파되어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다.

1) 차의 전래

차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 차나무가 전래된 것에 관하여 인도차의 전래로 보는 논의도 있다.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전한다. 15)

위 기록은 인도에서 차가 전래하였다(김상현, 김봉호, 1984)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차가 재배되는 가야지방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중국 남쪽과 교역이 성하였으며, 철기문화와 벼농사를 들여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발달하였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차가 인도에서 전래되면서 이어 토산차(土産茶)도 백월산에 재배되고, 수로왕의 제사에도 바쳐졌다고 보는 석성우도 가야문화(伽倻文化)의 발전은 차로 시작되었다(석성우, 1981 : 45-48)며 인도차의 전래를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지역의 다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능화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도에서의 전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차 전래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다.

신라 42대 흥덕왕 3년(828년)에 대렴(大廉)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차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성하였다. 16)

15)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金海白月山有竹露茶 世傳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來之茶種’.

그렇다면 차는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음용되었을까? 현재로선 차가 언제부터 전래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충담사(忠談師)가 경덕왕(景德王, 742-765)에게 차를 올린 사례나 경덕왕이 월명사(月明師)에게 차 일습(茶一襲)을 하사(760년)한 기록¹⁷⁾, 연기조사(緣起祖師)가 모친에게 헌다공양(獻茶供養)하였다는 사전(寺傳)의 기록(755년)¹⁸⁾ 등을 살펴보면 차종자의 전래보다 먼저 차가 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구려의 다문화와 전래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불교도 제일 먼저 전래(372년)되었다. 그러나 차나무의 재배가 불가능한 추운 지방이어서, 차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다. 다만 일본인 아오끼(青木正兒, 1887-1964)가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의 옛무덤에서 출토된 전차(錢茶)가 유일하게 전해진 유물이다. 이에 관해 아오끼의 저서 『중화다서(中華茶書)』¹⁹⁾에서 “나는 고구려의 고분에서 나왔다는 소형박편(小形薄片)의 병차(餅茶)를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4cm 남짓의 전형(錢形)으로서 중량(重量)은 닷 푼 가량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김명배, 1986 : 44). 차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장품으로 매장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묘에 매장된 인물이 생전에 차를 좋아하였거나, 불교나 도교의 영향이거나 토신(土神)이 차를 좋아한다고 믿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1940년 발굴된 고구려 초기의 수도 집안현(輯安縣)의 통구에 위치한 고구려 무덤 무용총(舞踊塚) 벽화와 무용총 바로 옆에 있는 각저총(角抵塚)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집안현에

16) 김부식. 『삼국사기』 권 10 <興德王 3年>,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智異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17) 일연. 『삼국유사』 권 5, <월명사도솔가>

18) 남효온. 『추강집』 <秋江先生文集 卷六>

19) 오대(五代) 모문석(毛文錫)이 지은 다보(茶譜, 935전후)의 역주에서 인용함.

서 굴뚝이 달린 이동식 화덕이 발견되었는데(역사민속학회, 1996), 그것으로써 들에서 차를 끓였거나 음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용종의 공양상(供養像)과 이동식 화덕은 음다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사료된다.

3) 백제의 다문화

백제의 다문화는 기록과 유적을 찾기는 어려우나 백제사회는 일찍이 중국 남조와 활발한 문화 교류로 학문, 예술, 산업 전반이 발달되고 귀족사회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불교의 전래에 의하여 궁정과 귀족, 사찰에 음다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양(梁, 502-577)나라에서 연기조사(煙氣, 緣起)가 열반경(涅槃經)을 가져오면서 차도 함께 들여온 것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경내에 세워진 4사자 탑이 있는데, 연기조사가 어머니에게 차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 다문화의 흔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화엄사 주변의 차나무는 불교와 차가 함께 전래되면서 심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화엄사 주변의 차나무 재배는 백제지역이 차나무의 재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조기정, 2005 : 640),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차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다산업이 발달한 지역(고세연, 2006 : 500)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에 비하면 중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나, 다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차에 대한 문헌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차의 전래를 고증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 성왕(聖王) 30년(552)의 명으로 담혜화상(曇惠和尚) 등 13명의 스님이 불구(佛具)와 차(茶)·향(香), 꽃(花), 연등(燈), 쌀(米), 과일(果)의 육법공양물(六法供養物)을 일본에 전했으며, 그들에게 차를 내렸다는 기록(김명배, 1987 : 34 ; 석성우, 1981 : 70)과 일본의 덴뵤우시대(天平時代, 729-766)에 행기(行基, 668-749) 스님이 일본

에 차나무를 심었다는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권4의 기록(김명배, 1986)으로 보아 백제와 일본이 다문화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당나라 덕종(德宗, 779-805) 말기인 일본 연력 24년(805, 桓武天皇 延曆, 782-806)에 승려 사이조우(最澄)가 당(唐)에서 차를 가져왔으며(김명배, 1986), 그 후 사가천황(嵯峨天皇, 대동 원년(806)에 고우보우대사(弘法大師, 774-835)가 중국에서 차종과 멧돌을 가져와서 제다법을 전했다는 기록(김명배, 1986 : 35-37)으로 볼 때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차가 전래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백제에서 차생활은 승려, 사원과 연관이 깊으며, 일본과 다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기는 백제 유민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승려가 되었으며 그가 일본에 차를 심었다는 것은 일본에 다문화를 전한 것이 된다.

4) 신라의 다문화

신라는 지리적으로 당나라와 먼 위치로 사회적·문화적으로 그 발전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6세기 초 불교의 공인²⁰⁾과 더불어 왕권의 강화와 귀족사회의 안정으로 문화는 전반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진흥왕(眞興王, 579-632) 이후 화랑제도는 청소년들의 인재 양성과 호국신앙으로서의 불교로 국가발전과 삼국통일의 토대가 되었다. 법흥왕(法興王, 514-540) 19년에 금관가야(金官伽倻) 합병과 진흥왕(眞興王, 540-576) 23년에 대가야 정복으로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지방을 완전히 귀속시키게 되었고, 당과 교류에 의한 여러 문화의 유입과 함께 차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의 생성은 『삼국사기』의 기록²¹⁾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라 선

20)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5세기 초였으나 거의 1세기 동안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다가 이차돈의 순교(527년) 법흥왕 20년(533년)에야 비로소 국교로 인정을 받았다.

덕왕 시대(780-785)부터이다. 그 무렵은 중국의 당 태종(太宗, 626-649) 연간으로 궁정과 귀족, 민간에 음다풍속이 성행하였으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나당(羅唐) 사이에 외교상의 친교가 그치지 않았던 시기이다. 왕명으로 차를 심었던 지역을 다산(茶山) 선생은 오늘날 지리산 화개동에 있는 쌍계사 근처라고 보았다(최범술, 1980 : 21).

차는 불교문화와 함께 신라에 전래되었으며, 사원을 중심으로 불교가 번창하면서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 혹은 인도까지 불법을 공부하고자 왕래하였다. 원광(圓光), 자장(慈藏), 의상(義湘), 혜초(慧超), 지장(地藏), 원효(元曉)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이 수행하면서 차생활을 하였고, 차와 불법을 함께 가져왔을 것이라 짐작된다.

신문왕의 두 아들인 보천(寶川)과 효명(孝明)태자가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헌다하였고, 사포(蛇包)의 스승인 원효(元曉, 617-686)를 위해 늘 차를 다렸다는 원효방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한다. 또한 진감선사(眞鑑禪師, 774-850)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한명(漢茗)’을 마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신라시대의 다문화는 사원에서 헌다의식과 수행을 할 때 정신을 맑게 해주고 잠을 깨워 주는 효능으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 ?-765)은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충담사(忠談師)에게 요청하여 차를 마셨으며, 충담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바쳤다. 월명사(月明師)는 경덕왕에게 도솔가(兜率歌)를 지어 바치고 차와 염주를 하사받았다. 설총(薛聰)은 신문왕(新文王, 681-692)에게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하라’는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올린 것으로 보면 신라궁정의 다문화를 알 수 있다. 그 외 화랑도(花郎徒)가 수련을 하면서 차생활을 한 것이나 최치원(崔致遠, 857-?)이 당에서 부모님께 차와 약을 보낸 기록이 있다.

21) 김부식. 『삼국사기』, 권 10 흥덕왕 3년.

신라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찻주발로서 경주의 안압지(雁鴨池)에서는 ‘정언다(貞言茶)’라는 명문(銘文)이 있는 토기(문화재관리국, 1978)와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는 한반도에서 구워진 해무리굽의 청자완(靑磁碗)이 출토되었다(문화재관리국, 1983). 이외에도 『성주사사적비편(聖住寺事蹟碑片)』에 ‘다향수(茶香手)’라는 문구(文句)²²⁾와 경주 창림사지(昌林寺址)에서 발견된 ‘다연원(茶淵院)’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 조각 등은 신라시대의 차생활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2. 고려시대

당대의 앞선 다문화를 신라의 유학승들이 전해오면서 차로 인한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나라가 망하고 약 반세기 동안 오대십국(907-960)의 혼란기를 겪고, 송(宋, 960-1279)이 천하를 다시 통일하게 된다. 이러한 당·송의 정치적 변화는 당의 ‘귀족문화’에서 송의 ‘사대부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는 음다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무인이 득세한 오대에는 많은 문화활동이 불가능하였으나, 남쪽지방에서는 문인들은 차모임을 조직하였으며, 차에 관한 저술활동도 지속하였다(王玲, 1995 : 53). 오대의 다서로는 소이(蘇廙)의 『십육탕품(十六湯品)』과 모문석(毛文錫)의 『다보(茶譜)』 등이 있다. 화응(和凝)이 양 정명 2년(梁, 貞明 2년, 916년)에 결성한 차 동호인 단체인 ‘탕사(湯社)’가 있다. 탕사란 관리나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여가생활의 하나로 다문화를 교류, 보급하거나 차의 품질을 비교 시합하는 행사였다(梁子, 1997 : 157). 이것은 후일 송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투다(鬪茶)’의 모태가 되었다.

22) 보령의 성주사에서 발견된 비문의 조각에서 ‘茶’字가 발견되어 지금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이때 북원(北苑)이 남당(南唐, 937-975)에 복속되면서 그 후 북원지방은 당나라의 정통 다문화를 계승하게 되고 수많은 명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복건(福建)의 건안에서 단병차의 모태인 연고차(研膏茶)와 납면차(臘面茶)를 만들게 되면서 남당은 중국차사(中國茶事)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郭孟良, 2003 : 76-77). 송대에 이르면 차는 생활필수품인 쌀, 찹, 소금 등과 함께 중요한 물품이 되었다. 그런데 차가 궁정에서 의례와 사다(賜茶) 등으로 쓰임에 따라 공납(貢納)의 방법, 즉 다법(茶法)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궁정에서의 다문화는 귀족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러한 사실은 많은 차시(茶詩)와 다선일미(茶禪一味)의 미학이 보여주듯이 문인 사대부들의 생활양식에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송대 음다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황제부터 시중의 하층민까지 음다가 쌀이나 소금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郭孟良, 2003 : 76-77). 즉 차는 황실이나 관공서의 행사에는 반드시 제공되는 음료였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 술 대신에 차를 대접하기 시작하였고(오원경, 1996 : 32), 문학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데도 차가 큰 기여를 하였다. 일반사람들도 다관(茶館, 茶肆 茶坊)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황제에서부터 사대부들까지 투다(鬪茶)는 하나의 의례적 행사가 됨으로써 투다의 형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고아해졌으며, 다구의 발달을 가져와 건잔(建盞)과 같은 훌륭한 찻잔을 탄생시켰다.

특히 당 중기 이후 불교가 중국화 되면서 유불도(儒佛道) 삼교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과 합일을 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신유가(新儒家)는 불교나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승려 및 도인들과도 교류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유가들은 음다풍속을 이어받게 되었다.

『대관다론』에서 “송대에 차를 따서 만들기의 정성과 정교함, 품평의

홀륭함과 차 달이기의 묘함 등이 모두 극치에 달하고 있다²³⁾”는 휘종²⁴⁾ 스스로 송대 다문화를 평가하는 말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투다는 송대의 차 품평 수준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선화북원공다록』에는 황실에 바치는 공차(貢茶)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음다풍속이 성행하면서 궁정과 귀족들이 마시는 차들은 산지로부터 특별히 엄선된 후 바쳐진 ‘공차(貢茶)’였다. 당대의 공차가 시작된 이래 송대의 궁정생활의 수요에 공급된 것은 건주(建州)의 북원(北苑)으로부터 진공된 뇌차(腦茶)²⁵⁾ 등의 고급차였다. 당대 이후의 음다풍속은 지역적·계층적 구분없이 대중화 되었으며 당 후반 특히 송 이후가 되면 차는 필수품이 되며 정부의 과세(茶稅) 대상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였고, 송대에서는 모든 차가 전매(專賣)되었다.

이렇게 송대의 발전된 다문화는 고려에 전해졌고, 고려가 다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송나라의 영향이 컸다고 사료된다. 차는 양국의 외교에 중요한 물품이었으며, 고려인들이 송나라의 차를 소중하게 여긴 것을 『고려도경(高麗圖經)』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송나라가 경제적 안정으로 다문화가 발전을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에 이어 고려왕조가 탄생하게 되었고, 태조(太祖, 918-944) 왕건은 생활문화와 전통은 신라의 것을 이어 받아 찬란하였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고 힘썼다. 그리고 민속의식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확대시

23) 趙佶(宋). 『대관다론』, ‘故近歲以來. 採擇之精. 製作之工. 品第之勝. 烹點之妙. 莫不咸造其極’.

24) 휘종황제는 원풍 5년(1082) 10월에 신종(神宗)인 조욱(趙頊)의 11번째 아들로 휘(諱)를 길(佶)이라 하였고 1100년 北宋의 제8대 황제로 등극하였다. 그는 재위 시 연호를 여러 개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大觀(1101-1110)이다.

25) 건주(建州)의 연고차(研膏茶) 기술은 복주(福州)의 차 제조 기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면서 유명해졌으며, 고행차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납면차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납면차의 납이라는 글자는 처음 蠟으로 쓰였는데, 이는 차의 표면이 녹은 밀랍같이 광택과 윤기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蠟을 臘으로 바꿔 쓴 것은 궁정 진공용 차를 입춘 이전의 臘月(선달)에 채집하여 만들어 올리면서 점차 납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서은미, 1999 : 158)

켜 국가적 제의에서 차가 소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고려시대 진다의식(進茶儀式)은 신라의 헌다의식이 발전된 것으로 국가의 많은 의식에 차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의식의 대상은 신불(神佛), 선왕(先王), 외국에서 온 사신(使臣), 임금, 오악삼신(五嶽三神)²⁶⁾ 등이었고, 그 의식이 거행될 때마다 진다의식의 절차도 달랐다(석용운, 1994). 또한 공이 있는 신하, 승려, 유생, 노인에게도 차가 하사품으로 내려졌다. 이렇듯 차의 소비가 늘게 되자 궁중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다방(茶房)이란 관청을 두게 되었다. 다방(茶房)이란 관사(官司)가 이조(吏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원(吏員)에는 별감(別監), 행수(行首), 도목(部目) 등의 직책이 있었다. 또한 다방에 소속되어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맡은 다군사(茶軍士) 제도가 있었다.

고려는 국교(國敎)가 불교이어서 승려들은 국사(國師), 왕사(王師)로서 국태민안(國泰民安)에 힘썼다. 그들은 사원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국가행사의 의례를 주관하게 되었다. 사원에서 의례를 주관하는데 필요한 격식은 당대에 들여온 백장청규와 선원청규의 원칙에 따르다가 우리나라에 맞는 의례규정들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원에는 독특한 다계(茶偈)²⁷⁾가 생겨나게 되었다. 승려들은 차생활을 통하여 선(禪)의 경지를 추구하였으며, 문인들과의 교유에 차로 접대를 하고 많은 시를 남겼다. 고려의

26) 오악신(五嶽神)이란 『삼국사기』 <제사지>에 의하면 동악인 토함산(吐含山), 남악인 지리산(智異山), 서악인 계룡산(鷄龍山), 북악인 태백산(太白山), 중악인 부악(父岳 : 지금의 팔공산)을 합쳐 부르던 명칭이다. 5악은 삼국통일 직후에 성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중사(中祀)가 행해졌다. 삼산(三山은 경주의 남산, 영주의 금강산, 청도의 부산의 神들을 말한다. (브리테니커 온라인 사전 ; 김명배, 1984 : 211)

27) 偈頌이란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의 덕을 찬미하는 시구의 체제이다. 산스크리트 ‘가타’의 음사(音寫)인 계(偈)와 의역(意譯)인 송(頌)을 함께 부른 것이다. 계(偈)·계타(偈陀)·가타(伽陀)라고도 불린다. 선종(禪宗)에서 도를 깨우친 경지를 표현하기 위한 계송은 선계(禪偈)라고 했다. 모든 재(齋)의 상단(上壇)·중단·하단·회향단(回向壇) 등 각 단마다 부르기 때문에 사설도 각각 다르다. 이 곡은 홀소리로서 합창으로 불리며, 음악에 맞추어 다계작법(茶偈作法), 즉 <나비춤>을 춘다. 그리고 이 곡을 다 부르고 난 뒤 흔히 요잡(鞞妃)이 계속된다. 요잡이란 장·북·운판(雲版)·목어(木魚)·호적(胡笛) 등의 반주에 맞추어 바라춤, 나비춤, 북춤 등을 추는 것을 말한다. 요잡이 끝나면 다시 ‘원수애납수’를 합창으로 짧게 두세 번 부른다. (안신호, 1961 ; 한만영, 1981)

다승으로는 속장경을 발행한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 의천(義天)은 「화인이다증승(和人以茶贈僧)」(무산, 2000 : 35)이라는 시를 남겼고, 진정국사(眞靜國師, 1206-?) 천책(天頌)은 금장대선사(金藏大禪師)가 보낸 차를 받고 사례하는 「사선사혜다(謝禪師惠茶)」(무산, 2000 : 35)라는 다계를 지었다. 원감국사(圓鑑國師, 1226-1292) 충지(冲止)는 「한중우시(閑中偶詩)」에서 산사에서 자족하며 살면서 차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목마르면 차를 달인다는 나옹화상(懶翁禪師, 1320-1376) 혜근(慧勤)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시의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은 차와 선(禪)은 한 맛으로 통한다는 선의 경지에서 차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사원전(寺院田)이 있는 고려시대의 절에는 차를 만들 수 있는 차밭의 조성이 가능하였다. 통도사(通度寺) 주변의 다촌(茶村), 금어사 주변의 다전(茶田), 경남 남해군 다정리(茶丁里), 남해 용문사 주변의 다면(茶面) 등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소(茶所)²⁸⁾가 생겨났으며, 차를 생산하여 공물(貢物)로 나라에 바치고, 사원의 의식과 승려들이 음다생활을 하는데 쓰여졌다.

고려의 문인들의 차생활은 시를 읊고 자연과 함께하는 선(禪)의 세계로, 자신을 수양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것은 무신정권(1170-1270) 이후에 더욱 많았으며 승려들과의 교류(交遊)를 통하여 명전회(茗戰會)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명전회는 송나라의 ‘투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송대에서의 궁정과 사대부 중심의 투다문화가 고려에 와서는 사원에서 행하여졌다.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왕과 귀족, 관리, 선비와 일반서민 모두가 일상으로 차를 마셨으나 고려 초엽에는 대체로 귀족 중심이었고, 무신난이 일어난 중엽부터 문인들이 다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무신이 집권한 고려 후기에는 궁정에서 차를 하사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정영선, 1990 :108).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6 <全羅道 南平縣>

고려시대의 다인들은 이자현(李資玄, 1061-1125)과 ‘다선일미’를 주장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를 쓴 이인로(李仁老, 1152-1220), 성리학자이며 시인인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이곡(李穀, 1298-1351),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 차의 색향미를 즐겼던 성리학자 이승인(李崇仁, 1349-1392) 등을 들 수 있다.

『고려도경』의 기록을 보면 “고려인들은 차를 내는데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화려하고 품격을 갖춘 다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매일 세 차례씩 차를 마셨다²⁹⁾”고 적혀있다. 차를 마시기 위한 제반 다구는 어떤 그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고, 다기의 사치스러움은 송대의 다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인들은 값진 중국의 차를 좋아해서 송상(宋商)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중국에서는 차를 상품화하여 외국에까지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와 더불어 도자기 문화의 발전은 유명한 ‘고려청자’가 생겨나게 하였다.

원(院)이란 임금이나 관원, 혹은 승려를 포함한 귀족이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 쉬는 집으로, 샘물이나 정자가 유명한 원을 다원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역원(驛院)」 조에는 옛 다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명이 적혀있다³⁰⁾. 한편 일반 백성들이 차를 사기 위한 다점이 생겨났으며, 목종(穆宗, 壬寅 5월(1002)) 때에는 돈 대신 배를 주고 차를 사서 마시기도 하였다.

29) 서균, 『고려도경』 32권 기명3, <다조>

30) 그 역원은 평남 대동의 茶院里, 황해 산의 茶井院, 충북 문외의 茶亭院, 경북 선산의 茶亭院, 경북 함창의 茶方院, 경남 창녕의 茶見院,이며 경주의 창림사지 터에서 茶淵院의 발견은 신라에 다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명배, 1984 : 263-264)

3. 조선시대

송나라와 고려는 경제적 안정으로 가장 화려한 다문화가 나타났던 시기로 본다. 그러나 송대에서 원대(元代, 1279 -1368)에 이르러서는 주도 세력이 한족에서 몽고족으로 바뀌면서 다문화는 변화를 맞이한다. 호쾌하고 소박한 유목민족인 몽고족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송대의 단차 대신에 산차(散茶)³¹⁾가 빠른 속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명대(1368-1662)에 이르면 태조 주원장(朱元璋, 1368-1398)은 ‘단차폐지령(團茶廢止令, 1391)’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으로 귀족적이고 화려한 송대 차문화에서 본래의 차의 맛을 음미할 수 있으면서도 번잡하지 않은 서민들의 문화로 바뀌면서 차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갔다. 다문화는 궁정에서부터 일반서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민들의 가례(家禮)에 사용되었다. 심덕부(沈德符)의 야획편(野獲編)의 ‘임금에게 바치는 차(供御茶)’조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건국 초기에 사방에서 바치던 차는 건령(복건성 전구현)과 양선(강소성 의흥현) 차의 품격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때는 오히려 송대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진상하는 것은 모두 맷돌질을 하고 비벼서 크고 작은 용단차(龍團茶, 용 무늬가 찍힌 덩어리차)를 만들었다. 홍무 24년(洪武, 1391) 9월에 이르러 상감은 민력(民力)의 수고를 중히 여겨 용단차 만들기를 그만두게 하고 오직 차잎을 딴 채로 진상케 하였다.³²⁾

31) 산차(散茶)는 흩어진 잎 형태의 차이다. 片茶의 상대적 개념으로 신선한 찻잎을 살청공정(殺靑工程) 등을 거쳐 찢거나 압제하지도 않고 홍건(烘乾)하여 만든다. 육우는 다경에 마시는 차에는 皺茶, 散茶, 抹茶, 餅茶가 있다고 하였다. 당대에 마셨던 병차는 송대에 황실과 사대부 귀족에게 음용이 되던 단차로 바뀌었으며, 명대에 이르러 사대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산차가 확산되었다.

32) 심덕부撰(明, 1619). 『野獲編補遺』, ‘供御茶 國初四方供茶. 以建寧陽羨茶品爲上. 時猶仍宋制. 所進者俱碾而揉之爲大小龍團. 至洪武二十四年九月. 上以重勞民力. 罷造龍團. 惟採茶芽以進’. (陳組樂 朱自振 編, 1995 : 392)

이 칙령으로 약 400년간 중국 다문화를 이끌어 왔던 연고차의 점다법(點茶法)이 사라지고 산차를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의 시대가 되었다.

청(淸, 1644-1911) 나라에 이르러 앞서 말한 다섯 가지의 차 종류 이외에 청차(烏龍茶)도 나타나 비로소 오늘날 말하는 중국의 6대다류(六代茶類)가 형성된다. 또한 명대의 포다법을 발전시켜 공부차(工夫茶) 마시는 법³³⁾을 개발함으로써 다구와 다기의 품질과 예술적 가치를 높게 하였다. 또한 차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면서 잎차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연고차 중심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송대의 다문화가 서민중심의 소박하고 단순한 잎차들의 출현으로 변화를 이루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국가정책으로 유교를 받아들여 다문화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처음에는 고려에서 발전된 다문화가 궁정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궁정에서 국가적 의례에 차를 올리는 의식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 신라시대에 ‘헌다(獻茶)’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에는 ‘진다(進茶)’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다례(茶禮)’란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궁중의 모든 의식이 매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왕조는 명·청과는 사대(事大)와 일본과는 교린(交隣)관계에 있어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 다례를 행하였다. 초기의 다례에는 작설차(雀舌茶)가 사용되었으나³⁴⁾ 「선조실록」에는 작설차가 아닌 인삼차로 명나라 장군 양호(楊鎬)를 대접한 것으로 보아³⁵⁾ 궁정에서의 다례의 명칭은 바뀌지 않았으나 차의 종류는 달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헌부에서는 관원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라는 풍속이 있었다. 특별한 일이

33) 공부차 마시는 법은 작은 자사호(紫沙壺)를 사용하여 차를 우리고, 다선(茶船)이나 다지(茶池)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차호(茶壺)의 겉과 안에 부어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높게 하는 방법이다.

34) 『태종실록』 1년 2월 14일.

35) 『선조실록』 31년 6월 23일.

없으면 사헌부의 관원들은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이와 같은 풍속은 고려 때부터 계속된 것이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사원차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문화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음다풍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중기에는 양반들의 음다문화는 쇠퇴하였고, 사원의 승려들은 사원내 불전에 헌다하고 차를 마시며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선조(宣祖, 1568-1608) 때의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가 차를 마셨고, 부휴대사(浮休大師, 1543-1615)와 소요대사(逍遙大師, 1562-1648), 대홍사에서는 혜장선사(惠藏禪師, 1772-1811), 초의, 범해선사(梵海禪師, 1820-1896) 등이 다승(茶僧)이었다. 소요대사는 「영조주차(詠趙州茶)」라는 시에서 “세 등급의 찻잔이 눈동자를 바꾸어주던 그 말씀 들어 입문한 사람이 몇이던고”³⁶⁾ 하여 조주가 사람을 만나면 차를 마시라고 하는 조주의 가풍이 지금도 전해져온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선가(禪家)에는 조주 다풍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상현·김봉호, 58).

초의선사는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하였다. 다선일미사상(茶禪一味思想)은 차와 선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도라고 하였다. 선문(禪門)에서는 이러한 다례풍을 이어받아 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 다례가 부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의는 불교학 이외에도 유학, 도교 등 여러 교학에 통달하였고, 범서(梵書)에도 능통하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 홍현주(洪顯周), 김정희(金正喜) 등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정약용에게는 유서(儒書)를 받고 시부(詩賦)를 익히기도 했다.

고려의 문인들이 선의 세계를 추구한 반면 조선의 문인들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지향하는 소박한 차생활을 하였다. 차를 마시기에 좋은 물

36) 소요 『소요당집』 「詠趙州茶」. ‘三等茶甌攪眼睛 幾人言下入門庭…’.

을 폼평하거나, 찻물을 끓이면서 주역을 발견하거나, 차를 예술적 경지에 까지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어려운 나라 살림과 산림에 묻힌 선비들에게 어울리는 자연적 아름다움의 추구였다. 조선시대에는 이행(李行, 1352-1432),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신위(申緯, 1769-1847) 다산, 추사, 영수각 서씨(令壽閣 徐氏, 1753-1823), 이상적(李尙迪, 1804-1865) 등이 차를 즐겼다.

일반 서민들의 의례에도 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주자학이 도입되어 국가적으로 유교의례가 행해지면서 불교의례는 쇠퇴하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는 여러 가례서가 출간되면서 관혼상제는 유교식 의례로 바뀌어갔다.

고려의 청자는 퇴조한 반면, 조선 초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분청자기가 등장했다. 조선시대 잔의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백자로서 꾸밈이 없다는 점에 있다. 신라와 같이 잔을 잔받침대에 받쳐서 올린 공경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잔대는 편리하게 변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민간에서 즐겨 사용하던 사발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일본으로 많은 도공(陶工)들과 함께 건너가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낳게 하였고, 조선의 막사발은 일본의 와비차(侘茶) 미의식에 부합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쇠퇴의 길을 걷는데 대표적인 이유를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내적 원인으로는 생수 맛이 좋은 것과 송늬와 담배, 술을 들 수 있다. 식후 마셔야 될 차 대신에 구수한 송늬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담배의 보급으로 차 생활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담배를 연다(煙茶)라고 표현할 만큼 차를 대신하는 기호품으로 여기면서 애호하였다. 또한 텃텃한 곡주 막걸리는 손님에게 차로 하던 접대를 대신하였다. 외적 원인으로는 역불송유 정책을 들 수 있다(김운학, 1983 : 17-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에서는 다

례가 여전히 행해졌고 초기에는 많은 문인들이 고려의 음다풍을 계승하였고 중기까지 이어왔다. 또 다른 원인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공과 다세로 농가가 피폐해졌으며, 백성들은 차나무를 불태워 버리거나 베어 버리기도 하였다(김상현·김봉호, 1984 : 117).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년)이 있었으며, 전쟁 후 조선은 후금에 조공으로 작설차(雀舌茶)를 바쳐야 했다³⁷⁾.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요구한 조공품 중에서 엽차(葉茶) 200담도 있었다(최규용, 1978 : 68).

이렇듯 조공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차의 재배 및 생산이 따르지 못하였다. 자연히 관청의 다세(茶稅)의 요구가 심해졌으며 민심은 혼란을 겪으며, 다문화의 쇠퇴시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차는 귀해지고 값이 비싸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서민 사회에서의 차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유규(徐有渠, 1764-1845)가 편찬한 『임원경제 16지(林園經濟十六志, 1835)』에 기록된 차생산지는 조선 초기에 비해 10곳이나 줄어들었다(김상현·김봉호, 1984 : 52-53). 차는 재배하지 않은 채 토공(土貢)만을 강요하여 오히려 차의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 차의 대용으로 다례를 행할 때 숙수(熟水, 끓인 물)를 쓰도록 권장하였다. 사원의 승려들은 신라 이래의 음다풍을 꾸준히 계승하고자 하였으나 차를 구할 수 없어 정화수를 쓰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후기 이처럼 다문화는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

요약해 보면 삼국시대의 차의 전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교의 영향이 적지 않다. 고구려는 차가 생산되지 않아 인근 당나라에서 차를 수입하여 마셨을 것으로 추측한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였으며, 현재에도 이 지역이 차의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37) 『인조실록』 14년 2월 4일,

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전하는 문헌이 없어 안타깝고, 화엄사를 지은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위해 차를 올렸던 것이 지금까지 탐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당시 사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또한 승려들은 불법을 전하는 일로 국가 간의 교류를 하였으며, 더불어 차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다.

신라는 삼국시대 중 가장 늦게 불교가 전해졌는데, 불교의 전래와 함께 다문화가 사원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궁정에서 의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음다문화는 왕자출신의 보천·효명, 화랑도 출신의 승려 월명사와 충담사 등, 그리고 원효와 설총 귀족층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차를 미륵세존과 문수보살에게 헌다하였고, 왕에게 차를 다려 바쳤으며 시를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다문화는 궁정에서부터 귀족과 일반 서민들까지 음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원을 중심을 한 다문화는 궁정에서 귀족과 문인, 서민 즉, 민간사회까지 차생활을 하였다. 궁정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 국가적 의례에 차를 사용하게 되고, 사원에서 주로 그 의례를 주관하게 되었으며, 의례를 위한 독특한 ‘다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형식적인 다례 의식(茶禮儀式)은 의식을 위한 차가 되기도 하였다. 문인들은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다선일미의 다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 서민들도 다점에서 차를 살 수 있었고(전완길, 1987 : 191-192), 늘어난 차의 수요로 차를 생산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고려시대의 다구는 최고의 품질과 멋을 지녔고 귀족적이며 아름다웠다. 송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모방도 없지 않았으나 다구의 생김새와 만드는 기법이 매우 독창적이었다.

고려의 불교의식과 음다문화는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자학의 정치이념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궁정의례는 더욱 의식화 되고 차는 초기의 의례에 사용되다가 중기 이후에는 인삼이 이용되기도 한다. 사원과 양반

들의 음다문화가 쇠퇴를 겪어, 소박한 차생활을 하게 되고, 도자기 문화는 화려한 청자에서 단아한 백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Ⅲ. 사원 다의례

부처에게 지극한 공경의 예로 차를 달여 올렸던 의식으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충담사의 헌다의식이 그 효시이다. 일찍이 차(茶), 향(香), 연등(燭), 쌀(米), 꽃(花)은 불전 공양물이었는데³⁸⁾, 이 중에 차공양을 중심으로 올리는 것을 헌다의식(獻茶儀式)이라고 한다. 또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수행하는 육공양물에는 종교적 상징이 있으니, 헌다는 ‘선정(禪定)’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 전부터 차를 헌다했는데, 공양 다례인 헌다의식은 불교 의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신라시대에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미륵보살(彌勒菩薩)에게 올렸던 다의례를 시작으로, 고려시대에 중국에서부터 전래된 선종의 ‘청규’와 토착불교의 융합으로 의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역불책으로 인하여 사원 내에서의 의례로 축소된 다의례와 다게를 살펴보고, 승려들의 차생활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토속신앙에 의한 다의례

신라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종은 교종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스스로 사색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며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찾는 경향이 강하였던(동아시아 연구소, 2003, 39) 선종은 신라인으로 하여금 그 만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38) 『범음집』 상권 「靈山作法節次」

『삼국유사』에 수록된 『오대산의 오만진신(五萬眞身)』과 『보질도태자전기(寶叱徒太子傳記)』조에 따르면 신라 31대 신문왕의 두 아들인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이 오대산에서 수도하면서 매일 일만 진신문수(一萬眞身文殊)에게 공양한 기록이 보인다.

50년 동안 참마음을 닦았더니 도리천(忉利天)의 신이 조석으로 법을 듣고 정거천(淨居天)의 무리들은 차를 달여 바치고 40명의 성인들은 10척 높이 하늘을 날며 항상 그를 호위해 주었다.³⁹⁾

진여원(眞如院)에는 문수보살이 매일 이른 아침이면 36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났다. …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이면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가 오만진신(五萬眞身)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⁴⁰⁾

보천·효명 두 태자는 지금의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골짜기에 들어가 수도를 했는데 매일 아침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달여 문수보살에게 공양을 했다. 그 뒤 보천태자가 신성굴(神聖窟)에 들어가 50년 동안 수도를 했는데, 정거천(淨居天)의 천인(天人)들이 감동하여 매일 차를 달여 공양을 했다. 박숙희(1994 : 28)의 연구에서 “천인이 인간에게 차를 달여 공양을 한 예는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보천과 효명태자가 문수보살에게, 정거천의 천인이 보천태자에게 헌다한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덕이 있는 사람이나 어진 선비에게 올리는 최상의 예우이다. 이들에 의해 덕성왕(德聖王) 4년(705)에 진여원(眞如院)이 오늘날의 상원사로 창건되었다. 두 태자가 문수보살에게 헌다한 의식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다만 불보살(佛菩薩)에 헌다(獻茶)하는 의식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39) 일연. 『삼국유사』 「오대산의 오만진신(五萬眞身)」, ‘又修真五十年 忉利天神 三時廳法 淨居天衆烹茶供獻 四十聖 騰空十尺 常時護衛’.

40) 일연. 『삼국유사』 「보질도태자전기(寶叱徒太子傳記)」, ‘每日寅朝 文殊大聖 到眞如院 變現三十六種形 …二公 每汲洞中水 煎茶獻供’.

다.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表訓大德)』 조에는 충담사가 경주 남산의 삼화령(三花嶺)에 있는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차를 달여 바쳤다는 설화가 있다.

다시 스님 한 분이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걸망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기쁘게 보고 누상(樓上)으로 맞아들였다. 그 걸망 속을 보니 다구가 들어 있었다. 왕이 말하길, “그대는 누구시오?” 스님이 말했다. “충담이라 하옵니다.” 왕이 말했다. “어디서 돌아오는 길이오?” 스님이 말했다. “소승은 해마다 삼월 삼짓날과 구월 중구날이면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彌勒世尊)께 공양(供養)을 올리는데, 지금도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⁴¹⁾

충담사가 경주 남산(南山)의 미륵세존에게 차공양을 올린 것은 불교에서 행하는 헌다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의 하층민(下層民)인 대중(大衆) 구제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미륵하생 신앙이다. 이 신앙은 미래의 이상향을 믿고 기다리는 인간의 믿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정영선, 1990 : 82), 통일 전쟁에 희생된 신라 장정(壯丁)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에서는 미륵신앙과 아미륵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북위(北魏) 용문불교(龍門佛敎)와 같은 것이 수용되었고, 백제는 무왕대(武王代, 600-640)에 이르러 미륵상생신앙이 하생신앙으로 바뀌었으나, 신라에서는 미륵하생신앙에 수용되고 있다고 하였다(홍윤식, 1985 : 823-825). 이것으로 보면 충담사는 미륵세존에게 헌다한 것은 미륵하생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1) 『삼국유사』 권 2 『경덕왕 충담사(표훈대덕)』,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석굴암(石窟庵) 본존불(本尊佛)을 향하여 우측 벽의 두 번째 상은 문수보살로서 오른손에 찻잔을 들고 있다. 석굴암의 창건은 경덕왕 10년(751)으로 충담스님이 경덕왕에게 차를 올린 때보다 10년 앞선다. 이것으로 보면 신라의 불가에서는 미륵세존과 문수보살에게 헌다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처에게 헌다한 것보다 보살에게 헌다한 기록으로 고려시대에 이르면 그 대상은 신불·선왕·역대조사(歷代祖師)스님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라시대의 차는 불교와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절이 있는 곳, 승려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차가 있고 불교의식에서는 헌다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佛經)을 두고 ‘다로경권(茶爐經卷)’이라고 하는데, 이는 차와 불경은 몸과 마음을 기르고 영원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로 인도하여 주는 바른 스승(최규용, 1979 : 75)이라고 여겼기에 불경과 같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2. 청규(淸規)에 의한 다의례

고려에서는 신라의 토속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국교로 삼았다. 국가의례를 궁정과 사원에서 불교식으로 거행하면서 불교의례의 전성기가 되었으며, 승려들에게서 차는 정진과 손님 접대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궁정과 귀족의 불사(佛事)로써 받은 사원전(寺院田)과 토후(土侯)의 시주로 화려한 불교문화가 양산된다. 국가시험에 의한 승과제도가 실시되고, 연등회, 팔관회가 재연되고 대장경의 판각이 완성되면서 불교의 중흥을 이룬다. 그러나 승려들은 부유한 사원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어 사원이 부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대의 육우의 『다경』과 선종이 송대에 이르러 예문화와 융합하면서

당·송 이래 중국의 다문화의 범도가 되었고(이광주, 2002 : 51-52), 이러한 중국의 차와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불교의례와 다문화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고려시대는 교종의 발전으로 의천에 의한 천태종의 설립과 선종의 발전으로 지눌에 의한 조계종의 설립으로 불가의식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자현은 독자적인 선(禪)을 확립하기도 한다. 고려 말기에 이르면 송대의 주자학의 도입으로 의례에 불교적·유교적 색채가 함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불교는 중국을 통하여, 중국은 인도에서 그 문화를 전수 받았다. 인도에서 유래된 선(禪)⁴²⁾은 보리달마(菩提達磨, ?-528)에 의해 중국에는 한대(漢代)에 전래되어 수(隋)·당(唐)을 거치면서 대단히 흥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선종(禪宗)은 도교의 신선사상, 도가의 무위자연의 영향을 받아 다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선종은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佛在內心)’는 사고와 ‘돈오성불(頓悟成佛)’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곧 참선(參禪)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湯一介, 1999 : 3). 불교가 성행했던 당 현종(唐, 玄宗, 713-741) 때의 태산(泰山)의 영암사(靈巖寺)에서는 종파를 형성하면서 ‘오도(悟道)의 경지’를 이상으로 지향했던 선종은 『백장청규(百丈清規)』⁴³⁾로써 총림(叢林)의 예법을 정하였다. 부처를 위한 차공양을 비롯해 다례(茶禮)의 거행을 알리는 다고(茶鼓), 다당(茶堂), 그리고 행다례 등이 기술되어 있다.

42) 선(禪)이란 범어로는 디야나(dhya-na), 팔리어로는 자나(jha-na)이다. 이를 음사하여 선나(禪那)·사유수(思惟修)라 하며, 음사와 의역을 합하여 선정(禪定)을 일컫는 말로써, 정려(精慮), 즉 고요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어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무아의 경지에서 진실한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종에서는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教外別傳)’이라고 하여 법은 마음으로 전해지지 따로 언어나 문자로써 방법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선을 통한 ‘오도(悟道)’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 하여 분별심을 떠난 절대적 주체로서의 마음을 지닌 자아의 본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아는 것을 말한다.

43) 『백장청규』는 당(唐) 덕종(785-804)때에 홍주(洪州, 江西省 南昌府 奉新縣)의 백장산(百丈山)에 있는 대지수성선사(大智壽聖禪寺)의 백장회해선사(百丈懷海禪師, 724-814)가 제정한 선문(禪門)의 일용행사 규범으로, 법요 의례가 대부분 다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차를 마시는 절차와 형식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전한다.

『신당서(新唐書)』의 「육우전」에 의하면 육우는 경릉(竟陵)에서 태어났으나, 버려졌으며 10년 정도 선원(禪院)에서 생활하였는데, 『다경』은 육우 자신의 사원생활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사원에서의 차생활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서은미는 『다경』을 저술한 육우와 선종 최초의 율법(律法)인 『백장청규』를 만든 백장선사(百丈禪師, 720-814)의 생존시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였다(서은미, 2004 : 139). 이것은 선종에서 강조하는 것이 검약과 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깨끗한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육우가 차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여겨진다. 육우는 『다경』에서

차의 맛은 지극히 차서 행실이 바르고 검소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음료이다.⁴⁴⁾

차의 성품은 검소하여 넓은 것에는 마땅하지 않다.⁴⁵⁾

만약 목마름을 그치게 하려면 마시기를 음료로서 하고, 근심과 울분을 덜려면 술을 마시고, 혼미함을 쓸어버리려면 차를 마셔라.⁴⁶⁾

라고 말한 것은 차를 갈증을 없애주는 음료로 마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하여 차를 마신 것으로 정진을 하는 승려들이 추구하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선원청규』는 송(宋)의 진정부(眞定府)의 홍계선원(洪濟禪院)에 있던 종이선사(宗頤禪師)가 『백장청규』의 부흥을 꾀하여 5년간 선사를 찾아서 모은 생활규범을 집대성한 것으로 모두 10권으로 된 선종의 다례규범으로 불가의 다례를 엮볼 수 있다. 다례와 관계되는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44) 육우. 『다경』 一之源,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

45)육우. 『다경』 五之煮, ‘茶性儉. 不宜廣’.

46) 육우. 『다경』 六之飲, ‘至若救渴 飲之以漿 饑憂忿 飲之以酒 蕩昏寐 飲之以茶’.

- 제1권 : 다탕(다회)의 모임에 도착하다
- 제2권 : 차 모임의 초대장
- 제4권 : 손님 접대역
- 제5권 : 지사(知事)와 두수(頭首)를 위한 점다
- 제6권 : 차 대접에 사례한다.
- 제7권 : 고승대덕의 편지받기

원나라 순종(順宗) 원통(元統) 3년(1335)에 순종의 칙령으로 대지수성선사(大智壽聖禪寺)의 주지(住持)로서 백장선사의 18대 법손인 동양덕회선사(東陽德輝禪師)가 지원(至元) 2년(1336)부터 2년간에 걸쳐 집대성한 것이 『칙수백장청규』이다. 모두 9장 91절 87과로 구성된 『칙수백장청규』 중에서 다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권상(卷上)의 주지장(住持章) 第五에는 후임의 주지를 의거할 때 존다(尊茶), 상다(上茶), 회다(會茶) 의식이 거행되었고, 권하(卷下)의 양서장(兩序章) 第六에는 차를 우리는 데 필요한 소임과 명덕(名德)의 수좌(首座)를 청하거나 시자(侍者)가 후퇴할 때, 망승(亡僧)에 다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 절납장(節臘章) 第八에 4월 13일의 엄회(嚴會)에는 다탕을 올리고 사절염불(四節念佛)에는 헌다(獻茶)가 있다. 법기장(法器章) 第九에 보면 깍다시(喫茶時)의 종(鐘)치기, 점다시(點茶時)의 판(版)치기, 다고(茶鼓) 치는 법 등이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사원에서 부처나 사자(死者)를 위한 의식보다는 차생활을 위주로 한 승려와 대중들이 차를 마시는 의례가 중시되었다.

남송대(南宋代) 각림사에서 수확한 차는 3등급으로 나누어 대객(待客), 자봉(自奉), 공불용(供佛用)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최상품을 불전에 바치고 최하품을 자신이 마시는 것으로 사용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으며(陸天羽, 1993 : 49)⁴⁷⁾, 청규에는 매일 불전·조전·영전에 다탕을 공양해야

47) 『飲茶漫談』 「蠻甌志」, ‘覺林院僧志崇. 收茶三等. 待客涼雷莢(中等茶). 自奉以萱草帶(下等茶). 供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청규를 채용했다는 것은 선덕여왕 5년(784) 때에 도의선사(道義禪師)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백장선사를 뵈고 현덕왕 13년(821)에 신라로 돌아왔는데, 아마도 『백장청규』를 지켰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김명배역, 1984 : 183-184). 또한 고려 원명국사(圓明國師, 1286-1351)의 묘비명을 지은 원나라 집현 학사인 위소(危素)가 「고려임천대보광선사중창비(高麗林川大光禪師重創碑)」에 “국사가 용천사(龍泉寺)의 주체로 비로소 백장선사의 선문청규를 취하여 이를 행하였다”라는(김명배, 1999 : 38) 비문의 내용에 의한 것이다. 『선원청규』의 다례가 고려에서 채용되었다는 것은 고종 41년(1254)에 『중첨족본선원청규(重添足本禪苑清規)』와 수선사(修禪社, 송광사)의 일 세(一世)인 보조국사(普照國師, 1158-1210)가 만든 『성초심학입문(誠初心學人文)』에 전하는 일부 내용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칙수백장청규』에는 의례를 거행하는 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불가에서는 그 청규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한다. 천태종(天台宗)의 시조인 대각국사(義天, 1055-1011)는 선왕(先王)인 문종의 영전에 차와 과일 등을 갖추어 올리고 제사를 지냈으며, 때로는 시절 음식을 올리기도 했다(동국대학교불전간행위원회, 1990 : 555). 원감국사 충지는 혜소에게 올린 제문에서 한동안 못 지내던 제사를 정월 초하루에 지낸다고 하며 “삼가 향과 차와 기타 음식을 영전에 올리나니…”라고 하여 설날에 제사다례를 올린 것을 볼 수 있다(정영선, 2000 : 192).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선원청규』의 다례가 채용되었는데,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고려시대의 총림에서 행해진 다의례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고 음다풍속과 시와 글로 전해지는 것으로 사원의례를 짐작할 뿐이다

佛以紫茸香(上等茶) 蓋最上下以供佛. 而最下以自奉也. 客赴茶者. 皆以油囊盛餘瀝以歸.

(정영선, 2000 : 157).

3. 헌공다례(獻供茶禮)와 다게(茶偈)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많은 경서(經書)가 간행되었고, 사원에서는 종파와 관련 없이 차가 의례와 선승들의 정진에 이용되었다. 여러 상황으로 사원과 민간에서는 차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차 대신 물[정화수]이 의례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주자학이 도입된 뒤 점차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다(김명배역, 1984 : 55), 사원의례도 축소된 형태로 남게 하였다. 따라서 차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차 대신 맑고 깨끗한 물로 대치되었지만 이를 차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받아달라는 간절한 다게를 염송하였다. 모든 사찰의 부처님 앞에 향로와 다기(茶器)와 촛대와 과일이 있었다. 본존불(本尊佛) 뿐만 아니라 나한전(羅漢殿), 관음전(觀音殿),地藏전(地藏殿)은 물론 칠성각(七星閣) 같은 모든 전각(殿閣)에 봉안된 불전에 새벽, 점심, 저녁 예불(禮佛)에 차를 올리는데, 차가 귀해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기에 정화수(淨華水)를 담아 부처님 앞에 올리고 다게(茶偈)를 낭송하였다.

제가 이제 깨끗한 물을 올리오니 감로차로 변해지이다. 여러 부처님 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자비로 받아 주옵소서.⁴⁸⁾

또한 불상(佛像), 괘불(卦佛)을 모실 때,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는 시식(施食), 제사의식에도 다례를 행하고 다게를 읊는다.

48) ‘我今清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垂哀納受’. (무생법인, 2001 : 388)

차는 조주(趙州)의 청차(淸茶)를 올리오니 항상 부족한 감정이 없이 만족을 이루기 바랍니다.(이형석, 1986 : 156-157)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스님의 열반 후 영골(靈骨)을 모신 부도(浮屠)의 다례가 해마다 중요한 날에 행해지는 큰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한전에서 불공할 때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 또한 여러 신장(神將)님께 기도나 공양을 올릴 때에도 차와 다게가 우선하고 있다. 차는 이렇게 모든 불교의식 속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7월 백중절, 초파일 등 사원의례는 민간의 연중행사⁴⁹⁾와 결합하여 차를 불전에 올리고 축원하였다.

초의의 『동다송』에는 당대의 각림사(覺林寺)에서 차를 의례에 사용할 때 차등있게 하였음을 적고 있다. 이 기록은 사원에서 부처님께 자용향(紫茸香, 햇차)을 올리고, 경뢰협(驚雷莢, 고산차)은 손님을 대접하고, 흰초대(萱草帶, 거친차)는 스스로 봉양하였다⁵⁰⁾하여 부처님에게 올리는 차를 가장 중요시 여겼고, 자신이 마시는 것도 봉양이라 하여 차를 마신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었다.

신라와 고려의 승려들은 귀족층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아지고 선승(禪僧)들이었으나(정영선, 2000 : 157) 학문을 깊이 닦고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여 많은 경서들을 발간하였다. 화엄사(華嚴寺)의 주지인 지환도인(智還道人)이 지은 『범음집(梵音集)』, 백파선사(白波禪師, 1767-1852)의 『작법귀감(作法龜鑑)』, 1931년에 펴낸 안신호(安晨湖)의 『석문의궤(釋門儀執)』에는 거의 내용이 같은 다게가 보이므로 다례의 맥은 계승

49) 연중행사는 음력 정월부터 선달까지 같은 주기에 반복하여 거행하는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적인 행위로 세시(歲時)·세사(歲事)·월령(月令)·시령(時令) 등으로도 불리고 근래에는 주로 연중행사라고 한다. 정월 설날과 보름, 이월이두, 삼월 삼짇날, 4월 초파일, 연등,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백중, 팔월 한가위, 구월구일, 시월 상달, 11월 동지, 선달그믐 등을 말한다.

50) 초의. 『동다송』, ‘唐覺林院 僧志崇 製茶三品 待客以驚雷莢 自奉以萱草帶 供佛以紫茸香’,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작법귀감』에 제시된 「종사영반(宗師靈飯)」의 다게와 함허선사(涵虛禪師 得通, 1376-1433)가 진산대사(珍山大師) 전(前)에 차를 올리며 읊은 다게이다.

다리 부러진 창난 술 안에 마른가지를 지퍼 차를 달여 선사께 바치오니
그 가운데 자미가 다른 물건이 아니어서
조주노인의 마땅한 기가 같증을 그치게 하네.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사 애처러움을 받아 주시옵소서.⁵¹⁾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나니.
한 조각 마음에 한 잔 차 있나니
마땅히 한 잔 차 맛보고
한 맛에 무량한 즐거움 나나니.⁵²⁾

종사영반은 원래 타계한 큰스님의 49재나 기일에 사용하는 천도의식으로 당호나 불명을 갖추고 있는 큰스님을 위해 행하는 의식으로(무생법인, 2001 : 441) 다른 의례와는 다르게 차와 밥(飯)을 올린다. 이와 같은 선승의 제사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검박한 차 한 잔과 다게에는 일반 영가전(靈駕前)에 올리는 다게와는 다르게 매우 선(禪)적이다. 사원에서 차를 올리고 읊는 다게의 내용은 대부분 조주선사(趙州禪師, 778-897)의 선풍(禪風)으로 차를 통해 지니는 엄절한 청정미를 일미로 보는 ‘다선일미’의 경지를 종사(宗師)에게 수어(垂語)하여 본래 면목을 밝히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지환도인의 『범음집』의 「범사이윤」 조에는 “종을 치고 차를 바치며 차린 것이 적으면 다게를 한다”고 하여 공양물이 부족할 때 다게를 보완하는 의미로 올리기도 하였다.

51) 백과선사. 『작법귀감』 「종사영반」, 『折脚瘡鐺子裏 枯枝煮茗獻先師 簡中滋味非他物 趙老當機止渴來 願垂慈悲哀納受』.

52) 함허, 『一椀茶出一片心 一片心在一椀茶 當用一椀一嘗 一嘗應生無量樂』, (석성우, 1981 : 179-180)

신라, 고려에 이어 조선 시대에도 사원 다례는 계승 발전되었다. 이 시대에는 함허선사의 ‘헌다수어(獻茶垂語)’와 승법해각안(僧法海覺岸)의 ‘영각(影閣)’과 같은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고려 때 죽암(竹庵)스님이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제의(天地冥陽水陸齋儀)에 근거를 둔 의식이며, 『백장청규』나 『선원청규』와는 별도로 독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불가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게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 뒤에 수록무차평등재촬요(水陸無遮平等齋撮要)가 편찬(編纂, 1573)되었고, 이어서 서산대사의 운수단가사(雲水壇歌詞, 1659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고, 또 그의 제자인 명조(明照)스님에 의해서 승가례의문(僧家禮儀文, 1693)이 간행되었다. 그 뒤 지환도인(智還道人)의 천지명양수륙제의범음책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集)이 나오고, 백파선사(白波禪師)의 『작법귀감(作法龜鑑)』, 안신호(安晨湖)의 『석문의범(釋門儀範)』 등이 나왔다. 1935년에 간행된 『석문의범』은 근대의식에 맞게 편찬하여 과거의 선(禪)에 치우쳤던 청규와는 다르게 포교방식의 개선으로 불교잡지의 발행, 한문경전의 번역, 불자들이 알기 쉽도록 책자 발행 등의 세속적인 강연방식을 취해서 출판되었다.

4. 승려들의 차생활

승려들이 차를 마시거나 불전에 공양하는 것은 신라 이래로 있었지만 고려의 승려들은 차를 더욱 즐겼다. 차를 손수 만들어 불전에 헌다하고 방선 후(放禪後) 차를 마시며 삼매경에 들기도 한다. 차를 마시면 잠을 쫓아주는 각성효과가 있으며, 배가 부를 때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승들에게는 기호와 건강의 기능을

넘어 다도(茶道)는 곧 선(禪)과 통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차생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불자는 오계(五戒)가 있는데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않는 계율이 있어서 승려들끼리 혹은 속가의 손님을 맞을 때 차는 술을 대신하는 음료로, 돌아가신 승려의 제사에도 차를 이용하였다(정영선, 2000 : 151). 이러한 연유로 차는 영험한 음료로 각광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사찰을 중심으로 다문화가 번성하게 되었다.

1) 안분지족(安分知足)

산사에서 수행을 하는 승려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는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모여서 도(道)의 경지, 즉 선경(仙境)에 이른다고 보았다. 승려들의 일상생활도 수련의 한 부분으로 산사에서 자연과 벗하며 부족한 것이 많지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원감국사 충지는 수선사(修禪社)의 제 6세로 지눌(知訥)의 선풍을 계승한 승려로 백련사(白蓮社)의 제 4세 범주가 되었던 천태종의 시조이다. “도잠(陶潛)으로 다려(茶侶)를 삼음이 이미 오래다.”와 “날마다 시자가 차를 내온다”라고 한 것은 충지가 차를 즐기던 승려임을 말해준다(김상현, 1987 : 10). 다음은 「한중우서(閑中偶書)」와 「병중에 홀로 앉아 생각을 적다(病中獨坐書懷)」라는 시이다.

끓주림에 밥 먹으니 밥 맛 더욱 있고
 잠에서 일어나 차 마시니 차 맛 새삼 달콤하네
 있는 곳 구석저 찾는 이 없는데
 암자는 비어 부처님과 한 방에 있어 기쁘구나.⁵³⁾

53) 서거정. 『동문선』 권 20 「閑中偶書」, ‘飢來喫飯飯尤美 睡起啜茶茶更甘 地僻從無人扣戶 菴空喜有佛同龕’.

가을이 되면 도토리과 밤을 줍고
봄이 오면 명아주와 자리콩을 찾네
돌남비엔 일곱 사발의 차가 있고
질화로엔 한 자루의 외씨향이 있네.⁵⁴⁾

충지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차 마시는 평범한 일상에서 넉넉한 즐거움과 깊은 맛을 느꼈으며 평상심이 도(道)라 생각하였다(이일희, 2002 : 68). 자연과 벗하며 조용하고 여여(如如)한 그의 생활을 선(禪)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나옹선사는 보우(普愚)와 함께 고려 말의 선종의 고승으로 조선 불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서예와 그림이 뛰어났으며 그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그 생활을 타하지 않고, 항상 차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백납가(百衲歌)」와 도(道)를 묻는 보선자(普禪者)에게 계승으로 이른 시이다.

춘하추동 긴 날에 입고 먹는 것을 생각하나
때가 되면 재 지내고 남은 음식 절로 먹게 된다.
헤어진 가사 장삼 한 벌이면 족하고
밥 먹고 갈증 나면 차 마시고 곤하면 잠잔다.⁵⁵⁾

본래 천연(天然)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거늘
어찌 수고로이 밖을 향해 따로 이치를 구할 것인가
다만 한 생각으로 마음에 일 없으며
목마르면 차 달이고 피곤하면 잠을 자리⁵⁶⁾

54) 원감국사. 「病中獨坐書懷」, 「秋至拾橡栗 春來探藜覓 石銚茶七甌 瓦爐香一瓣」, (김명배, 1994 : 125)

55) 나옹선사. 「百衲歌」, 「冬夏長被任自便 隨時受用也宜然 衲衣殘下何奇特 饑食渴茶困則眠」.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1990 : 705)

56) 나옹선사. 「本自天然非造作 何勞向外別求玄 但能一念心無事 渴則煎茶困則眠」. (김상현, 1995 : 73)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묘경(妙境)을 터득함이 수행자의 본분인데, 나옹의 일상은 산에서 살면서 시름없이 자연에 맡겨 만사를 쉬어버리고 “오직 때가 되면 배고픔을 아네”라고 하였다. 세상의법도와 이치를 알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차를 권하였다. 나옹의 시를 보면 일상의 일과 차를 마시는 것으로 편안함을 가지며, 안분지족한 삶이 도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범해(梵海, 1820-1896)는 조선시대 말기의 승려로 열네 살에 대둔사로 들어가 열여섯 살에 호의 시오(縞衣 始悟) 선사로부터 사사를 받고 후에 대둔사의 13대 강사가 되었다. 다음은 범해의 검박한 차생활을 알 수 있는 「다구에 뜻을 새김(茶具銘)」과 산거 「산거(山居)」라는 시이다.

내 생활 맑고 한가하여
 두어 말 작설차 있다네
 일그러진 화로 놓고
 문무화를 피웠네
 오지탕관은 오른쪽에 있고
 찻잔은 왼쪽에 두었네
 오직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나의 일이니
 무엇이 나를 유혹하리.⁵⁷⁾

물을 떠다 차를 달이고 벗을 불러 나누어 마셨거니
 정분(情分) 또한 감돌아 방 안 가득 훈향(薰香)이 넘치네
 평론하고 구독(句讀)하며 새 학문을 파고드는데
 못 글월 섭렵함이 예전에 들은 것을 증험한다.
 도량을 깨끗이 치우고 시장기를 때웠노니
 선경까지 사무치는 곳 구름에 싸여 홀로 앉아 있으라
 이미 그 중에 지극한 낙이 있음을 알겠노라
 가소롭다, 저자거리 번다한 이야기들⁵⁸⁾

57) 범해. 「茶具銘」, ‘生涯清閑 數斗茶芽 設苦竈爐 載文武火 瓦罐列右 瓷盃在左 惟茶是務 何物誘我’.

58) 범해. 「山居」, ‘汲澗煎茶喚友分 情林密勿滿堂薰 評論句讀砭新學 涉獵篇章證舊聞 淨除道場充空肚 通開方丈坐孤雲 已知至樂箇中在 可笑云爲陌上奔’.

범해는 자신의 생활에 오직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 차를 마시는데 소박한 다구 몇 개가 필요하고, 그로써 차를 마심이 하루의 일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다구의 위치를 설명하여 행다법의 기준을 삼게 하였는데, 차를 우리는데 필요한 탕관은 오른쪽에 놓아 화로가 오른쪽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찻잔은 왼쪽에 두었다 하여 차를 우리는 가장 편한 찻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범해는 산사생활에서 차를 중요한 것으로 보았는데, 손님에게 차를 달이고, 정분을 나누며 새 학문의 정진의 계기를 삼기도 하였다. 그는 차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찾고 세속의 번잡함을 경계하였다. 범해는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차를 마시고 나온 경험을 「다약설(茶藥說)」에 싣기도 하며 차의 효능을 알리기도 하였다.

2) 사무사(思無邪)

사무사⁵⁹⁾란 “시경 300여권의 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다면 생각에 있어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이 구절은 공자의 인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다. 그리고 다도에 있어서 화정(和靜)의 근원이 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다의례를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 극진한 의례로써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선의 경지로까지 이어 나갔다. 고려 말기의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는 원국(元國)에서 호승(胡僧) 지공선사(指空禪師)를 찾아 10년을 수도하고, 차로써 전법(傳法)을 받았다. 후에 고려에 돌아와 왕사로 책봉 받고 송광사에 주석하였다. 그가 중국에서 수행할 때 지공선사로 부터 전법을 받고 그에 답하는 시를 지어 바쳤다.

백양에서 차 마시고 정안(正安: 지공방장실의 이름)의 열매는
해마다 어둡지 않은 한결같은 약이네.
동서를 바라보면 남북도 그렇거니

59) 『논어』 「위정편 3」, ‘子曰 詩三百一言以 之曰 思無邪’.

종지(宗旨) 밝힌 법왕에게 천검(千劍)을 준다.⁶⁰⁾

스승님 차를 받들어 마시고
일어나서 세 번 예배하나니
다만 이 참다운 소식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네⁶¹⁾

이것은 차로써 전범한 특별한 예로써 선과 차가 불이(不異)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천병식, 1996, 98). 나옹과 인도의 스님 지공은 차를 마신 것으로 불법을 전수받은 것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이었다(이일희, 2002 : 70).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정신을 바탕으로 심신의 수행을 차를 통하여 체험하고 자신의 인격을 수련함이 다선일미(茶禪一味) 정신이란 말이 비롯되었다.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文宗, 1047-1083)의 넷째 아들로 천태종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나 원효를 종조로 삼아 그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을 실천하였다. 원효의 화쟁사상의 배경에는 불교계 자체의 사상적인 배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라의 불교는 전래 당시부터 고유신앙과 대립이 매우 심하였다. 신라는 천지신(天地神)을 모신 신궁(神宮)을 통하여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는바 외래신앙인 불교의 유입은 강력히 저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효의 화쟁론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신앙을 융화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천의 「스님에게 차를 보낸 사람에게(和人以茶贈僧)」라는 시이다.

북원에서 새로 만든 차를
동쪽 숲(고려의 사원)에 사는 스님에게 보냈도다.
한가로이 차 달일 날 미리 알고

60) 지공선사, 「行狀」, 『陽契茶正安果 年年不味一通藥 康西看見南北然 明宗法王給千劍』, (석성우, 1981 : 172)

61) 나옹선사, 「行狀」, 『奉喫師茶了 起禮卽禮三 只這眞消息 從古至干今』, (석성우, 1981 : 172)

찬 얼음 깨고 샘 줄기를 찾는다. 62)

북원은 송대의 어다원(御茶園)이 있는 곳으로 고급차를 생산하는 곳이다. 북원의 햇차를 절에서 받아 마시려는 때는 채 얼음도 녹지 않는 이른 봄으로 귀한 차를 보낸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찬 얼음을 깨고 차물을 찾는다고 하였다.

진정국사 천책은 예부시(禮部試)에 합격한 유학자였으나 최상국(崔相國)이 건네준 『법화경(法華經)』을 읽고 원묘국사(圓妙國師, 1163-1245) 요세(了世)의 사문에 출가하였다. 그는 선사로부터 차를 받고 「선사가 주신 차에 사례하다(謝禪師惠茶)」라는 시를 지었다.

귀한 차는 몽산의 고개에서 받고
뛰어난 샘물은 혜산에서 길었다네
악귀를 제거하면 능히 잠을 쫓고
손님맞아 한가함을 도모하오
감로는 털구멍에 가득차고
맑은 바람 겨드랑 사이에서 풀무질하네
어찌 영약 마시기를 바라라
그런 뒤 어린아이 얼굴(동안)로 머문다 하리⁶³⁾

이 다게는 노동의 「차노래(茶歌) - 햇차를 보낸 맹간의(孟諫議)⁶⁴⁾에게 글로 감사하여」 중에서 “일곱 쟈 사발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오호라 두 겨드랑이에 느끼느니(七碗吃不得 也唯覺兩腋)”라는 구절을 진정국사는 “감로는 털구멍에 가득차고 맑은 바람 겨드랑 사이에서 풀무질하네(甘露津毛孔 清風鼓腋間)”라고 운색하여 노동이 읊었던 그仙境(仙境)이 이르고 있다(김

62) 대각국사. 「和人以茶贈僧」, 「北苑移新焙 東林贈送僧 豫知閑煮日 泉脈冷敲氷」. (무산, 2000 : 26)

63) 진정국사. 『호산록』, 「謝禪師惠茶」, 「貴茗承夢嶺 名泉汲惠山 掃魔能却睡 對客更圖閑 甘露津毛孔 清風鼓腋間 何須飲靈藥 然後駐童顏」.

64) 諫議는 諫議大夫의 준말로 벼슬이름을 말한다.

상현 1987 : 10). 다음은 노동(盧仝, 795-835)이 일곱 잔의 차를 마신 후에 느껴지는 각각 다른 감각과 느낌을 잘 묘사한 「차노래」이다.

사립문 빗장 걸고, 속세 손 없을 제
룽두(籠頭) 벗고 사모(紗帽)쓰고 손수 다려 마시니.
푸른 거품구름 바람에 끌려 무단히 불고
흰 거품 꽃 뜨며 반짝이며 완면(盪面) 엉기네.
첫 사발은 목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사발 고독과 번뇌를 없애며,
세째 사발 메마른 창자 살피주니,
오! 오천자의 문장이 떠오르네.
네째 사발에 미한(微汗)이 나더니,
한평생 편평치 않았던 일이
다 털구멍으로 흘러지네.
다섯째 사발 살과 뼈를 맑게 하며,
여섯째 사발 신령과 통교(通交)하네
일곱째 사발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오호라 두 겨드랑이에 느끼느니,
술술 일어나는 맑은 바람.
봉래산이 어느 곳인가 물어,
나 옥천자는
이 맑은 바람 타고 돌아가고자 하니.⁶⁵⁾

이 시를 통하여 당대의 음다풍습과 차를 대하는 노동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노동은 차를 마시는데 있어 의관을 정제한 후, 차를 보내준 맹간익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는데, 노동은 차를 마실 때 친한 벗이나 다른 문인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속세의 객이 없을 때를 기다려 혼자서 마신 것은 차를 마실 때의 최고의 경지, 즉 혼자 마실 때를

65) 노동. 「茶歌」, '柴門反關無俗客 紗帽籠頭自煎喫 碧雲仁風吹不斷 百花浮光凝碗面 一碗喉吻潤 兩碗破孤悶 三碗搜枯腸唯有文字五千券 四碗發輕汗 平生不平事 盡向毛孔散 五碗肌骨清 六碗通仙靈 七碗吃不得 也唯覺兩腋 習習清風生 蓬萊山,在何處 玉川子 乘此清風欲歸去'. (윤경혁 역주, 2004 : 430-433)

의미하는 신(神)의 경지를 느끼고자 한 것이고, 차를 마신 후 봉래산으로 간다고 한 것은 신선(神仙)을 추구하는 도가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은 차를 마신 후 최고의 경지를 신선으로 보았지만 승려들은 사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선(禪)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승려와 문인들의 시에 등장하는 노동의 「다가(茶歌)」는 다선일미의 경지가 곧 신선의 세계와 같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차를 통하여 선의 경지에 이른 선승은 서산대사(西山大師, 休靜, 1520-1604)⁶⁶와 초의와 범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산사에서 차생활을 무량한 즐거움, 찻자리의 마음이 곧 선이라고 하며, 다선일미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낮에는 차 한 잔
밤이 되면 잠 한 숨
푸른 산 흰 구름
더불어 무생사(無生死)를 말하네.⁶⁷

이 시에는 임진왜란에서 승병장 활동을 한 서산대사의 인생의 사고(四苦·生·老·病·死)를 초월한 초월적 인생관을 표현한 것이다. ‘푸른 산 흰 구름’ 구절은 진리의 침묵, 대자연의 청정심(淸淨心)과 청허(淸虛)한 법신(法身)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무생사를 말함이라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름을 말하고 있다.

스님 몇 명이 있어
내 암자 앞에 집 지었구나
새벽중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 복에 함께 잠든다.

66) 西山大師는 中宗 15년 (1520년) 안주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淸虛 또는 休靜 자는 현응(玄應)이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서 그를 서산대사라 하였다.

67) 서산대사. 「雲水壇」, ‘晝來一椀茶 夜來一場睡 靑山與白雲 共說無生死’. (무산, 2002 : 153)

산골 물 달과 함께 길어
차 달이니 푸른 연기 나네
날마다 무슨 일 의논하는가?
염불과 참선일세. 68)

위 시에서 서산대사가 사는 원적암(圓寂庵) 앞에 산사를 짓고 스님들과 달빛 담긴 차를 마시며 화합과 풍류가 흐르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염불과 참선일세’ 하는 대목은 차 달이는 일이 곧 선의 경지를 말하고 차와 염불과 참선이 하나인 것은 다선일체(茶禪一體, 茶禪不二)의 진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도운선자(道雲禪子)」에서 “승려가 일생동안 하는 일은 차 달여 조주에게 바치는 것(衲子一生業 烹煎獻趙州)”(무산, 2000 : 153-154) 이라고 하여 정성스런 마음으로 차 달이는 일을 부처님 모시는 일과 같이 생각할 만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정상구, 1995 : 31) 차를 바치고 조주처럼 차를 마시고 선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초의선사의 다선일미사상(茶禪一味思想)은 차와 선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는 차의 성품이 사(邪)함이 없어서 어떠한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며,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잘 끓은 물과 좋은 차를 적절히 조화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도라고 하였다.

채와 신
비록 온전해도 중정을 지나칠까 두려우니
중정을 넘지 않으면 건전한 신령 아우른다.69)

68) 서산대사. 「頭流內隱寂庵」, ‘有僧五六輩 築室吾庵前 晨鐘即同起 暮鼓即同眠 共汲一澗月 煮茶分 青烟 日日論何事 念佛及參禪’. (석성우, 1981 : 187-188)

69) 초의. 『동다송』, ‘體身 雖全猶恐過中正 中正不過健靈併’.

「동다송」에서 선사는 차의 정신을 「중정」이라 하였는데, 차를 다리는 법(泡法)에서 “포법은 중정을 얻어야 한다. 체(體)와 신(神)이 서로 고르고 건(健)과 영(靈)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일컬어 ‘다도’를 다함이라 즉, 다도에 이르렀다 함이다”라고 하여 다도 정신은 ‘중화(中和)’라고 말한다.

사학자 이능화(李能和, 1869-1945)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조주의 선을 언급하여 차와 선이 같다고 하였다.

지초는 풀 중의 신선이요, 난은 은일이요, 차는 현성 즉 선이라. 이는 깊고 정묘한 도를 지니고 있고, 청화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나라에 조주의 중심선사가 보통 사람들을 접대할 때마다 깃다거(喫茶去)라 말하였다. 이로부터 조주의 차가 성하여 세상에 일컬어졌다. 차는 하나의 도이므로 선(禪)에 속하게 되었다.⁷⁰⁾

즉 차는 선(禪)이고 도이며 다도는 선수행과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차와 불교는 선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되었고 다도의 사상에 불교의 선사상이 크게 자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불교가 다문화에 영향이 미쳤다. 일본의 다도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놀이에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다도가 완성된 것은 16세기 불교의 선종(禪宗)의 영향이었다. 센리큐(千利休, 1522-1591)가 정한 사규(四規), 즉 화경청적(和敬清寂)은 선종의 불교사상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규의 ‘규’는 불교의 ‘청규(淸規)’를 본뜬 것이고 화경청적은 바람직한 다회 분위기이자 다도의 목표로서 불경의 ‘화경’과 ‘청적’을 옮겨 쓴 말이다(박전열, 1994 : 3-4). 다실 방안 벽에 거는 장식품로 마치 화두처럼 묵적(墨蹟)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도 선종에서 유래된 것이다(박전열, 1992 : 164).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70)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芝草之神仙者也 蘭草之隱逸者也 茶草之賢聖者也 以有玄微之道 淸和之德故 支那唐時 趙州從諗禪師 尋常接人輒云喫茶去 自爾趙州茶 盛稱於世 茶之一道 遂屬於禪也’.

는 사원의 승려들은 차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고 자연과 함께 오감을 통한 맥락이 가능한 곳이었다(홍광표, 2005). 일본의 다도와는 다르게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으며, 자연 속에서 한 잔의 차로 다선일미의 경지를 느꼈으나 거기에는 정해진 ‘규’가 없었다.

초의선사는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을 저술하여 선과 차의 합일을 꾀하였다. 초의선사는 대선사이자 다도의 정립자로 불교학 이외에도 유학, 도교 등 여러 교학에 통달하였고, 범서(梵書)에도 능통하였다. 정약용(丁若鏞), 홍현주(洪顯周), 김정희(金正喜) 등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정약용에게는 유서(儒書)를 받고 시부(詩賦)를 익히기도 했다. 그는 선문(禪門)에서는 이러한 다례풍을 이어받아 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 다례가 부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의선사가 칠불암에서 『만보전서(萬寶全書)』의 「채다론(採茶論)」을 등초하였는데, 원본은 『다록(茶錄)』⁷¹⁾이다. 발문에 “총림의 조주의 풍류가 있으나 다들 차일의 방도를 알지 못했기에 베껴서 보는 것이다.”⁷²⁾라고 한 것은 조선시대 조주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승가의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 마시는 법도를 모르고, ‘차나 마시게’하는 선풍(禪風)에 차의 이해를 돕고 바른 차생활을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였다고 여긴 듯하다.

초의선사는 추사의 동생 김명희(金命禧, 1788-?)가 청나라에 다녀와서 차를 선물하자 그에 「산천도인(山泉道人)이 차를 사례함을 받들어 화답하여 짓다.(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라는 시를 지었다.

옛부터 성현들은 모두 차를 즐겼나니

71) 다록은 1595년 명나라 장원(張源)이 지은 다서로 다경이 떡차의 제다, 음다방법을 정리한 것이 라면 다록은 잎차(葉茶)의 차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리한 책이다. 1615년 무렵 만보전서에 채다론을 실었고, 1828-1830년에 『다신전(茶神傳)』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72) 초의. 『다신전』 「발문」, ‘叢林或有趙州風 而盡不知茶道 故抄示可畏’.

차는 균자처럼 성품에 사악함이 없기 때문이라네.

.....

알가⁷³⁾의 참된 근본은 묘한 근원을 다하고
묘한 근원에 집착함이 없으면 바라밀이라네.⁷⁴⁾

이 시에서는 차가 균자처럼 성미에 사악함이 없다고 한 것은 차의 본성을 잘 나타낸 말로 다도의 원리를 설명할 때 “다도는 차의 천성에 따라 덕을 쌓는 수련 행위이다”라고 인용이 되기도 한다(김명배, 1984 : 358). 여기에서 보이는 초의선사의 다도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무사(思無邪)라 할 수 있다.

차를 마시는 법도란 손님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많으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아취가 모자란다. 혼자서 마시는 것을 신(神)이라 하며, 두 손님을 승(勝)이라 하며, 3-4명이 차를 마시면 취(趣), 5-6명이면 범(泛)이라 하고, 7-8명을 시(施)라고 한다.⁷⁵⁾

위의 글은 『동다송』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손님을 모시는 법도와 규모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것은 사대부가와 반가에서의 접빈다례에서 다례를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의 내용상으로 보아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모임자리에서의 절도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범해는 「차노래(茶歌)」에서 “선가(禪家)의 유풍은 조주의 화두로다(禪家遺風趙老話)”(무산, 2000 : 262-265)라고 하여 19세기 불가에서 차 마시고 조주의 화두를 드는 선속(禪俗)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73) 闍伽는 梵語로 차를 말한다.

74) 초의.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古來聖賢君子愛 茶如君子思無邪 …闍伽真體窮妙源 妙源無着波羅密’. (석성우, 1981 : 196)

75) 초의. 『동다송』, ‘飲茶之法 以客少爲貴 客衆則喧 喧則雅趣乏矣 獨啜曰神 二客曰勝 三四曰趣 五六曰泛 七八曰施也’. 『萬寶全書』의 飲茶篇에 있는 내용을 동다송에 인용한 것임.

3) 투다(鬪茶)와 품천(品泉)

명전은 '투다(鬪茶)'라고도 하는데 송나라에서 유행한 것이 고려로 유입된 것으로 차를 누가 맛있게 낼 수 있는가를 겨루는 풍속이었다. 투다를 통하여 다문화는 더욱 발전하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한 연구와 차를 마시기 위한 도자기와 좋은 차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의 명전의 시작은 화응(和凝)이 양 정명 2년(梁, 貞明 2년, 916년)에 결성한 차동호인 단체명인 '탕사(湯社)'로 부터이다. 탕사란 "관리나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여가생활의 하나로 다문화를 교류, 보급하거나 차의 품질을 비교 시험"(梁子, 1997 : 157)하는 행사였다. 이후 송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투다의 모태가 되었다. 송나라의 투다는 고려의 사원에서 명전회로 발전하였다.

14세기 전반쯤 영남의 한 사원에서 '명전회'가 열렸다(김상현·김봉호, 1984 : 41). 다음의 이연종(李衍宗, 1224-1301)이 읊은 「차를 주신 박치암에게 사례하며(謝朴恥庵惠茶)」⁷⁶⁾의 시를 통하여 고려 사원의 명전 풍경을 읽을 수 있다. 차를 채다하는 모습, 승려들이 차를 만드는 모습, 하사받은 차에 대한 고마움, 차를 끓이기 위한 물소리의 표현, 차를 마시고 난 후 신선이 된 기분으로 다시 고마움을 표현하는 구절, 또한 중국의 명차를 말하는 '설유'와 명전에 중요한 물을 '용천봉정'이라고 한 것은 명전회의 풍습뿐 아니라 그 당시의 다문화가 송나라에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년 시절에 영남 절간에 손님되어
차 싸움(차 잘 끓이기 겨룸) 한가한 유희 여러 번 했다
용암 바위 봉산 기슭에서
죽림 속에 중들 따라 매부리[鷹觜, 차를 말함]를 따다가

76) 이연종은 공민왕 때 밀직사(密直使)와 감찰대부(監察大夫)를 겸직했고, 벼슬에서 물러나 만년의 함양 부원군인 치암 박충좌(朴忠佐, 1287-1349)로부터 차를 선사받고 어린 시절 사원에서 차 겨루기 한 추억을 시로 지었다.

불 앞에서 말린 것 가장 좋다 하는데
더군다나 용천봉정 물까지 있음에라
중들의 차 솜씨 바르기도 하여라
차잔 속에 설유를 쉬지 않고 집어넣었다

...

죽창은 정오 햇빛에 향연이 뜨는데
낮잠 자다 일어날 제 차 한 잔 준비 되었네.
몇 번이고 머리 돌려 영남 작설 생각이 나
산중 친구는 소식이 없거니
하물며 당시의 경상이야
즐거 이 사람 기억하여 내사품 나눠주려고
치암상국은 홀로 잊지 않고
초당으로 하인 보내 주었네.

...

영남에서 놀던 그때는 아직 동몽(童蒙)이어서
차 마시는 깊은 취미 몰랐었더니
이제 공의 선사를 받음으로써
옥천자와 같이 통령했소다.
때때로 두 겨드랑이 바람을 타고
봉래산 꼭대기로 날아올라가
서왕모의 자하상(자하주 술잔) 한 번 기울여서
종전 연화의 누를 말끔히 씻고
다시 구전진금단(신선이 되는 약) 가지고 와서
공의 진중한 마음 보답하고자 77)

이연중은 차를 마시고 난 기분을 “옥천자와 같이 통령했소다. 때때로 두
겨드랑이 바람을 타고 봉래산 꼭대기로 날아올라가(通靈也似玉川子 亦欲時
乘兩腋風 飛向蓬萊山上墜)” 라고 한 것은 노동의 「다가」에 보이는 “봉래
산이 어디인가, 나 옥천자는 맑은 바람 타고 돌아가고자 하니(蓬萊山,在何

77) 이연중. 「謝朴恥庵惠茶」, ‘少年爲客嶺南寺 茗戰屢從方外戲 龍巖巖畔鳳山麓 竹裏隨僧摘鷹觜 火前
試焙云最佳 況有龍泉鳳井水 沙彌自快三昧手 雪乳翻甌點不已…竹窓日午篆煙斜 一甌要及睡新起
幾回回首憶南烹 山中故人無信使 何況當時卿相門 肯記疏頑分內賜 恥庵相國獨不忘 寄與頭綱草堂
裏…南遊昔時方童蒙 不識茗飲有深致 今日因公輒賜龍 通靈也似玉川子 亦欲時乘兩腋風 飛向蓬萊山
上墜 一傾王母紫霞觴 洗盡從前煙火累 還將九轉眞金丹 來謝我公珍重意’. 『東文選』卷7.

處 玉川子 乘此清風欲歸去)”와 거의 흡사한 표현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현화사(玄化寺)로 행하는 어가의 행렬이 61회 나온다. 사원에서 재를 지내거나 연등을 하거나, 시주를 하기 위해 출어하였다. 의종(毅宗)이 현화사에 거동하였을 때 동·서 양원(兩院)의 승려들은 다정(茶亭), 즉 다관(茶館)을 마련하고 서로 어가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경쟁하였다고 한다.⁷⁸⁾ 당시 사원에서 다의례가 소중하게 여겨진 것은 왕실에서는 재를 올리거나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의례를 청하고 사례로 많은 재물들을 시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차를 우리기에 적합한 물을 가리는 것을 ‘품천(品泉)’이라 한다. 또한 물의 승부는 여덟 가지의 공덕이 있는 물이 이긴다고 하였다. 여덟 가지 물의 공덕이란 가볍고(輕), 맑고(淸), 차고(冷), 부드럽고(軟), 맛있고(美), 냄새가 없고(不臭), 마실 때 알맞고(調適), 마신 뒤에 탈이 없는 것(無患)을 말한다. 이규보의 시에 승려들이 사원에서 품천하는 것을 즐겼으며, 그가 개경의 안화사(安和寺)⁷⁹⁾를 방문했을 때 어떤 스님이 차를 다리며 우려진 차가 좋은 빛깔을 갖추었다고 자랑하였다.

안화사의 당선사를 찾으니 스님이 부 한 편을 청하다.(防安和寺幢禪師師請賦一篇)

중이 손수 차를 달여
나에게 향기와 빛깔 갖추었다 자랑하네
나는 말하노니 늙고 목마른 놈이
어느 겨를에 차 품질 가리랴
일곱 사발 또 일곱 사발 마시니

78) 『고려사』 세가 의종 13년 3월조.

79) 안화사는 송악산 자하동(紫霞洞)에 있는데, 연의정(漣漪亭)과 자하문이 있다. 《파란집(破閑集)》에, “안화사는 예종(睿宗, 1106-1122)이 창건한 것인데, 송나라 황제(徽宗(徽宗))가 이 절을 창건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사신을 보내서 법전에 쓸 재물과 화상을 만들어 보내고 어필로 친히 편액을 써서 채경(蔡京 휘종의 대실)을 명하여 문에 걸게 하였는데, 그 단청과 구조의 아름다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不宇條)

바위 앞의 물을 말리고 싶네.⁸⁰⁾
 안화사는 차를 우리기에 적합한 달고 맑은 샘물이 있어, ‘안화천(安和泉)’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갖가지 꽃과 괴석 등으로 꾸민 경치가 좋은 곳이다. 다음은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이 정도전에게 안화사의 물과 차를 보내면서 차를 끓여 마시기를 권했다.

송악산 바위틈에 실샘 엮혔는데
 절로 자란 솔뿌리 영긴 곳에서 나오네
 사모에 마리를 들어 막아 낮잠 끝맺고
 즐겨 좇느니 돌술의 바람소리 듣기라네⁸¹⁾

차의 맛은 물이 좌우하므로 차를 우릴 때에 좋은 물을 가려야 함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떡차를 마시던 때로 다연(茶碾)으로 가루를 내었고, 고려시대의 연고차는 차맷돌(茶磨)로 가루를 내어 말차를 만들어 달여 마셨다.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에는 사원에서 말차를 만드는 다구인 다마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이 바퀴를 주간하지 않으니 개미걸음처럼 더디고
 달도끼 비로소 휘두르니 옥가루 날리네
 불가의 놀이에는 종래부터 진실됨이 절로 있으니
 갠 하늘에 우뢰소리 울리고 눈이 펄펄 내리네⁸²⁾

연고차를 아주 곱게 가루내기 위해 맷돌을 천천히 가는 모습을 개미걸음

80)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4 「防安和寺幢禪師請賦一篇」, ‘衲僧手煎茶 誇我香色備 我言老渴漢 茶品何暇議 七椀復七椀 要澗巖前水’.

81) 이숭인. 『도은집』, 「茶一封并安和寺泉一餅呈三峯」, ‘崧山巖罅細泉縈 知自松根結處生 紗帽籠頭淸晝永 好從石銚聽風聲’.

82) 이인로. 「僧院茶磨」, ‘風輪不管蟻行遲 月斧初揮玉屑飛 法藪從來真自在 晴天雷吼雪霏霏’.(김명배, 1988 : 103)

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차를 맷돌에 빨리 갈게 되면 마찰열이 생겨서 찻가루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였다(김명배, 1986 : 58). 사원에서 차를 만드는 것을 진실됨이 있는 놀이로 본 것은 차를 만드는 과정을 수양으로 여겼으며, 곱게 간 차를 마시는 계절이 겨울임을 알 수 있다.

4) 증객진다(贈客進茶)

승려들은 차를 좋아하여 직접 제다하여 손님이 오면 차로써 접대하며 마시기도 하였고, 벗이나 귀인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문인이나 은사(隱士) 중에 차를 받으면 감사의 뜻을 적은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승려 연기(緣起)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절을 지었다. 그 중에는 불전이 하나 있는데 네 벽에 흙을 바르지 아니한 청벽(靑壁)으로 그 위에 화엄경을 새겼는데, 세월이 오래되니 벽이 무너지고 문자는 희미해져 읽을 수가 없다. 석상(石像)이 있는데 어머니를 이고 서 있다. 세속에서 이르기를, 연기와 그 어머니가 화신(化身)한 곳이라 한다.⁸³⁾

연기조사는 신라 경덕왕 대 인물로 어머니를 위해 차를 올렸던 흔적이 지금까지 탑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당시 승려의 차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연기조사는 유학 중에 차생활을 하였고 불법을 가져오면서, 그가 마신 차를 그의 어머니께 공경스럽게 올리고 있는 탑은 연기조사의 효도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1200년(庚申年)에 부안현에 있는 원효방(元曉房)을 방문한 기록이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전한다.

……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蛇包)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

8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9 「남원도호부」

여 원효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바위틈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났는데, 그 물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⁸⁴⁾

위 기록은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는 사포가 올리는 차를 즐겨 마셨다는 원효방 이야기로 불가에서 수행을 위해 차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차를 우리기에 적합한 감수(甘水)가 보이고, 차를 우려내는 행위를 ‘시다(試茶)’와 ‘점다(點茶)’라고 하였다.

신라 정강왕(定康王) 2년(887)에 최치원(崔致遠, 857-894-?)이 찬한(奉敎撰)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찌다 호행(胡行)이 있어 차를 받으면 차를 환(丸)으로 만들지 않고
기왓장 위에 엮어 잣불로 뜸을 들여 가져오니
그 냄새를 모르겠고 한명(漢茗)을 바치는 자
가루를 만들지 않고 돌가마에 잎을 넣어 삶아 가져오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배만 적신다.
참된 것을 지키고
향간의 습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 이와 같다.⁸⁵⁾

진감선사(眞鑑禪師 慧昭, 775-850)는 당에 유학하여 선감대사(禪監大師)를 만나 27년간 수행하고 돌아와 지리산 화개동에 옥천사(玉泉寺)를 창건하였다. 진감선사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정강왕(定康王) 2년(887)은 최치원에게 명하여 쌍계사(雙溪寺)로 고치게 하고 시호(諡號)를 진감국사라 내리면서 비문을 세우게 하였다. 비문의 내용 중에 진감선사

84)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23 「南行月日記」, ‘以元曉來居故 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85) 최치원. 「眞鑑禪師大空塔碑銘」, ‘或有以胡行爲贈者 不爲丸而煨之 則而瓦載燻灰 吾不識何臭·心而已 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爨石釜 不爲屑而煮之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守眞忤俗 皆此類也’.

가 한명(漢茗, 중국차)을 마신 것에 대하여 최치원은 “참된 것을 지키고 세속적인 것을 어긴 예”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속에서는 당시에 가루로 된 차(抹茶)를 즐겨 마셨음을 알 수 있다(김상현·김봉호, 1984 : 27). 당대에 음다법은 차잎을 떡차로 만들어서 가루로 내고, 그 가루를 뜨거운 물에 끓여 마시는 시대였다. 그러나 진감은 일반인들과 같은 차생활을 하지 않고 다만 잎차(葉茶)처럼 마셨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의 차의 명칭⁸⁶⁾으로 통용되는 차(茶)와 명(茗)을 사용한 것이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에서 당으로 유학을 하는 승려나 문인들이 많았는데, 당나라 무종(840-846)은 불교를 탄압하여 외국인 승려들이 본국으로 들어왔다. 무염대사(無染大師)는⁸⁷⁾ 46세 되던 해(845년)에 당나라에서 20여년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 비문에는 헌안왕(憲安王, 857-861)이 왕위에 오르기 전, 성주사의 무염국사에게 경모의 뜻으로 달마다 향과 차[茗馥]를 폐백으로 삼았으며 사자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⁸⁸⁾ 신라 말기의 진성여왕(眞聖女王) 4년(890)에 최치원은 왕명을 받아 무염대사의 탐비문을 지었다.

송광사 스님이 이제현(李齊賢, 1287-1367)에게, 운봉(雲峯)의 노규선사(老珪禪師)가 이규보(李奎報, 1168-1235)에게, 엄광(嚴光) 대선사가 한수(韓修, 1333-1384)에게, 겸상인(謙上人)이 임춘(林椿, 1145-?)에게 각각 차를 선물하였던 것을 보면 사원에서 토산차(土產茶)가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인들과 승려들 간의 교유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현이 송광화상에게 차를 받고 화답한 시인 「송광화상이 햇차를 보내 준 은혜에 대하여 붓 가는 대로 적어 방장실에 붙임(松廣和尚奇惠新茗順筆亂道奇呈丈下)」에는 다음과 같은 회답시가 있다.

86) 육우는 『다경』에서 차의 이름은 ‘가(檟)’, ‘설(設)’, ‘명(茗)’, ‘천(荈)’이라고 하였다.

87) 신라 대량혜화상(大朗慧和尚)의 성은 김씨(金氏)이며 무열대왕(武烈大王)의 8대손이다.

88) 최치원. 「萬壽山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권태원, 2001 : 44)

마른 창자 술 끊으니 연기가 나려 하고
늙은 눈 책을 보니 안개가 가린 것 같네
뉘라서 이 두 병을 자취없이 보낼 건가
나는 좋은 약을 얻어온 데가 있네

...

좋은 차 보내오고 안부를 물을 때면
장편 글로 보답하여 깊은 흠모 표하였네
두 늙은이 풍류는 유불의 으뜸
백 년 동안 생사가 아침저녁 같구나

...

가을 감[柿] 먼저 따서 나에게 부쳐주고
봄별에 말린 작설 여러 번 보내왔네
대사는 옛 정분을 못잊어 그렇지만
나는 공도 없이 많이 받기 부끄럽네

...

맑은 향기는 덩기 전 봄에 따왔던가
고운 빛같은 숲 속의 이슬을 머금은 듯
돌술에 끓는 소리 술바람 부는 듯
자기 잔에 도는 무늬 망울을 토한다
붓 숨씨도 노동을 본받을 수 없는데
욕우를 따라 다경을 쓰겠는가 89)

노규선사가 이규보에게 차를 보내고 시를 청하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하였다.

...

시냇가 차 잎사귀 이른 봄에 싹트게 하여
황금 같은 노란 움 눈 속에 사라났네

...

89) 이제현. 『익제집』 익제문집 4권, 「松廣和尚奇惠新茗 順筆亂道奇呈丈下」, ‘枯腸止酒欲生煙 老眼看書如隔霧 誰教二病去無 我得一藥來有素蹤…寄來佳茗致芳訊 報以長篇表深慕 二老風流冠儒釋 百年存沒猶晨暮…霜林蚰卵寄曾先 春焙雀舌分亦屢 師雖念舊示不忘 我自無功愧多取 …香清曾摘火前 春色嫩尚含林不露 颺颺石磽松籟鳴 眩轉 瓷甌乳花吐 未堪走筆效盧仝 況擬著經追陸羽’.

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귀중품을 얻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려
 이글이글한 풍로(風爐)불에 직접 달여
 꽃무늬 자기에 따라 색깔을 자랑하누나
 입에 닿자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린 아이의 젖 냄새 비슷하구나 90)

사원의 승려들은 해마다 차를 만들어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차를 받은 문인들은 꼭 시로써 답을 하였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차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차가 술을 깨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차의 효능과 차가 생산되는 시기의 찻잎의 모양, 차를 우리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 차의 맛 등을 표현하였다. 차 맛을 찬사하는데 노동(盧仝)과 육우를 거론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인들과 승려들의 차생활을 하는데 당대의 다서를 이미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한수는 엄광 대선사로부터 차를 받고, 임춘은 스님으로부터 자순차(紫筍茶)를 선사받고 「차를 주신 겸상인에게 부치다(寄茶餉謙上人)」라는 시로서 답을 하였다.

누가 해변 모두를 거둬서 차를 따던가
 오직 엄광의 품격이 가장 좋다네
 나는 묘련 때문에 이 맛을 알았는데
 번거롭게 스님이 멀리 보내어 내 마음을 위로하네.91)

근래 몽산에서 얻은 한 옹금의 봄
 흰 진흙에 붉은 도장 찍혔는데 빛깔과 향기가 새롭구나
 증심당 늙은 이 명품을 아시니

90)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3 「고을시」,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 ‘…故教溪茗先春萌 抽出金芽殘雪裏…師從何處得此品 入手先驚香撲鼻 塶爐活火試自煎 手點花瓷誇色味 黏黏入口脆且柔 有如乳臭兒與稚’.

91) 한수. 『유향선생시집』 「嚴光大禪師寄惠芽茶」, ‘採茶誰復海邊皆 惟有嚴光品最佳 我自妙蓮知此味 煩師遠寄慰予懷’.

더욱 기이한 자순의 진품을 보내주었구려.⁹²⁾

한수는 스님이 보낸 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묘련사에서 차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당시의 문인과의 교유가 사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임춘이 선물을 받은 차는 자순차로 붉은 도장이 찍힌 것은 목간(木簡)을 사용하던 시대에 편지를 봉하는 방법으로 편지의 사연에 적힌 나무 조각과 같은 또 하나의 나무 조각을 포개어 세 가닥 끈으로 맨 후 나무 조각에 진흙을 바르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김명배, 1988 : 195). 중국의 천자가 마시는 차처럼 맛이 좋은 차를 받아 들고서 몽산의 봄이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시에 담았다.

요약해보면 신라의 사원의례는 토속신앙인 미륵세존에게 충담사의 헌다와 문수보살에게 차를 올린 보천과 효명태자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불교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백장청규』의 법규에 따라 헌다의식을 행하여졌다. 신라 때부터 실시한 연등회와 팔관회는 국가의례로 행해졌으며, 선왕의 영전에 차를 올리거나 각 사원의 신불, 조사의 영전에 헌다한 것은 청규에 따라 행하여졌고 고려 사원의 독특한 다게가 보인다. 그러나 사원의례에 행해진 구체적인 의식절차는 보이지 않는다. 각 사원에서 전해진 다게와 승려들의 문집과 시(詩) 등으로 그 의식을 짐작 할 뿐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사원은 정책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사원의식은 사원내의 대응전과 전각이나 부도, 사리탑에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사원의례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의례를 행할 때 다게의 염송이 빠지지 않았다.

승려들의 차생활은 안분지족과 사무사, 투다와 품천, 증객진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산사에서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차생활을 통하여 도로 승화하려 하였으며, 일상의 차생활은 더 좋은 차맛을 위한 차 겨루기

92) 임춘. 『서하선생문집』 제 2 고을시 63 「寄茶餉謙上人」, ‘近得蒙山一掬春 白泥赤印色香新 澄心堂老名品 寄與尤奇紫筍珍’.

와 물을 감별하는 품천을 통하여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 꽃피웠고, 승려들은 차를 만들어 선물을 하면서 불가의 선은 일반인들에게 서의 문화를 이끌기도 하였다.

백제의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위한 헌다, 사포가 공양하는 차를 마신 원효, 진감국사의 세속에 젖지 않은 차생활, 최치원의 부모님께 차 선물 등은 신라의 승려와 귀족들의 차생활은 일상처럼 보인다. 차로 전법을 받기도 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차를 선물 받거나, 직접 차를 만들어 문인과 승려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역불책으로 인하여 사원에서의 차생활은 그 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산대사의 차생활은 차가 곧 선이라는 다선일체사상이며, 범해는 소박한 차생활을 통하여 선을 실천하여 하였다. 초의는 『다신전』과 『동다송』은 선가의 조주풍으로 인하여 차를 알지 못하는 선승과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차 교과서의 역할을 하였고 쇠퇴해지는 우리나라의 차맥(茶脈)의 큰 흐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IV. 궁정 다의례

왕실에서 차가 의례에 처음 사용된 것은 5세기 중국의 남제(南齊) 때 무황제의 제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신라 문무왕 때 수로왕의 제사에서 비롯된다⁹³⁾. 이후로 궁정의 의례 중에는 제사에 많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여 호국불교로 불교의례가 국가적으로 행해졌으며, 왕이 친히 공덕재(功德齋)의 준비를 위해 다마를 가는 것으로 보아 궁정에서 다의례에 대한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세시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 사신의 접빈에 다의례가 있었으며, 공이 있는 신하나 외국의 사신에게 하사하는 용도로 차가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차와 관련된 의례는 『고려사』 <예부 12권> 중에 98종의 의식이 나오는데 그 중 18종에 다례가 나온다.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에서 차를 공급하고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했다. 본래 다방은 진다(進茶)가 임무였으나 차와 약이 동일시되고 마침내 궁중의 탕약조화(湯藥調和)까지도 다스리게 되었다(이성우, 1978 : 421-422 ;461). 왕이 행차가 있을 때 다례를 봉행하는 ‘행로(行爐)’와 ‘다담(茶擔)’을 지고 뒤따르는 군사가 있었다. 다방과 행로 다담군사는 궁정의식이나 정전(正殿) 밖에서 차를 끓여 올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도구 일체를 메고 나르는 일을 수행하였다⁹⁴⁾⁹⁵⁾. 고려 때의 국가적 행사에는 진다의식이 행해졌는

93) 『삼국유사』 「가락국기 紀異第二」

94) 『고려사』 지 18 흥례 <중형주대의>. ‘다방 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로부터 들어와 다호(茶戶)를 올리고 내시(內侍) 7품원(員)이 뚜경을 벗긴다. 집례(執禮)가 전상(殿上)의 전영(前楹) 바깥으로 올라 면배(面拜)하고 차(茶)를 권(勸)하고 놓은 뒤에 전(殿)에서 내려온다.’

95) 『고려사』 지 19 가례<태후책봉의>, ‘연평련(延平輦) 및 자수대개(紫繡大蓋)와 홍소개(紅小蓋) 교상(絞床) 수관자(水灌子) 행로(行爐) 다담(茶擔)은 중문(中門)으로 전정(殿庭)에 들어가 열립(列立)하고 진물(進物)이 전정(殿庭)을 지나간 뒤에 돌아 나온다.’

데, 이를 다방의 관원들이 맡았었다. 이 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어 이조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 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고려의 진다의식은 조선 시대에는 ‘다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거해서 궁중 안에서 행해진 모든 다례의식을 ‘궁중다례’라고 한다. 새로운 예전과 함께 고려시대에 행해진 다례의식은 조선의 궁정에서도 계속 행해졌으며, 의례와 일상적인 차생활을 위해 차를 공급하는 제도로 차가 공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길례(吉禮)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를 비롯하여 56종의 의례가 행해졌고, 가례에는 망궐례(望闕禮), 조하의(朝賀儀), 왕비책봉, 영조서의(迎詔書儀), 경연(經筵) 등의 50여종이, 빈례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구(琉球) 등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 6종이, 군례에는 대열(大閱), 강무(講武) 등의 군사의식 7종이, 흉례에는 중국과 국내의 상사(喪事)에 대한 의례가 91종이 행해졌다.

본 장에서는 신라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궁정에서 행해진 길례, 가례, 빈례, 흉례에 나타난 다의례의 변천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왕실내의 차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길례(吉禮)

‘길례’란 오례의 첫 번째로 흉례인 상례(喪禮)와 장례(葬禮)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제사의식을 가리킨다. 길례는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의 신위로 분류하고 대사(大祀)와 중사(中祀)와 소사(小祀)로 등차를 두어 천신에는 사(祀), 지기에게 제(祭), 인귀에는 향(享), 문선왕(文宣王)에는 석전(釋奠)을 행한다⁹⁶⁾. 『고려사』의 길례는 오례의 내용 중에 외형

96) 대사(大祀)는 원구(園丘)·방택(方澤)·사직(社稷)·태묘(太廟)·별묘(別廟)·경영전(景靈殿)·제릉(諸陵)이 있고, 중사(中祀)는 직전(籍田)·선잠(先蠶)·문선왕묘(文宣王廟)가 있고, 소사(小祀)는 풍사(風師)·우사(雨師)·운사(雲師)·영성(靈星)·제주현문선왕묘(諸州縣文宣王廟) 등이 있다.

적인 분량이 많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에 다의례가 행해진 것은 대사(大祀)인 경령전(景靈殿)⁹⁷⁾의 제향의식과 중사(中祀)인 문선왕묘 의식 후 사다(賜茶)이다.

1) 수로왕의 제사

차가 제의례에 사용된 것은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올린 제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가락국 김수로왕의 15대 후손인 신라의 문무왕(文武王, 661-681)이 즉위한 후 수로왕의 묘당(廟堂) 종묘에 제사를 이어 나가라는 어명을 내렸다.

신라 제30대 법민왕(法敏王) 원년 신유 3월일에 왕은 조서를 내렸다. “가야국 시조의 9대손 구형황이 이 나라에 항복할 때 데리고 온 아들이 세종이었다. 세종의 아들인 술우공(率友公)이 낳은 아들이 서운잡간(庶云匝干)인데, 그가 낳은 딸인 문명황후(文明皇后)께서 나를 낳으셨으니, 시조 수로왕은 어린 나에게 있어서 15대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를 장사지낸 묘는 지금도 남아있으니 종묘에 합해서 계속하여 제사(祭祀)를 지내게 하리라.” 이에 그 옛터에 사자를 보내어 묘에 가까운 상전 30경을 공영의 자로 하여 왕위전이라 부르고 본토에 소속시키니, 수로왕의 17대손 갱세급간(廣世級干)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하여 해마다 명절이면 술과 단술을 마련하고 떡과 밥, 차와 과일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고, 그 제삿날은 거등왕이 정한 연중 5일을 변동하지 않으니, 이에 비로소 그 정성어린 제사는 우리 가락국에 맡겨졌다. ⁹⁸⁾

제사에 사용된 흘기(笏記)는 전하지 않지만 『가락국기』에 따르면 단오날의 알묘제(謁廟祭)에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헌작이

97) 경령전(景靈殿)은 선대 임금의 초상을 놓아둔 곳이다.

98) 『삼국유사』 「가락국기 紀異第二」, 『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衡王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 率友公之子 庶云匝干之女 文明皇后 寔生我者 茲故元君於幼冲人 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今尙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址(納)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 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 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芬苾孝祀 於是乎在於我’.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신라의 궁정에서 술과 차로써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가락국 수로왕에 대한 헌다의식⁹⁹⁾은 신라에 계승 발전되어 선왕조에 헌다하는 의식의 효시가 되었다. 그 의식이나 절차는 알 수 없지만 왕실의 격식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궁정의 제례는 중국에도 있었다. 중국에서 왕실 제사의 처음은 남제(南齊, 479-502)의 무황제(482-493)가 54세에 남긴 유언에 따라 행해졌다.

제사의 의식은 본래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다. 동쪽에 있는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지내는 것이 서쪽집의 간소한 제사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내 영혼에게도 삼가 짐승을 죽여 제사지내는 것은 하지 말고, 떡, 차, 밥, 술, 포만을 진설하면 된다. 천하의 귀하고 천한 자들이 모두 이런 제도는 동일하게 하라. 아직 무덤 앞에 이르지 않았으면 초하루와 보름에 나물 음식만을 차려라. ¹⁰⁰⁾

무제는 유언을 통하여 제사의 의미를 감소한 미덕으로 마음이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정성을 다하되 미덕을 보일 수 있는 제수(祭需)로 떡, 차, 밥, 술, 포 등을 올리라고 유언한다. 유언에서 제수의 품목을 거론한 것을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와 그 이전의 제사에는 왕실의 규모대로 성대하게 치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형식에 치우쳐 제수의 품목이 많고 번거로운 왕실의 제사문화를 자신의 제사에서부터 고칠 수 있도록 천하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이 제도를 행하라 명령하였다. 무제의 유언으로 이후의 제사를 진설하는 데 있어 황제, 관료

99) 헌다의식(獻茶儀式)은 사찰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불도(佛道)에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승려와 신도들의 예가 헌공다례, 불공다례이며, 이 공양물의 내용은 그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형성되어 있는데, 현대 우리나라의 불교 사찰의 경우 차, 향, 등, 꽃, 쌀, 과일의 여섯 가지를 일반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중 차를 공양물로 올리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 헌다의식으로서 이를 헌공다례(獻供茶禮)라고도 한다.

100) 소자현, 『남제서』, '祭敬之典 本在因心 東鄰殺牛 不如西家禴祭 我靈上慎勿以牲爲祭 唯設餅 茶 飲干飯 酒脯而已 天下貴賤 咸同此制 未山陵前 朔望設菜食'. (陳組樂朱自振 編, 1995 : 283)

와 서민들이 올리는 모든 제사차림의 기준이 되었으며, 차가 예품(禮品)으로 쓰이게 되었다.

2) 공덕재(功德齋)

공덕재는 현재와 미래에 공덕을 쌓기 위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오출세, 1996 : 21), 고려의 광종 때부터 있었다. 공덕재에 공양할 차를 왕이 손수 다마(茶磨)에 가는 풍속이 생겨났다.

가만히 듣건대, 성상께서 공덕재를 올리기 위하여 친히 차(茶)를 갈며, 혹은 손수 보리를 빻는다 하옵는데, 어리석은 신은 성체(聖體)가 근로하심을 깊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¹⁰¹⁾

성종(成宗, 982-997)이 맷돌에 간 차와 보리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다. 성종은 불전에 나아가 공덕재를 올리기 위해 왕이 직접 맷돌을 사용하는 것은 공덕으로 쌓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불가나 궁중에서 재를 위한 폐단이 심해지자 신하인 최승로(崔承老, 927-989)¹⁰²⁾는 이를 개탄하고 개혁하고자 상소문을 올리기도 한다.

경령전에서는 정월 초하루·단오·추석·중구일에 왕이 직접 지내는 제사의식이 있는데, 의례의 과정 중에는 진다(進茶)가 보이지 않으나 다방(茶房)이 동원되는 것으로 다의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¹⁰³⁾

101) 『고려사절요』 권 2 <성종문의대왕> (임오원년 982), '竊聞聖上 爲設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 臣愚 深惜聖體之勤勞也'.

102) 최승로는 최승로의 직계후손으로 고려 태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 태조를 이은 혜종(惠宗, 944-946)과 정종(正宗, 946-950), 광종(光宗, 950-975), 경종(景宗, 976-981), 6대왕인 성종(成宗, 982-997)까지 다섯 임금의 모신 국가 원로 중신(重臣)이다. 그의 기록 시무 28조는 성종임금에게 상제(上提)한 내용이다. 그 내용 중에 공덕재에 관한 기록도 있다.

103) 『고려사』 지 권 15 예 3 <경령전>, '正朝·端午·秋夕·重九 親奠儀 其日四更末 內侍·茶房及指諭 先入內殿庭 次承宣 入庭肅拜訖 內侍·茶房及指諭 次次拜謁 次重房 入庭肅拜訖 承宣·重房合班 中心爲頭 一行拜謁 次入直閣門 及侍臣入庭'.

3) 시학작헌문선왕의(視學酌獻文宣王儀)

문선왕묘의 제례의식¹⁰⁴⁾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 후학 문사들을 모신 묘당에 매년 봄, 가을로 상정일(上丁日)에 임금이 직접 거동하여 제사를 집전하였으며, 제단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제사에 참석한 관료들에게 차를 하사하였다.¹⁰⁵⁾

내시(內侍)가 서안(書案)과 아침(牙籤)을 올리고, 경서(經書)를 강서관(講書官)에게 준다. 강서관이 강(講)할 바의 글(書)을 읽고 뜻(義)을 풀이하면, 시강자가 차례로 논란(論難)한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꿰어앉아서 “예(禮)가 끝났다.”고 아뢴다. 왕세자와 군관(群官)이 다 일어나서 내려가 당하위(堂下位)로 나아간다. 이어 차(茶)를 내려 주는데, 왕세자 이하가 다 네 번 절하고 올라와서 자리(座)로 나아가고, 관관(館官)·학관·학생이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북면(北面)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양무(兩廡)로 나누어 나아가서 모두 자리에 앉는다. 차를 내려 주는 것이 끝나면, 왕세자 이하가 섬들을 내려와서 네 번 절하고, 통례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관관·학관·학생이 양무에서 섬들을 내려와서 뜰 가운데로 나아가 북면(北面)하여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하가 자리(座)에서 내려와 악차(幄次)로 돌아간다.¹⁰⁶⁾

조선시대에도 이 의식은 계속되었으며 제례를 지낸 후 강서관(講書官)

104) 중국에서는 이미 주대(周代)부터 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 등 여러 성인들에게 석전을 올렸으며,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숭상하면서 공자(孔子)를 제사하는 의식으로 굳어졌다. 후한의 명제(明帝)는 공자의 옛집을 찾아가 공자와 그의 72제자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했으며, 당(唐)나라 이후 공자를 선성(先聖), 안회(顔回)를 선사(先師)로 받들어 제사지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739년에는 공자에게 문선왕(文宣王)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그 뒤 명(明)나라 때 태학(太學)의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하여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석전이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구려·백제·신라 모두에 교육기관이나 유학을 교육한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석전을 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105) 『고려사』 지 예 4 <길례. 문선왕묘>, ‘閣門使傳宣就座賜茶舍人贊拜王太子宰樞以下群官及監學官學生皆再拜’.

106)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시학>, ‘內侍進書案牙籤 以經授講書官 講書官讀所講書釋義 侍講者以次論難 訖 判通禮跪啓禮畢 王世子及群官皆起 降就堂下位 乃賜茶 王世子以下皆四拜 升就座 館官學官學生就庭中北面四拜 分兩廡皆就坐 賜茶畢 王世子以下降階四拜 通禮門以次引出 館官學官學生自兩廡降階 就庭中北面四拜出 殿下降座還次’.

이 경서(經書)를 가지고 강(講) 할 바의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면 시강자가 다례로 논란한다. 이를 마치면 임금의 왕세자와 관관(館官)·학관(學官) 학생들에게 차를 내려주는 의식을 행하였다.

4) 기신제(忌晨祭)

고려의 국왕들은 선왕을 위하여 왕릉과 원찰(願刹)을 두어, 원찰에 피장자의 초상화를 모신 진전(眞殿)을 설치하고 선대왕의 기일이나 나라의 행사에 재를 올려 사후 세계의 안녕을 빌면 선왕의 음조(陰助)로 살아있는 후손 왕들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치세를 유지한다고 믿었다(허홍식, 2000 : 97-100). 기신제와 수륙제(水陸齋)¹⁰⁷⁾ 등을 거행한 사원은 공전(公田)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전(公田)이 지급된 사원의 중요한 일 중에서 국가의 복을 빌거나 국왕 및 왕비의 진영(眞影)을 모시고 기일마다 재를 올려 천복(薦福)하는 일이었다(김상보, 1996 : 46). 궁정에서는 재를 지내는 사원의 폐단에 따라 사원을 축소하고 재를 지내는 사원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조선초기에 회암사(檜巖寺)는 큰 재를 올리고, 진관사(津寬寺)는 수륙재를 올리는 절이 되었다.¹⁰⁸⁾ 『세종실록』에는 돌아가신 후덕(厚德)대비를 위한 일곱 번의 재(齋)가 사원에 거행되었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행 후덕 왕대비의 재를 올리는 물품은… 네 째 재로부터 여섯째 재에 이르기까지는 불전 첫째 줄에는 백미 열한 분과 좌우준화요, 둘째 줄에는 유밀과방기 열 둘이요, 세째 줄에는 개화거식방기 열 둘이요, 네 째 줄에는 각색실과방기 열 둘과 화초밀잠이요, 다섯째 줄에는 청홍사화통 열 넷이요, 여섯째 줄에는 보시사라중(布施紗羅中) 한 필, 단자(緞子) 한 필이요, 일곱째 줄에는 대화축 두 가락, 동건축 두 가락이요, 지장전(地藏前)에는 백미

107) 수륙제(水陸齋)란 사바(娑婆, 석존(釋尊)이 교화하는 경토(境土), 인간세계)세계의 혼과 귀신을 위해 올리는 제이다.

108) 『세종실록』 1년 11월 28일.

두 분, 반(飯) 한 분, 다(茶)·과(果)·병(餅) 각 한 반, 보시백저포 한 필, 소축 두 가락이요, 시왕전(十王前)에는 우근계(亏斤桂) 각 한 반, 실과·병·반·각 한 반, 보시정포 각 한 필, 소축 각 한 가락이요, 중을 이바지하는 데[供僧用]에 잡색 다과(雜色茶果) 세 그릇 상(三器床)이며, 일곱 번째의 재는, 불전 첫째 줄에는 백미 열 다섯 분과 좌우준화요, 둘째 줄에는 다식방기(茶食方機) 열 일곱이요, 셋째 줄에는 유밀과방기 열 일곱이요, 넷째 줄에는 각색실과방기 열 일곱과 화초밀잠이요, 다섯째 줄에는 청홍사화통 열 여섯이요, 여섯째 줄에는 보시단자(布施段子) 두 필과, 생초 두 필이요, 일곱째 줄에는 대화촉 두 가락, 동건촉 여덟 가락, 현촉(懸燭) 두 가락이고, 지장·시왕전 배설(排設)과 중을 이바지하는 물품은 일체로 사·오재의 예에 따라 한다.” 고 하여, 그대로 좃았다.¹⁰⁹⁾

4번째 재부터 주요 공양물은 차, 흰쌀, 유밀과, 거식(車食, 절편), 과일, 조화, 향 등이었으며, 재가 거듭될수록 공양물의 양이 늘어났다. 고려왕조에서부터 행해졌던 나라의 재는 횡수가 거듭될수록 공양물목이 많아 번잡하다고 느끼게 되었고,¹¹⁰⁾ 조선 초기에는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반상을 줄이고 공양물의 종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¹¹¹⁾

조선왕조가 개국되면서 성리학이 주된 사상이 종교로 되어 조선왕실의 의례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조상숭배에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재궁(齋宮)인 진전(眞殿)에서의 기신제와 종묘의 묘제에서 그 제를 통하여 불교의례와 유교의례로 양분되었으나 내면적인 고려불교의 예제는 조선전기에 걸쳐 계속되었다(김상보, 1996 : 49).

태종대 예조(禮曹)의 계(啓)에서 “주서(周書)에 중국은 고대부터 제사

109) 『세종실록』 2년 7월 19일, ‘禮曹啓: “大行厚德王大妃齋物品, …自四齋至六齋: 佛前第一行 白米十一盆 左右樽花. 第二行 油蜜果方機十二 第三行 開花車食方機十二 第四行 各色實果方機十二 花草蜜潛. 第五行 靑紅紗火桶十四 第六行 布施紗羅中一匹 段子一匹 第七行 大畫燭二丁 同巾燭二丁 地藏前 白米二盆 飯一盆 茶果、餅各一盤, 布施白苧一匹 小燭二丁 十王前 亏斤桂各一盤 實果、餅、飯各一盤 布施正布各一匹 小燭各一丁 供僧用雜色茶果, 實果三器床 七齋: 佛前第一行 白米十五盆 左右樽花 第二行 茶食方機十七 第三行 油蜜果方機十七 第四行 各色實果方機十七 花草蜜潛 第五行 靑紅紗火桶十六 第六行 布施段子二匹 生絹二匹 第七行 大畫燭二丁 同巾燭八丁 懸燭二丁 地藏 十王前排及供僧物品 一依四五齋之例.” 從之’.

110) 『세종실록』 2년 9월 22일.

111) 『세종실록』 4년 5월 17일.

(祭祀)에 술(酒)을 사용하지 않았고, 본조(本朝)에 들어와 기신제 때는 모두가 묘 앞에 음식을 차려 바치는 존체(尊體)가 있었는데,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과 왕후(王后 韓氏) 요존(纒尊)에만 술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탕(茶湯)을 사용하는 것은 예(禮)에 미흡하니 태조의 요존례 대로 기신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주례(酒禮)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여 왕은 이를 허용하였다. 112) 제사에서는 술이 빠지는 것을 미흡한 것으로 보았는데, 태종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왕(太祖) 선후(韓氏)의 요존례 이외는 모두 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기신제는 흥덕사에서 거행하였는데, 조선 초기의 사원에서는 선왕과 왕후의 요존을 다례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시제(時祭)

『세종실록』을 보면 예조(禮曹)에서 금주령(禁酒令)에 대한 신명(申明)의 일환으로 상총(上塚)에 시제지낼 때 모두 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사에도 술을 사용치 못하도록 청하였으나, 세종대에 제사에 술은 사용하였다. 113) 그러나 선왕 선후의 묘사(墓祀)인 시제 때는 차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해군일기』에는 광해군 때 유충립(柳忠立)에 의하여 제향시(祭亭時) 술을 쓰는 일과 차를 쓰는 일의 혼란을 시정하고자 상소한 내용이 있는데 114) 다음과 같다.

112) 『태종실록』, 16년 9월 19일, ‘命先王、先后忌(晨) [辰] 齋祭用酒醴 禮曹啓: 《周書》曰: 祀茲酒 自古祭祀無不用酒 本朝先王、先后忌(晨) [辰] 齋, 皆有澆奠, 獨於太祖康獻大王 神懿王后澆奠用酒 其餘澆奠皆用茶湯 殊未合禮 乞依太祖澆奠例 每忌(晨) [辰] 皆用酒醴 從之’.

113) 『세종실록』 3년 1월 4일, ‘禮曹請: ‘申明禁酒之令 雖時祭上塚 皆用茶 不得用酒 上命祭祀用酒者勿禁’.

114) 『광해군일기』 11년 9월 3일, ‘柳忠立啓曰: 臣以別殿親祭祭文考准事 來詣香室 歷見各殿祝文儀軌 則永崇殿則曰: 清酌庶羞 奉先殿則曰: 蘋藻庶品 所謂蘋藻者 乃用茶而不用酒云 明日一處奉安之後 一則用酒 一則用茶 非但有違禮文 太廟四室及光陵大祭祝文 皆以清酌書填 而獨此奉先殿祝文 以蘋藻書之 尤未曉其意 請令該曹 急速議處 傳曰: ‘允’.

신이 별전 친제(別殿親祭)의 제문이 알맞은가를 상고하기 위하여 향실(香室)로 가서 각 전의 축문의궤(祝文儀軌)들을 다 보았습니다. 영숭전(永崇殿)에 제사지낸 축문에는 ‘청작서수(淸酌庶羞)’라고 썼고, 봉선전에 제사지낸 축문에는 ‘빈조서품(蘋藻庶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빈조’란 곧 차만 쓰고 술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일 동일한 곳에 봉안한 뒤에 한 곳에는 술을 쓰고 다른 한 곳에는 차를 쓰는 것은 예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태묘의 4개 실(室)과 광릉(光陵)에 지내는 큰 제사의 축문에는 모두 ‘청작’이라고 써 넣었으면서 유독 봉선전 제사의 축문에만 ‘빈조’라고 쓰는 것은 그 의도를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이로 보아 조선왕조 중기인 광해군 때까지 친제제문(親祭祭文)에 분명히 ‘빈조서품’이라 하여 차를 사용한 제사인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주다례(晝茶禮)

주다례는 임금이나 왕비의 인산(因山)후 삼년상(三年喪) 안에 시기에 상관없이 혼전(魂殿)¹¹⁵⁾과 능소(陵所)¹¹⁶⁾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이재춘, 1998 : 38)으로 별다례와 그 뜻은 같다. 『세종실록』에는 처음으로 주다례가 거행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이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277회의 주다례가 거행되었다. 다음은 『세종실록』의 주다례 과정이다.

오정(午正)에 시각이 되면, 능사(陵司)가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다병(茶瓶)과 잔을 받들어 준소(尊所)의 지계문 밖에 두고 서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내시가 지계문 안에 들어가서 서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세 번 상향(上香)하고 조금 뒤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내수(內豎)가 빈 차상 1개를 들고 섬돌 위에 나아가면, 능사가 전해 받들고 지계문에 들어와서 내시에게 준다. 내시가 전해 받들

115) 혼전(魂殿)은 조선왕조의 왕이나 왕비의 국장 뒤에 종묘에 배위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116) 능소(陵所)는 왕이나 왕후의 무덤을 지칭한다.

어 영좌 앞에 둔다. 내시가 쟁반에 두 가지 색의 떡과 각색 과일과 청밀(淸蜜)·한채(漢菜) 각기 한 그릇과 저첩(筋楪)을 담아서 차상에 둔다. 능사(陵司)가 잔에 차를 따라서 내시에게 주면, 내시가 전해 받들어 쟁반에 두고, 모두 지계문 밖에 나와서 부복하기를 일식경(一食頃)과 같이 한다. 내시가 도로 들어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운다.¹¹⁷⁾

주다례는 낮에 지내는데, 세종대에 주다례를 거행하는 의식절차가 만들어졌는데, 그 특징은 떡, 과일, 꿀, 나물, 차로 간소하게 지내는 제사이 다.¹¹⁸⁾ 아침저녁 상식을 올리고도 서운하여 약식으로 올리는 주다례는 「오례의」에 없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자 인조(仁祖)는 선품(膳品)이 열 그릇도 안 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서운해 하였고¹¹⁹⁾, 숙종(肅宗, 1674-1720) 때는 주다례의 제기 숫자와 향과 제물을 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는데, 대행왕비가 폐단을 걱정하여 내린 것이었다.

임금이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상식(上食)·주다례의 기명(器皿) 숫자와 진향(進香)·제물(祭物)의 반(半)을 줄이라 명하였는데, 대개 대행 왕비(大行王妃)가 폐단을 걱정한 유지(遺志)를 따른 것이다. 빈전 도감(殯殿都監)에서 계품(啓稟)하기를, “3년 안에 본전(本殿)·본릉(本陵)에서도 또한 그 기명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²⁰⁾

조선왕실에서 새로 생겨난 제사의식인 주다례는 선품이 많지 않아 번잡하지 않은데도 신하들은 선례에 없기에 없애려 하였고, 왕들은 계속하기를

117) 『세종실록』 28년 7월19일 「주다의」, ‘午正時至 陵司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捧茶瓶及鍾 置于尊所 戶外西向俯伏跪 內侍入戶內西向俯伏興 詣靈座前俯伏跪三上香 小退跪 內豎舉空案一就階上 陵司傳捧入戶 以授內侍 內侍傳捧 置于靈座前 內侍以槃盛兩色餅各色實菓淸蜜漢菜各一器筋楪 置于案 陵司以鍾酌茶 以授內侍 內侍傳捧 置于槃 俱出戶外俯伏 如一食頃 內侍還入 俯伏跪徹饌’.

118) 주다례의 종류는 삭제주다례(朔祭晝茶禮), 망제주다례(望祭晝茶禮), 조존주다례(朝尊晝茶禮), 별존주다례(別尊晝茶禮), 고유주다례(告由晝茶禮), 정조제주다례(正朝祭晝茶禮), 한식제주다례(寒食祭晝茶禮), 납향제주다례(臘享祭晝茶禮), 동지제주다례(冬至祭晝茶禮) 등이 있다.

119) 『인조실록』 4년 5월 12일.

120) 『숙종실록』 8월 20일, ‘上命減殯殿朝夕奠、上食 晝茶禮器數及進香 祭物之半 蓋用大行王妃恤弊之遺意也 殯殿都監啓稟: “三年內本殿本陵 亦宜減其器數” 從之’.

원하였다. 숙종 때의 대행대비는 많지도 않은 선품을 줄이라고 한 것은 신하들에 대한 경계로 보여지며 이러한 이유에는 고려시대 사원에 모시던 선왕의 제사를 왕실 안의 태묘에 옮겨지면서 선왕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왕과 왕비가 주다례를 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별도로 지내는 다례를 ‘별다례(別茶禮)’라 하였고¹²¹⁾ 일본의 통신사를 맞이하여 배에서 오르내릴 때 하선다례와 상선다례 등의 ‘별존다례(別尊茶禮)’가 있었다.

2. 가례(嘉禮)

가례는 『고려사』 예지(禮志)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연회의 과정에서 음식과 술, 기타 예물을 서로 나눔으로서 왕의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끼리 친애하게 한다. 이은주는 고려왕실이 가례의식을 통하여 왕실의 위상을 유교이념으로 수식하고 권위를 서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이은주, 2001 : 38). 고려사 예지의 가례는 『주자가례』의 내용에 기초하면서 골격은 당(唐)의 가례와 비슷하다. 내용으로 비교를 하자면 「통전(通典)」에서 보여지는 개원례의 가례항목이 많고, 황제, 황태자 중심의 관례, 혼례, 책례 등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한 『신당서(新唐書)』와 『송사(宋史)』에 나타나는 가례를 융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이범직, 1991 : 133-136). 고려시대의 가례의식에는 혼례의식, 관례의식, 등극의식, 존호를 드리는 의식, 책봉의식 등 경사스러운 의식으로, 연등회, 팔관회도 이에 해당이 된다. 이 중에서 진다의식을 행한 것은 태후, 왕비, 왕태자, 왕자 왕비 등의 책봉 의식 때와 원자(元子)의 탄생과 공주의 하가(下嫁), 군신 연회와 연등회, 팔관회 영조서의

121) 별다례의 종류는 삭제별다례(朔祭別茶禮), 망제별다례(望祭別茶禮), 고유별다례(告由別茶禮), 별대제별다례(別大祭別茶禮), 칠석별다례(七夕別茶禮), 상제별다례(祥祭別茶禮) 등으로 조선왕조에서는 52회의 별다례 기록이 있다.

와 영칙서의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후 책봉 의식(冊太后儀)

태후를 책봉하는 의식 때에는 차와 음식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마시는 지 의식 절차는 생략되어 알 수가 없다. 다만 “왕이 대내에 들어가면 진상물품과 담상(擔床)이 앞에 가고 다음에는 향로와 다담(茶擔)이 가고 다음에는 교상(絞床)과 수권자(水灌子)가 가고”¹²²⁾라는 기록만 있어 ‘다담(茶擔)’이 준비되었다는 것만 알게 한다.

2) 왕비 책봉 의식(冊王妃儀),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 책왕자왕희의(冊王子王姬儀)

역대로 국왕은 왕비를 책봉할 때 의식을 거행하였다. 책봉의식의 순서는 평상시처럼 태묘, 별묘, 경영전에 고한다. 대관전 진설(大觀殿 陳設), 궁정진설(宮庭陳設), 궁정수책(宮庭受冊)을 한 후 회빈(會賓)을 하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책례(冊禮)가 끝나면 궁관(宮官)이 연반좌(筵伴座)를 청상(廳上)의 북쪽 벽의 가운데와 마주하여 남향하게 설(設)하고 책사(冊使)와 부책사(副冊使)의 자리는 남쪽 벽에 설하되 사(使)는 동편에 부사(副使)는 서편에 마련한다. 독책(讀冊)과 권화사(勸花使)의 자리는 책사(冊使)와 부책사(副冊使)의 뒤에 설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매좌(每座)에 각각 과안(果案)을 설하는데 연반(筵伴)은 굴장(屈狀, 초대장)을 드리고 책사와 부책사가 답장한다. 집례관이 연반을 인도하여 문 밖의 왼쪽으로 나가 남향하여 서고 또 책사와 부책사 이하 독책을 인도하여 문 밖의 오른쪽으로 가 북향하여 서서 서로 읊한 후 문으로 들어가 올라 청상의 욕위(褥位)에 입정(立定)한다. 집례관이 기거장(起居狀)을 교정(交呈)하고 재배를 찬(贊)하면 빈주(賓主)가 모두 재배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 또 재배하며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가 또 재배한 후 각각 자리로 가 입정한다. 집례관

122) 『고려사』 권 65 지 19 예 <가례, 책태후의>, ‘王入內 進物擔床前行 次行爐茶擔 次絞床·水灌子’.

이 압물 이하 행사 집사관의 기거장을 드린 후 압물 이하가 차례로 자리로 가 뵙고 난 뒤 각각 물러나 차(次)로 간다. 집례관이 “읍”이라 찬하여 빈·주가 서로 읍하고 자리로 가 차를 올린다. 술이 이르면 집례관이 빈·주를 인도하고 나가 옥위로 간다. 연반이 헌작(獻酌)하기를 청한다. 빈(賓)이 사양(辭讓)하고 연반이 헌작하기를 청하여 세 번에 이르면 빈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다고 칭(稱)한다. 123)

이와 같이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에 진다의식을 행했는데 먼저 차를 올리고 나중에 술을 올린 후 음식을 올린다. 이러한 의식 절차는 모든 책봉의식에 다 쓰였다. 다만 남궁(南宮, 王后殿)과 동궁(東宮, 太子宮) 등의 장소가 달랐고 왕태자 책봉시에는 부표(附表, 축하문), 왕에게 알현(朝謁), 백관조하(百官朝賀), 왕후가 백관의 축하를 받음(王后受百官賀), 왕회군신(王會君臣)의 순으로 진행되며 왕자·왕녀·왕태자의 책봉시에는 부표(附表)의식으로 끝난다. 124)125) 가례의식의 주례자는 대부분 왕과 왕태자였는데, 이것은 왕의 존엄성을 알리고 왕태자가 왕위계승을 위한 정치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 의식에는 조정의 주요 관료 전부가 참여하였다.

3) 원자탄생가의의(元子誕生嘉儀)

원자가 탄생하면 축하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절차는 먼저 경영전에 고하기, 사신맞이, 손님접대의 순서로 행한다. 왕이 대관전에 예를 갖추 때는 절일(節日)과 정지(正至),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와 같이 손님을

123) 『고려사』 권 66 지 20 <예 가례 책왕비의>, ‘會賓. 冊禮畢, 宮官, 設筵伴座於廳上北壁當中, 南向, 設冊使·副座於南壁, 使在東, 副使在西, 設讀冊勸花使座於冊使·副之後, 俱北向, 每座, 各設果案, 設訖, 筵伴, 呈屈狀, 冊使·副復狀, 執禮官, 引筵伴, 出門外之左, 南向立, 又引冊使·副以下讀冊, 詣門外之右, 北向立, 相揖入門, 升詣廳上褥位, 立定, 執禮官, 交呈起居狀訖, 贊再拜, 賓主, 俱再拜, 進步又再拜, 再進步又再拜訖, 各就位立定, 執禮官, 呈押物以下, 行事執事官, 起居狀訖, 押物以下, 以次就位參訖, 各退就次, 執禮官, 贊揖, 賓主, 相揖就座, 進茶訖, 酒至, 執禮官, 引賓主, 出就褥位, 筵伴請獻, 賓辭, 筵伴請獻, 至于三, 賓, 稱不敢辭’.

124) 『고려사』 권 66 지 20 <예 가례 책왕태자의>

125) 『고려사』 권 67 지 21 <예 가례 .책왕자왕회의>

접대할 때 차와 술로써 대접을 한다. 126)

4) 공주하가의(公主下家儀)

공주를 시집보내는 의식의 순서는 친영(親迎)¹²⁷⁾, 동뢰(同牢), 배구고(拜舅姑), 강사(降使)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진다의식은 강사(降使, 사신맞이)¹²⁸⁾ 때 행해진다.

다시 빈주가 서로 읊하고 자리에 나아가기를 마치면 차와 술을 베푼다.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이 이르는데 빈주가 함께 일어나 헌수(獻酬)하기를 마치고 음식을 베푼다.¹²⁹⁾

친영례에서 신랑의 부친이 아들에게 술을 권하고 술과 안주로 예를 갖추 후 동뢰(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것)가 끝나면 예를 갖추어 시부모를 뵙고 사신 파견 순으로 이어지는데, 연회에서 조서를 가진 사람이 손님이 되고 신랑이 주인이 되어 차와 술을 내어와 서로 권한 다음 음식이 나온다. 이처럼 고려 왕실에서 혼례 때 차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도 혼례에 차가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귀족과 사대부의 혼례에도 차가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임금이 대신과 호조판서를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이 혼인하는 날에 납폐(納幣)하고 또 친영(親迎)을 하지 아니하며 관례(冠禮)도 또한 혼히 폐지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

126) 『고려사』 권 65 지 19 <예 가례, 원자탄생가의>, ‘賓主, 相揖就坐訖 進茶酒 酒至 賓主俱興 獻酬訖 設食 禮畢罷宴’.

127) 한국의 전통혼례는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친영은 고려의 왕실에서 거행하였고, 『주자가례』의 도입으로 조선의 세종은 민간에 보급하려 하였으나 고유의 서류부가혼이 계속되어 실행되지 못하였고, 후에 반친영이 되었다.

128) 축하손님은 중국사신이 ‘賓’이 되고 주최자인 ‘주인’이 함께 차를 마시며 설다의(設茶儀)가 행해졌다.

129) 『고려사』 권 67 지 21 <예 가례 공주하가의>, ‘賓主 相揖就座訖 設茶酒 酒至 賓主 俱興獻酬訖 設食’.

니, 우의정 김약로(金若魯)와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가난하고 군색하여 예(禮)를 갖추지 못하고 또 부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행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함이니, 이 또한 사치하는 폐단입니다.”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비록 친영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일 전에 납폐하는 것을 왜 꺼려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에 신칙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국혼(國婚)의 동뢰연(同牢宴)에는 다만 다과(茶菓) 두어 그릇만을 쓰고 유밀과(油蜜果)의 잔치상은 모두 제거토록 하라고 명하였다.¹³⁰⁾

조선시대의 왕실의 혼례는 고려말에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친영례를 하였으나 일반 사가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인의 절차가 복잡하고 사치를 하여 국혼의 동뢰연(同牢宴)의 경우에만 다과(茶菓)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5) 설날의 연회의식(元會儀)

설날 아침에 태자, 영공, 재신이 임금께 하례를 드리는 의식인데 이때 임금께 차를 올리는 진다의식이 행해졌다.

다방이 먼저 차를 올린다.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을 올리는데 뇌주(酌酒)하기를 마치고 태자 영공(令公) 재신(宰臣)이 왕좌 앞의 동쪽으로 가깝게 나아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영공이 존(尊)을 도우며 태자가 수주(壽酒)를 붓고 다방원(茶房員)이 잔을 공손히 받든다. 태자 영공이 다시 왕좌 앞으로 나아가 잔을 받들고 영공이 존을 도와 왕이 작(爵)을 잡으면 협률랑(協律郎)이 깃발을 들면 음악을 시작하고 작(爵)을 다하면 음악을 중지한다. ¹³¹⁾

이와 같이 설날 아침 임금께 수주(壽酒)를 올리고 차도 올리는 진다

130) 『영조실록』 25년 9월 21일, ‘丙寅/上引見大臣 戶判 上曰: “今士大夫婚日納幣 又不親迎 冠禮亦多廢而不行 何也?” 右議政金若魯 戶曹判書朴文秀曰: “爲其貧窶 無以備禮 且恥不及於富者 故不肯行 亦奢之弊也” 上曰: “雖不能親迎 前期納幣 何憚而不行乎?” 乃下教申飭 又命國婚同牢宴, 但用茶菓數器 悉除油蜜果宴床’.

131) 『고려사』 권 67 지 21 <예 가례 원회의>, ‘茶房, 先進茶, 後行爵酒訖, 太子·令公·宰臣, 詣王座前, 近東, 俛伏興, 令公佐尊, 太子, 酌壽酒, 茶房員, 俵盞, 太子, 俛伏興, 復就殿上位, 典儀曰, 再拜, 太子以下, 及殿庭在位者, 皆再拜, 太子令公, 更詣王座前, 太子奉盞, 令公佐尊, 王執爵, 協律郎舉旗, 樂作, 盡爵, 樂止’.

의식이 행하여졌다. 민간에서도 설날 아침이면 조상에게 차, 술, 음식을 올리는 다례를 행하였다.

6) 태자절일수궁관하병회의(王太子節日受宮官賀并會儀)

왕태자가 여러 군신으로부터 절일(節日, 每月 名節)에 하례를 받고 그들이 올리는 차와 술을 받고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사인(舍人)이 행두(行頭)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尊所)에 나아가면 궁관(宮官)이 차와 술을 올린다. …좌서자(左庶子)가 영지(令旨)를 전하고 주식(酒食)을 사(賜)하면 지전원(持膳員)이 재배(再拜)한다.¹³²⁾

7) 대관전연군신의(大觀殿宴群臣儀)

대관전연군신의는 연의(宴儀)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가례 진행 과정에서 행례되는 연회의 의식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이범직, 1991 : 137). 고려의 궁정안의 의식을 대표하는 연회로 명절이나 왕의 탄일(聖節日),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郊祀), 태후와 왕태자책봉의 등을 마친 후 축하하기 위해 대관전에서 왕가 태자와 백관들이 모여 대연(大宴)을 베풀었다.

근시관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은 몸을 국궁하여 권하고, 매양 술을 올리고 음식을 올릴 적마다 집례관은 몸을 국궁한다. 다음에 태자 이하의 군관에게 차를 하사하면 태자 이하 군관이 재배하고 집례관의 찬음(贊飲)으로 마시기를 마치고 읍례한다. ¹³³⁾

132) 『고려사』 권 67 지 21, <예 가례 왕태자절일수궁관하병회의>, ‘舍人, 引行頭, 就西階, 升詣尊所, 宮官, 進茶酒訖, 左庶子, 傳令旨, 賜酒食, 持膳員再拜’.

133) 『고려사』 권 68 지 22 <예 가례 대관전연군신의>, ‘近侍官進茶, 執禮官, 躬身勸, 每進酒進食, 執禮官, 皆躬身, …次賜太子以下群官茶, 太子以下群臣, 再拜, 執禮官, 贊飲, 太子以下飲訖, 揖’.

차 올리기를 마치면 술을 올리고 식사를 올리며, 왕은 태자 이하 여러 군관에게 차와 술, 그리고 식사를 하사한다. 모든 연회에 진다의식이 행하여졌다.

8) 상원연등회의(上元煙燈會儀)

신라에서 연등회(煙燈會)라는 토속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 있었고, 그 의식은 진흥왕(眞興王) 12년(551년)에 시작되어 고려 말까지 이어졌다. 연등회는 농경의례로 달맞이 등유(燈油)의 민속행사와 불교의 등공양이 습합되어진 민속적인 신앙행사이다(홍윤식, 1980 : 128). 특히 고려 태조(太祖, 918-944)는 팔관회를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넣을 만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명일(名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태조 왕건의 『훈요(訓要)』(홍윤식, 1980 : 128)¹³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으니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며 팔관(八關)은 천령(天靈) 및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가 더하고 빼기를 권하는 자가 있거든 꼭 그것을 금지하라. 나도 당초(當初)부터 마음에 맹세하여 회일(會日)에는 국기(國忌)를 범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같이 즐거워하였으니 마땅히 삼가 이에 의하여 행하라.¹³⁵⁾

고려 때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인 봄에 지내는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 등불을 밝히고 다과를 베풀고 음악과 춤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행사이다. 해마다 2월 15일에 개최된 것을 의종(毅宗) 때부터 정월 보름에 행하였

134) 『고려사』 세가 2, 태조 26년(843)에 내전(內殿)에 거동하여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주어 말하되, “훈요 10가지를 지어 이를 뒷세상에 전하느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펴보아 길이 거울을 삼을 지어다.”라고 하였다.

135) 『고려사』 세가 2, ‘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 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 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 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 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다. 연등회의 다례는 궁중의 강안전(康安殿)에 마련된 부계(浮階)에서 거행되었다. 『고려사』에 보면 연등회를 지낼 때 진다의식을 행하였다. 연등회의 절차는 소회(小會)일에 지내는 좌전(坐殿)의식과 조진(祖眞)을 알현하는 의식이 있고 이어서 대회일의 본 행사(大會日 座殿)가 있다. 진다의식은 대회일 좌전 의식 때 있다.

근시관(近待官)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執禮官)이 전(殿)을 향하여 국궁하고 술과 음식을 올릴 적마다 집례관이 모두 전을 향하여 국궁하여 권하였는데, 뒤의 행사에도 모두 이러한 예절을 본받았다. 다음에 태자 이하 시신(侍臣)에게 차를 하사하는데 차가 이르면 집례관의 찬배(贊拜)로 태자 이하가 재배(再拜)하고 집례관의 찬음(贊飲)으로 태자 이하가 모두 마시기를 마치고 읍(揖)한다.
136)

차, 술, 밥, 약, 꽃, 과일 등을 올리고 답례로 하사하는 절차와 의식은 대동소이하며 순서도 비슷하다. 다만, 차를 먼저 올린다는 점과 무도(舞蹈), 음악, 놀이,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종(成宗)은 유학도(儒學徒)들이 번잡하고 소란하다는 반대로 중지하였으나, 현종(顯宗)대에 다시 실시한 것으로 보아¹³⁷⁾ 국가의 중요한 이대 의식(二大儀式)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연등회는 조선시대에 영등(靈登), 서낭제, 동제(洞祭) 등의 토속적인 풍신제(風神祭)로 변모되었다(김명배, 1999 : 34).

9)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

팔관회는 (11월 15일 전후 3일간)에 천령(天靈), 오악(五嶽), 명산, 대

136) 『고려사』 권 69 지 23 <예 상원연등회의 대회일 좌전>, ‘近待官進茶 執禮官 向殿躬身 勸每進酒進食 執禮官 皆向殿 躬身勸 後皆倣此 次賜太子以下侍臣茶 茶至 執禮官 贊拜 太子以下 再拜 執禮官 贊飲 太子以下 皆飲訖揖’.

137) 『고려사』 권 69 지 23 <예, 역대 연등회> ‘顯宗元年閏二月, 復燃燈會, 國俗, 自王宮國都, 以及鄉邑, 以正月望, 燃燈二夜, 成宗, 以煩擾不經, 罷之, 至是復之, 二年二月, 設燃燈會于清州行宮, 是後, 例以二月望, 行之’.

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으로, 신라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다. 팔관회는 소회일(14일)과 대회일(15일)로 나누어지는데, 진다의식은 소회일과 대회일에 모두 행하였다. 해마다 음력 11월 14일에 개최된 소회(小會)의 다례는 궁중에 있는 의봉문(儀鳳門) 동전(東殿)의 계단 아래에 마련된 부계(浮階)에서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왼쪽 집례관이 태자와 상공을 인도하여 세소(洗所)에 나아가 손을 씻고, 근대관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이 전각을 향하여 국궁(鞠躬)하여 권하고, 근대관이 올리는 차와 식사를 베풀고 태자 공후백 및 추밀(樞密), 시신(侍臣)의 차와 식사를 베풀며 중계(中階) 시신은 서서 식사를 받고 다음에 근대관이 차를 올린다. 다음에 태자 이하 추밀 시신이 모두 재배하고 차를 받아 마시기를 마치고 읍한다.¹³⁸⁾

해마다 음력 11월 15일, 같은 곳에서 개최된 팔관회의 대회의 다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근시관이 차와 식사를 올리면 집례관이 전각을 향하여 국궁(鞠躬)하여 권하며, 다음에 태자 이하 시신의 차와 식사를 차리는 데, 전상(殿上)에 차를 올리고 술을 올리며 식사를 올리는 것과 태자 이하 시신에게 차를 하사하고 술을 베풀며 식사를 차리는 예수(禮數)와 악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도 모두 소회의 의식과 같이 한다.¹³⁹⁾

팔관회의 진다의식은 신라 진흥왕(551) 때에 시작되어 고려 공양왕(1392)까지 84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허충순(1988 : 11)은 고려의 왕실 의식에는 술과 차가 사용되었으나 차를 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궁정에서 행한 불교의례가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술보다 차에 대한 의미를 더욱 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술은 군신이 동락(同樂)하는

138) 『고려사』 권 69 지 23 <예 소회일>

139) 『고려사』 권 69 지 23 <예 대회일>

성격이 강했고, 의식절차상 술이 없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에도 팔관회에서의 술의 사용은 예외로 하고 있었다.¹⁴⁰⁾

위의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왕궁 안에서는 가례 때 항상 다례가 베풀어져 손님과 주인 간에 차는 공경의 예물로 여겨졌고 그 예의도 갖추었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이 중요성을 가진 진다의식은 고려의 다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다례의식으로 계승되었다.

10) 영조서의(迎詔書儀) · 영칙서의(迎勅書儀)

조서를 받들고 오는 사신을 궁정 밖에서 맞아, 궁정 내에서 조서를 받는 의식을 행한다.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본 의식의 예가 끝나고 사자의 좌석을 동쪽에, 임금의 자리를 서쪽에 마련하여 임금이 사자와 함께 몸을 구부려 두 번 절하고 다례를 행한다. 영칙서의는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영조서의와 그 의식이 동일하다.¹⁴¹⁾

3. 빈례(賓禮)

‘빈례(賓禮)’는 주변국가와의 국제적인 외교관계를 다룬 것으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의식이었다. 매년 중국의 사신이 올 때마다 왕은 친히 맞이하고 주례와 다례가 있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고려사』의 빈례에는 북조(北朝)¹⁴²⁾의 조사를 맞이하는 영북조조사의(迎北朝詔使儀), 기복고칙사를 맞이하는 영북조기복고칙사의(迎北朝起復告勅使儀)가 있으며, 대명(大明)의 조사를 맞이하는 영대명무조칙사의(迎

140) 『고려사』 지 39 <형법>

141) 『세종실록』 어례의 가례의식 <영조서의>

142) 북조(北朝)는 송(宋), 요(遼), 금(金)을 말한다.

大明無詔勅使儀), 사로사를 맞이하는 영대명사로사(迎大明賜勞使), 무조칙사를 맞이하는 영대명무조칙사의가 있다. 이 중에서 다례를 행한 것은 영복조조사의, 영복조기복고칙사의, 영대명무조칙사의이다. 주요의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와 같은 의식은 조선에까지 이어졌다.¹⁴³⁾

1) 영복조조사의, 영복조기복고칙사의

영복조조사의는 고려에서 북조인 거란과 금나라의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다의례는 태조부터 고종까지 310여 년간 거행되었다. 영복조기복고칙사의는 북조에서 보낸 기복고칙사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고려왕이 상주가 되면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기복(起復, 상중에 나와서 국사를 보는 것)하기를 명하고 삼년상이 끝나면 다시 사신을 보내어 기복을 파하게 하는 것이다. 기본 의례는 영복조조사의와 비슷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왕이 건덕전(乾德殿)에 나가 앉으면 각문부사(閣文副使) 이상이 먼저 건덕전 뜰에 들어가 숙배(肅拜)한다. 각문사인이 문사위에 나아가 사신의 도착을 아뢴다. 사신이 건덕전문 서쪽에 나아가면 왕이 문의 동쪽에 나와 서로 읍(揖)하고 뜰로 들어간다. 사신이 명을 전달하는 위치에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면 왕이 서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황제의 체후(體候)를 아뢰고 치사(致辭)한 후 재배(再拜)한다. 왕이 차를 하사하는데 첫잔은 사신에게 친히 권한다. 사신이 재배하고 중사와 하사에게도 똑같이 차를 하사한다. 술과 음식을 하사하는데 먹기를 마치면 사신이 재배하고 물러난다.¹⁴⁴⁾ 기복고칙사를 맞이해서 칙명을 받고난 후에, 왕이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베푸는 다회(茶會)로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과 대동소이하다. 왕은 동쪽, 사신은 서쪽에 대좌하고 친히 위로하고 차를 권하며 사신이 먼저 치사하고 왕이 답례하는데, 진다의식은 조사를 맞는

143) 『고려사』 권 65 예 7 <빈례>

144) 『고려사』 권 65 지 19 예 <빈례 영복조조사의>, ‘…閣使, 傳有教賜客省茶酒食, 舍人喝, 再拜, 引出殿門, 王, 就座後, 閣門員, 引下節入殿庭, 再拜, 奏聖體再拜, 閣使, 傳有教賜所司酒食, 喝再拜, 出門訖, 進茶, 初盞, 親勸使臣, 還酬再拜, 就座飲訖, 相揖還就座, 賜中下節酒食畢, 使臣, 再拜進步, 致辭再拜’.

의식과 비슷하다. 145)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은 왕이 몸이 편치 않아도 직접 조서를 받았으며, 의식에는 국신물색(國信物色, 국서와 예물)의 증정절차가 포함되어 있다(이은주, 2001 : 30).

정묘(丁卯)에 태자(太子)에게 명하여 순천관(順天館)에 나아가 송사(宋使)를 인도(引導)하게 하니 창합문(闔闔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회경전(會慶殿) 뜰로 들어왔다. 왕이 때마침 몸이 불편하였으므로 좌우로 하여금 부축케 하고 나와 조서(詔書)를 받았다. …이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안도(安燾)와 기거사인(起居舍人) 진목(陳睦)을 보내어 경(卿)에게 국신물(國信物) 등을 별록(別錄)과 같이 갖추어서 사(賜)하나니 도착하거든 영납(領納)하라.”고 하였다. …별사(別賜)한 것으로는 용봉다(龍鳳茶)가 10 근(斤)인데, 매 근(斤)을 금은으로 도금한 죽절합자(竹節合子)에 넣어 명금(明金) 5채(綵)로 장식하고 요화판 주칠갑(腰花板朱漆匣)에 담아서 붉은 꽃무늬 비단 겹보자기로 싸다. 이 가운데 용다(龍茶)가 5 근(斤), 봉다(鳳茶)가 5 근(斤)이었다.146)

예종조(睿宗朝)에 수 태사(守太師) 중서령(中書令) 치사(致仕)를 더하고 조서(詔書)·제첩(制牒)·다약(茶藥)·의백(衣帛)·안마(鞍馬)를 하사하여 우대하는 은혜를 보였다. 왕이 일찍이 용봉다(龍鳳茶)를 주니 최사추가 은혜를 감사하는 시(詩)를 올리니 왕이 화답하여 하사하였다. 147)

문종 때에 조사를 맞이하면서 용봉다(龍鳳茶) 10근을 받았으며, 예종 때에는 제신들에게 용봉다를 하사하였는데, 이것들은 빈례의 의식절차에서 받은 것이다. 용봉다의 하사는 제신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음이 『고려도경』에 보인다.

송나라의 서궁은 고려에서 사신의 영접에 대한 기록을 『고려도경』

145) 『고려사』 권 65 지 19 예 <빈례 영복조기복고척사의>

146) 『고려사』 문종 32년 6월, ‘丁卯, 命太子, 詣順天館, 導宋使, 至闔闔門下馬, 入會慶殿庭, 王適不豫, 使左右扶出受詔, … 今差左諫議大夫安燾·起居舍人陳睦, 賜卿國信物等, 具如別錄, 至可領也, … 別賜龍鳳茶一十斤·每斤用金鍍銀竹節合子·明金五綵裝腰花板朱漆匣盛·紅花羅夾帕復·龍五斤·鳳五斤’.

147) 『고려사』 열전 제신 <최사추>, ‘睿宗朝, 加守太師中書令致仕, 賜詔書·制牒·茶藥·衣帛·鞍馬, 以示優恩, 王嘗賜龍鳳茶, 思誠進謝詩, 王, 和賜之’.

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신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 중요한 사료 중의 하나이다. 서궁은 다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연회 때면 뜰 가운데서 차를 끓여서 은하(銀荷 은으로 만든 연잎 형상을 한 작은 쟁반)로 덮어가지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놓는다. 그런데 찬자(贊者)가 ‘차를 다 돌렸소’하고 말한 뒤에야 마실 수 있으므로 으레 차가 식어 버려서 냉차(冷茶)를 마시게 되었다. 관사 안에는 홍조(紅俎)를 놓고 그 위에다 차의 제구를 두루 진열한 다음 홍사건(紅紗巾, 붉은 색의 비단으로 만든 상보)으로 덮는다. 매일 세 차례씩 내는 차를 맛보게 되는데, 뒤이어 또 탕(湯 끓인 물)을 낸다. 고려인은 탕을 약(藥)이라고 하는데, 사신들이 그것을 다 마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고, 혹 다 마셔내지 못하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면서 불쾌해져서 가버리기 때문에 늘 억지로 그것을 마셨다. 148)

차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껑을 덮고 가지고 나왔으나 차는 항상 식어 있었고, 하루에 세 차례씩 차가 탕과 함께 나왔는데, 사신은 그 예로서 마셔야 했기에 복잡하고 불편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 중국과의 교류에 예물로 차를 주고받은 사례로는 정종(正宗) 4년(1038)에 거란에 토산단차인 뇌원차(腦原茶)를 예물로 보냈고¹⁴⁹⁾, 인종 8년(1130)에 금(金) 나라에 차를 보냈으며¹⁵⁰⁾, 충렬왕 18년(1292)에도 원나라에 향차(香茶), 목과(木果) 등을 보냈다.¹⁵¹⁾ 한편 송나라에서는 고려의 사신들에게 용봉명단(龍鳳茗團) 혹은 용차와 봉차를 다른 예물과 함께 여러 차례 보내와¹⁵²⁾ 고려의 환심을 얻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시대의 다문화는 일본과 거란, 금나라, 송나라 사이에 차에

148) 서궁, 『고려도경』 권 32 기명 3 <다조>, ‘凡宴則烹於廷中 覆以銀荷 徐步而進 候贊者云 茶遍乃得飲 未嘗不飲冷茶矣 館中 以紅俎 布列茶具於其中 而以紅紗巾幕之 日嘗三供茶 而繼之以湯 麗人謂湯爲藥 每見使人飲盡 必喜 或不能盡 以爲慢己 必怏怏而去 故常勉強 爲之啜也’.

149) 『고려사』 세가 권 6 정종 4년 7월 갑인.

150) 『고려사』 세가 권 16 인종 8년 3월 기미.

151) 『고려사』 세가 권 30 충렬왕 18년 10월 을사.

152) 서궁, 『고려도경』 권 6 궁전 2(정영전각); 『고려사』 세가 9 (문종 32년 6월, 1078), ‘別賜龍鳳茶一十斤·每斤用金鍍銀竹節合子·明金五綵裝腰花板朱漆匣盛·紅花羅夾緜復·龍五斤·鳳五斤’.

대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영대명무조칙사의

명나라 사신으로 황제의 조칙(詔勅)을 휴대하지 않은 자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북조의 조사를 맞을 때는 건덕전(乾德殿)에서 맞이하였지만 대명의 조사는 교외에 임시로 장막을 설치하고 맞이하기 때문에 차대접은 생략되었다. 다만, 조칙을 갖지 않고 온 사신을 맞을 때는 교외로 나가지 않고 영빈관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차 대접을 하였다. 당일에 왕이 성 밖의 장막에 출영하는데 세자 이하 백관이 모두 호종하는 데 평상복으로 호종한다. 사신이 말에서 내려 왕과 마주 읍한 뒤에 함께 말을 타고 왕궁에 이른다. 정전(正殿) 가운데 이르면 사신은 동편에 서고 왕은 서편에서서 한선(寒暄, 계절에 따른 인사말)을 간략히 말하고 마주 앉아 차를 배운다. 153)

3) 연조정사의의(宴朝廷使儀) · 왕세자연조정사의의(王世子宴朝廷使儀)

조선시대에는 궁중의식이 더욱 의식화되어감에 따라, 다의식도 더욱 엄격해지고 격식화된다. 조정에서 거행된 최대의 다례는 태평관(太平館)에서 중국의 칙사(勅使)를 맞이한 연조정사의의이다. 조선의 궁정에서의 첫 다례기록은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한 태종 때이다.¹⁵⁴⁾ 조선의 궁중에서 치러진 다례는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행하는 빈례가 가장 많으며, 주로 중국 사신을 맞이하여 거행한 다례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왕세자연조정사의의와 의례형식은 같다. 다만 왕이 아닌 왕세자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153) 『고려사』 권 65 지 19 예 <빈례 영대명무조칙사의>, ‘王, 進使臣前, 稍躬身, 問聖躬萬福, 使臣答後, 王, 北向跪, 叩頭興平身, 東西相向再拜訖, 略敘寒暄, 東西對坐, 設茶後, 王, 入內小歇, 世子與使臣, 相見再拜, 次諸君, 次宰樞, 次百官, 皆同 訖’.

154) 『태종실록』 원년 2월 14일,

전하가 태평관에 이르러 편전으로 들어간다. 사자가 문에 나서면 전하는 읍양(揖讓)하고, 사자도 읍양한다. 사자는 문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전하는 문 왼쪽으로 들어가며, 정청(正廳)에 이르러 사자는 동쪽에, 전하는 서쪽에서 사자에게 읍하고, 사자는 답하여 읍한다. 사자가 좌석에 앉으면 전하는 어좌에 앉는다. 사옹원 한사람은 다병을 받들고, 한사람은 다종반을 받들고 같이 들어가 주정(酒亭)의 동쪽에 선다. [차종지를 든 사람은 서쪽에 선다.] 제거(提舉) 두 사람이 과반을 받들되 한 사람은 부사의 왼쪽 남쪽 가까이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며 [사자가 많더라도 부사 이하의 과일은 모두 왼쪽에 둔다], 제조(提調)는 과반을 받들고 전하의 오른쪽 남쪽 가까이에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제조는 종지에 차를 받아[제조가 차를 따른다] 끓어얹아서 전하에게 올리고 [차종지를 올리려고 할 때 전하는 어좌에서 일어나 약간 앞으로 나와 서고, 사자도 좌석에서 일어나 약간 앞으로 나와 선다. 주례(酒禮)도 같다.] 전하는 종지를 들고 정사 앞으로 나아가 차를 올리며, 정사는 종지를 받아 임시로 통사(通事)에게 준다. 제조는 또 종지에 차를 받아 끓어얹아서 전하에게 올리고 전하는 종지를 들고 부사 앞으로 나아가 차를 올린다. 부사는 종지를 받고 전하는 약간 물러난다. 제조는 또 종지에 차를 받아서 정사에게 올리고, 정사는 종지를 들고 전하 앞으로 나아가 차를 올린다. [제조는 물러나 주정 뒤로 해서 주정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끓어얹는다. 주례도 같다.] 전하는 종지를 받아 선다. 통사(通事)가 임시로 다종(茶鍾)을 받아서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도로 종을 쥘다. 사자가 좌석에 나아가고, 전하가 좌석에 나아가서 차를 든다. 이를 마치면, 사준 제거(司尊提舉)는 각각 사자 앞에 나아가서 서서 종을 받고, 제조는 전하 앞에 나아가서 끓어얹아 종을 받아, 모두 찻쟁반에 그전대로 두고서 나간다. 처음에 차를 들고 이를 마치려 할 때, 사옹 제거는 서서 사자에게 과실을 올리고, 제조는 끓어얹아 전하에게 과실을 올린다.155)

조선시대의 다의례에는 빈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155) 『세종실록』 오례 <빈례의식연조정사의>, ‘殿下至館入便殿, 使者出門, 殿下揖讓, 使者亦揖讓. 使者入門而右, 殿下入門而左, 至正廳, 使者在東, 殿下在西揖, 使者答揖, 使者就座, 殿下卽座. 陳繖扇於廳外近西; 諸護衛之官, 列立於座後; 承旨於諸護衛之官前近南俯伏; 陳(於)大仗於庭之東西; 軍士列立於月臺及庭東西內外門, 竝如式. 司尊提舉一人奉茶瓶, 一人奉茶鍾盤, 俱入立於酒亭東【奉鍾者在西】. 司饗提舉二人奉果盤, 一人立於正使之右近北南向, 一人立於副使之左近北南向【使者雖副使以下, 果盤皆在於左】. 提調奉果盤立於殿下之右近南, 北向. 司樽提調以鍾受茶, 【提舉酌茶】跪進于殿下【茶鍾將進, 殿下起座稍前立, 使者起座亦稍前立, 酒禮同】. 殿下執鍾, 就正使前進茶, 正使受鍾, 權授通事. 提調又以鍾受茶, 跪進于殿下, 殿下執鍾, 就副使前進茶, 副使受鍾, 殿下少退. 提調又以鍾受茶, 立進于正使, 正使執鍾, 就殿下前進茶, 【提調退從酒亭後, 詣酒亭西北向跪, 酒禮同.】. 殿下執鍾, 通事以權授茶鍾, 立進于正使, 正使還執鍾. 使者就座, 殿下卽座. 舉茶訖, 司尊提舉各進使者前, 立受鍾; 提調進殿下前跪受鍾, 俱復於茶盤以出. 初舉茶訖, 司饗提舉立進果于使者, 提調跪進果于殿下訖, 俱以盤出’.

데, 그것은 사신맞이 접대가 왕실의례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려말의 명과의 관계에서 고려 전기에 보였던 중국에 대한 평상적인 국가의식은 쇠퇴하여지고 사대적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고려전기의 빈례는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말에서 조선에 이르면 명과의 관계에서 제후국(諸侯國)의 위치에서 예의 내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이범직, 1991 : 159).

「세종실록」에는 중국사신을 접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명사(明使)가 오면 왕이 태평관(太平館)까지 상행출영(上幸出迎)하여 다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례를 행하는 데 좌석의 배치는 ‘사대’로 접빈해야하는 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다음은 사신이 왔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다례의식과 하마연을 축하하는 연례(宴禮)의 기록과 빈례의식의 좌석배치에 대한 기록이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길 옆에서 국궁하여 제문(祭文)을 맞으니, 한확(韓確)도 또한 길복으로 맞이하였다. 제문이 지난 다음에 임금이 판사(判事) 조숭덕(曹崇德)을 시켜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흉복(凶服)으로 함께 가는 것이 미편(未便)하니 먼저 가기를 청하오.” 하니, 사신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꼭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같이 행차하였다. 태평관에 도착하여 한확이 먼저 들어가 오배 고두(五拜叩頭)한 후에 임금은 사신과 재배하고 각자 좌석에 앉아 다례(茶禮)를 행하고 하마연(下馬宴)을 베푼 다음 환궁(還宮)하였다.¹⁵⁶⁾

승지 황헌(黃憲)에게 전교하였다. “태평관에서의 다례 때에 나를 북쪽에 앉히려고 한하는데 참으로 감당할 수 없다. 대체로 남북으로 마주 향하는 예는 의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전에 현대인(賢大人)들은 모두 의주대로 거행했었다. 지금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니 너는 태평관에 가서 먼저 이런 뜻으로 천사에게 품하라.”¹⁵⁷⁾

156) 『세종실록』 6년 6월 26일.

157) 『중종실록』 32년 3월 10일

이렇듯 빈례의식(賓禮儀式)에는 명나라 사신을 맞아 다례를 행하는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실에서 사신 맞이 다례는 700여회에 걸쳐 행하였으며, 그 선례(先例)를 참고하여 다례를 준비하였고 실수로 사신의 노여움을 살 것을 걱정하여 선례와 다른 경우 항상 품신(稟申)한 후 거행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사신에게 다례를 베풀고 차를 하사한 기록이 보인다.158) 명(明)의 사신에게 다례를 베풀고 인정물(人情物)로 작설차를 사여하기도 하였고, 세종(世宗) 윤년 정월에 명의 사신 유천(劉泉)이 전다기(煎茶器)를 청한 바 있고, 그 2월에 왕은 유천과 황엄(黃儼)에게 각각 차 3말을 하사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159)

중국 사신이 이르니, 임금이 인정문(仁政門) 밖에 나아가서 맞아들였다. 중국 사신이 전(殿)에 올라서, 임금에게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꿇어앉아 청하여 마지아니하므로, 임금이 부득이 남향(南向)하여 서쪽 가까이로 앉았다. 중국 사신이 동쪽에 앉아서 다례(茶禮)를 행하니, 임금이 친히 인정물(人情物)로서 작설차(雀舌茶) 3두(斗), 6장 연폭유둔(六張連幅油菴) 1벌[事]……를 주었다.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술을 돌렸다. 160)

유천은 비밀히 통사(通使)를 유인하여 말안장을 고쳐 꾸미고, 또 비밀히 초피갓옷과 차(茶) 달이는 기구와 흑사피(黑斜皮)를 구득하였다. 유천이 여러 번 선사품을 사양한 것은 본심이 아니라, 실로 황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161)

정묘호란이 있는 뒤로 해마다 금나라에 폐백으로 보내는 것은 잡색주(雜色紬) 6백 필, 백저포(白苧布) 2백 필, 백포(白布) 4백 필, … 천지다(天池茶)·작설다(雀舌茶) 각 50봉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금나라에서 힐책함으로 인해 백주 2백

158) 『세조실록』 2년 7월 19일.

159) 『세종실록』 1년 2월 2일.

160) 『성종실록』 1년 6월 10일, ‘天使至, 上出仁政門外迎入 天使上殿, 請上坐北 上固辭, 天使跪請不已 上不得已南向近西而坐 天使坐東 行茶禮 上親贈人情物: 雀舌茶三斗 六張連幅油菴一事…… 遂設宴 上行酒’.

161) 『세종실록』 1년 1월 24일.

필, 백포 2백 필, … 소도 12병을 더 보냈다.¹⁶²⁾

중국의 사신에게는 무엇보다 차의 선물을 좋아하였고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그릇을 구한 것을 보면 고려의 차와 다기들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묘호란 이후(1636년)로 금나라로 보내는 폐백에 천지차와 작설차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차가 우수하여 조공품으로 보내진 것을 알 수 있다.

4. 흉례(凶禮)

국가 또는 왕실의 상(喪), 장(葬)에 관한 모든 의식으로,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 흉례는 국휼(國恤)·진위의(陣慰儀)·부태묘의(附太廟儀)·상국사제존증부조위의(上國使祭尊贈賻弔慰儀)·제신상(諸臣喪)·인국상(隣國喪)·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신상 때에는 부의품(賻儀品)으로 차를 하사하였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 때에는 진다의식을 행하였다.

조선시대 상·장례의 과정에서 차로 강신(降神)하였다. 장례 절차 중 상시책시보의(上諡冊諡寶儀)와 조전의(組奠儀), 견전의(遣奠儀), 입주전의(立主奠儀)¹⁶³⁾, 계빈전의(啓殯奠儀)¹⁶⁴⁾, 백관이 빈전에 전을 올릴 때¹⁶⁵⁾, 삭망전의(朔望奠儀)¹⁶⁶⁾, 안묘전의(安陵奠儀)¹⁶⁷⁾, 노제의(路祭儀), 천전의(薦奠儀), 시호를 내린 뒤 드리는 전의(諡號下賜儀)¹⁶⁸⁾,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등에서 다례가 행하여졌다. 상시책시보의와 영사시제

162) 『인조실록』 14년 2월 4일.

163) 『세종실록』 2년 8월 29일, <조전의>, <견전의>, <입주전의>.

164) 『세종실록』 2년 9월 2일. <계빈전의>.

165) 『세종실록』 2년 9월 12일.<백관이 빈전에 전을 올릴 때>

166) 『세종실록』 4년 5월 13일. <삭망전의>

167) 『세종실록』 8년 2월 25일. <안릉전의>

168) 『세종실록』 23년 9월 14일. <노제의>, <천전의>, <시호하사의>

급조부의의 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신상(諸臣喪)

고려의 성종(成宗, 982-997)은 최지몽(崔知夢, 987卒), 최승로, 최량(崔亮, ?-995)의 부의에 뇌원차(腦原茶)와 대차를 하사하였다¹⁶⁹). 최승로가 사망했을 때 상례품(喪禮品)으로 뇌원차 200각과 대차(大茶) 10근을 하사하였다. 최량이 사망했을 때에는 뇌원차 1,000각을, 한언공(韓彦恭)에게는 200각을, 서희(徐熙)에게는 뇌원차 200각과 대차(大茶) 10근을 하사하여 전의 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최승로가 사망한 연대는 989년으로 고려에서 주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차가 조정에서의 하사품으로 상례의 부조 예품(禮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

고려시대에는 죄와 법을 다룰 때에 격식을 갖추어 차를 마시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관리들이 죄를 논함에 있어 삼가고 신중한 공무 태도의 하나로 실천한 것은 ‘중형주대의’와 ‘다시(茶時)’가 있다. 중형주대의는 관리들이 공무를 의논하기 전에 다례를 먼저 행한 것을 말한다. 다시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사헌부에서는 죄와 법을 다루는 대관이나 감찰들이 모여서 공무를 행하기 전에 다례를 먼저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행하였다. 중형주대의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중형을 내릴 때 임금에게 고하고 참결을 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때 모든 신하들이 내전의 남쪽 낭하에서 빚고 진다(進茶)하는 의식을 올렸는데, 이때 차를 임금께 올리고 신하들에게도 하사하였다. 절차를 살펴

169) 『고려사』 지 <예, 흥례, 제신상>, ‘成宗六年三月, 內史令崔知夢卒, 王, 聞訃震悼, 賻布千匹·米三百石·麥二百石·茶二百角·香二百斤·官庀葬事, 贈太子太傅, 諡敏休, 八年五月, 守侍中崔承老卒, 王慟悼下教, 褒其勳德, 贈太師, 賻布千匹·麪三百石·粳米五百石·乳香百斤·腦原茶二百角·大茶十斤, 十四年四月, 平章事崔亮卒, 王, 慟悼, 贈太子太師, 賻米三百石·麥二百石·腦原茶千角, 以禮葬之, 諡匡彬’.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내전(內殿)의 안쪽에 앉고 여러 신하들도 재배한 후 제자리에 앉는다. 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 별채)로부터 차를 들고 들어온다(進茶). 내시칠품원(內侍七品員)이 뚜껑을 연다. 집례가 전(殿)의 앞 기둥 밖으로 올라와서 왕과 마주보고 절한 후 차를 권하고 놓은 뒤 전 아래로 내려온다. 다음에 원방(院房)의 8품 이하가 재추(宰樞)에게 차를 올리며, 다시 전상(殿上)에 올라가 엎드려 차 마실 것을 청한다. 단필주대원(丹筆奏對員,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관원)이 “단필(丹筆)로 참결(斬決, 목을 베는 형벌)을 결정하시되 유인도(有人鳥)에 들어갈 자를 제외 하소서”라고 아뢰는다. 형이 결정된 후 왕과 재추에게 약(藥)을 권하고 신하들은 재배한다. 신하들은 왕이 술과 과일을 하사한다는 분부를 전달받고 차례로 나간다.¹⁷⁰⁾

위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먼저 차를 마시지 않고 신하와 함께 마신 후 참형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중형을 결정한 후에 마신 차[藥]¹⁷¹⁾는 긴장을 풀고 심신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음료를 올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에 임금은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술과 과일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의례의 시작에 차로서 예를 갖추어 마신 것과 의례의 마지막에 술과 과일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음료이지만 의미는 아주 다르다. 이때 다례로서 마신 차는 단순한 기호음료로서의 차로 쓰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음료로 쓰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정영선, 2000 : 95-96). 죄와 범을 다룰 때 바른 생각과 판단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차 마시는 의례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0) 『고려사』 권 64 예 6 <흉례 중형주대의>, ‘茶房參上員, 從夾戶, 入進茶, 內侍七品員, 去盖子, 執禮, 上殿前楹外, 面拜勸茶, 放後下殿, 次院房八品以下, 進宰樞茶, 執禮, 又上殿, 伏面請茶出, 次丹筆奏對員, 入奏丹筆, 制斬決, 除入有人鳥, 畢後, 勸御藥, 及宰樞藥, 執禮, 引宰樞, 下庭褥位, 微喝再拜, 執禮承傳, 云宣賜酒果, 執禮, 微喝再拜引出’.

171) 고려의 궁정에서 고급말차를 ‘차’라하고 맑은 다탕을 ‘약’이라 했으므로 약은 인삼차나 다른 대용차를 마셨다고 짐작된다.

또한 고종(高宗, 安孝大王) 8년(1221) 10월에 의봉루(儀鳳樓)에 거동하여 사면을 베풀 때 의장(儀仗) 대열에 행로(行爐)와 다담(茶擔) 군사(軍士)가 4인이 있는 것¹⁷²⁾으로 보아 다례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법가위장(法駕衛仗), 서남경순행위장(西南京巡幸衛仗), 왕태자 노부(王太子鹵簿) 조¹⁷³⁾에도 행로 다담이 있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 왕이 행차하여 업무를 보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행로 다담, 즉 다례를 행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의 사헌부(司憲府)와 같은 관아(官衙)의 회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다례의 형식으로 전승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헌부의 업무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보면 차를 마신 것을 휴식으로 본 것이 아니고 업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¹⁷⁴⁾. 조선 중엽부터 사헌부의 다시는 감찰의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변한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감찰들이 사헌부나 감독과 검열을 하는 관청에 모였다가 파하는 것을 다시라 일컬으니 그것은 차를 마시고 파하는 것이다”라고 감찰다시를 설명하고 있다.

성상소 감찰 다시(城上所監察茶時)라는 말을 비록 사람마다 외어 말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성상소란 것은 옛 궁궐의 성장(城牆) 위라는 뜻인데, 그 당시 대원(臺員)들의 회의하는 처소로서 간관(諫官) 중에 행공(行公)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감찰들이 교대로 모여서 회의를 마치는 것이고, 다시라는 말은 그들이 모여서 차나 한 잔 마시고 헤어진다는 뜻이다. 감찰은 옛날의 전중어사(殿中御史)로서 모든 관료를 단속하는 직책인데, 반드시 먼저 검소하게 처신해야 하기 때문에 거친 베에 누추한 빛깔의 옷을 입고 좋지 않은 말에 떨어진 안장을 엮어 바라보기만 해도 그가 감찰인 줄을 알도록 했으니 곧 옛날의 관례였다. 그러므로 비록 부유한 집의 자제일지라도 감히 그것을 변하게 하거나 고치지 않았는데, 뒷날 한 두 재상이 시론(時論)을 내세워 그 편리함에 따르기를 허용함으로써 드디어 화려한 의복을 입게 되었다 한다.¹⁷⁵⁾¹⁷⁶⁾

172) 『고려사』 권 72 지 26권 <여복, 선사의장>.

173) 『고려사』 권 72 지 26권 <여복, 법가위장 · 서남경순행위장 · 왕태자로부>

174) 『태종실록』 5년 7월 16일.

또한 사헌부의 다시를 중요시 한 것은 관리들의 차가 지닌 성품을 닦아 청덕을 지니고자 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검찰들은 탐오(貪汚)한 벼슬아치를 가리고 청렴결백한 사람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므로 자신부터 검소해야 함을 당연한 미덕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공무를 하면서 다례를 행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우리민족의 차생활을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한 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의 차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정영선, 2000 : 103). 또한 이수광의 글에는 야다시가 나온다.

야다시夜茶時)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야다시란 재상 이하 누구든지 간사하거나 범람하여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여러 감찰들이 야다시를 틈타 그 근처에 가서 그의 죄악 사실을 흰 판자에 써서 그 판자를 문 위에 걸고 가시나무로써 그 문을 봉한 뒤에 서명하고 흠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드디어 출입을 못하고 아주 기물(棄物)이 되고야 마는 것이다. 177)178)

야다시는 밤에 행하는 감찰 업무를 말하는 데, 위의 기록으로 그 당시의 야다시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엽부터는 왕실과 조정의 행사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왜란 이후에는 점차 본 의미는 희박해지고 변모된 형식만 남게 되었다. 이익은 조선 초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야다시의 풍속을 다시 볼 수 없음을 개탄하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다시의 본뜻과 다르게 때와 장소를 소홀히 하고 불참하

175) 이수광. 『지봉유설』 권 17 <雜事部·故實>, ‘監察 乃古殿中侍御史之職 故俗謂殿中 若本府不坐之日 則城上所會諸殿中於某處 分臺而罷 謂之茶時 言其啜茶而罷也 糾檢百僚 故在前務從後朴素 着土紅圍領 撲馬破鞍以行 明廟末年 始許改其服色 舊風遂變云’.

176) 이익. 『성호사설』 권 12 <人事門·茶時>

177) 이수광. 『지봉유설』 권 17 <雜事部·故實>, ‘祖宗朝臣僚有奸濫貪汚者 則諸殿中乘夜茶時於其家近處 數其罪惡 書之白板 掛于門上 以荆棘塞其門 牢封署而去 其人遂廢錮於世 蓋此事之廢久矣’.

178) 이익. 『성호사설』 권 12 <人事門·茶時>

는 일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¹⁷⁹⁾

3) 상시책시보의(上謚冊謚寶儀) · 영사시제급부의(迎賜謚祭及弔賻儀)

시책보(謚冊寶)를 올리는 의식으로 시책문을 새긴 옥책(玉冊) 또는 죽책(竹冊)이 시책이다. 시책문은 곧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이 선왕의 시호를 정하여 책문을 짓고 옥책을 만들어 선령에게 고하고 종묘에 봉안하게 된다. 의식 중에 차와 술을 올리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독보관의 뒤에 서게 하고,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빈전 아래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통찬이 ‘재배하라.’ 하면, 진책보관 이하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殿)에 올라와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향(香)을 세 번 올리고, 집사는 다(茶)와 술을 가지고 진책보관에게 준다. 진책보관은 뇌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한 후 부복하였다 일어나 재배하고 인도되어 내려와 제자리에 선다. 다음 두 번째로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계(殿階) 아래의 자리에 나아가 북향으로 부복하고 꿇어앉아 계(啓)하기를, ‘아무 벼슬인 신 아무는 교서를 받자와 시책보를 삼가 받들어 올린다.’ 하고, 계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¹⁸⁰⁾

임금은 면복(冕服)을 갖추고, 고명(誥命), 제문(祭文), 부물(賻物)을 맞이하는 의식을 행한다. 마친 후 면복을 벗고 백포(白袍)를 갖춘 후 다례를 행한다.

전하와 사자가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자리로 나아가 【옥석(褥席)을 거둔다.】 다례(茶禮)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졸곡 전에는 최복(衰服) 차림으로 상회례(相會禮)만 행하고 다례(茶禮)는 행하지 아니한

179) 『효종실록』 4년 1월 6일.

180) 『세종실록』 2년 8월 29일. <상시책 시보의>, ‘次奉禮郎引讀冊官、讀寶官，詣冊寶案之南，北向立，次引奉冊官、奉寶官，立於讀冊官、讀寶官之後，次引進冊寶官，詣殯殿下西向。立定，通贊贊再拜，進冊寶官以下皆再拜。次引進冊寶官升殿詣香案前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進冊寶官，進冊寶官酌茶三奠酒，俛伏，興，再拜，引降復位小立。次再引進冊寶官，詣殿階下位北面，俛伏跪，啓稱：“某官臣某言，奉教謹奉上謚冊寶。”啓訖，俛伏’.

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문(西門)으로 나가고, 인례(引禮)가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나가 문밖에서 전송한다. 전하께서 환궁하는데, 시위(侍衛)하기를 상시(常時)의 의식과 같이 한다.¹⁸¹⁾

5. 궁정의 차생활

앞서 신라와 고려, 조선의 궁정에서는 길례·가례·빈례·흉례에 다례가 행해진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에 이르는 왕실의 일상생활에 다례가 행해진 기록으로, 상왕을 알현하거나, 대신들의 회의에, 왕자의 회강시에 다례가 행해진 것 등이다.

1) 삼국시대

충담사는 경덕왕(742-765)에게 차를 끓여 올리고 왕의 요청으로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바치니 왕이 기꺼이 여겨 왕사(王師)에 봉하였으나, 곧이 사양하였다고 한다.¹⁸²⁾

왕이 말했다. “과인(寡人)에게도 차 한 잔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요?” 하시니, 스님은 이내 차를 달여 바쳤는데 차의 맛이 특이하고 찻잔 안에서 기이한 향내가 풍겼다.¹⁸³⁾

안민가(安民歌)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181) 『세종실록』 흉례의식<영사시제급조부의>, ‘東向立 判通禮俯伏跪, 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與使者鞠躬再拜興平身 就座【徹褥席】行茶禮畢, 【卒哭前則以衰服行相會禮, 除茶禮】判通禮導殿下由西門出, 引禮引使者由東門出, 送于門外, 殿下還宮侍衛如常儀.’

182) 『삼국유사』 권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183) 『삼국유사』 권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하실지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物生)에게
 이를 먹여 다스린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다.¹⁸⁴⁾

충담사¹⁸⁵⁾는 화랑도 출신의 승려이며, 그가 지은 향가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각각 자기 본분을 지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는 소박한 내용으로 유교 사상이 짙은 노래이다.

『삼국유사』 「월명사도술가(月明師 兜率歌)」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명사를 조원전(朝元殿)으로 초청하여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는 변괴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에 월명이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鄉歌)만 안다고 하며, 도술가를 지어 부르니 변괴가 곧 사라졌다. 왕은 기뻐하며 좋은 차 한 봉지(品茶)와 수정(水精) 염주 백팔개를 하사(下賜)했다.¹⁸⁶⁾

도술가(兜率家)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에 산화가(散花歌)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림이니

184) 『삼국유사』 권 2, ‘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 古如 窟理叱大生以支所音物生 此肝喚惡支治良羅 此地肝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 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大平恨音叱如’.

185)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 순수한 스님과 스님이면서 화랑인 경우를 구별하여 기록했는데, 순수한 스님일 경우에는 ‘석(釋)’자를 이름자 앞에 붙였고, 화랑도인 경우에는 ‘사(師)’자를 이름 뒤에다 붙여 놓았다. 예를 들면 순수한 스님인 경우에는 석양지(釋良志), 석보양(釋寶壤), 석원광(釋圓光)과 같이 ‘석’자를 이름 앞에다 붙여 놓았고, 화랑도 스님인 경우에는 월명사(月明師), 융천사(融天師), 충담사(忠談師)와 같이 ‘사’자를 이름자 뒤에다 붙여 놓은 것이다(김명배, 1998 : 214)

186) 『삼국유사』 권 5 「월명사도술가」

미륵좌주(彌勒座主)를 모셔라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용루(龍樓)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청운(靑雲)에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은근·정중한 곧은 마음이 시킴이니
멀리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이하라

그런데 갑자기 동자가 나타났는데 외양이 곱고 깨끗했다. 그는 공손히 차와 염주를 받아 궁전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가버렸다. 월명은 이것을 내궁(內宮)의 사자라 했고, 왕은 스님의 종자라 했으나 서로 알아보니 모두 잘못이었다. 왕이 매우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뒤를 쫓게 했더니 동자는 내원의 탑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차와 염주는 남벽의 벽화 미륵상 옆에 있었다. 이와 같이 월명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¹⁸⁷⁾

월명사는 하사한 차와 염주를 받지 않고 미륵상에 바친다. 이 시대의 불교의 사상이 미륵신앙이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며 하사한 차와 염주는 그 당시 승려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궁정 차생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 그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 유물 등으로 당시의 음다풍속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1972년 발굴된 무녕왕(武寧王, 501-523)의 능에서 금세 공품과 도자기 등의 유물과 백제 무왕(600-641)때 건립된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에서 찻잔이 출토된 것으로 왕실에서의 음다풍속을 추정할 뿐이다(박숙희, 1994 : 13). 왕릉에서의 찻잔 출토로 알 수 있는 것은 왕족들이 차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적어도 귀족계급

187) 『삼국유사』 권 5 「월명사도솔가」,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靑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既而日怪卽滅 王嘉之 賜品茶一襲 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互]微而俱非 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知明之至德與至誠 能昭假于至聖也如此.’

에서는 생활차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찾잔이 출토된 것으로 당시의 승려들이 음다생활을 짐작할 수 있으며, 고구려, 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함께 다문화도 전래, 확산되어 생활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음은 원효의 아들인 설총은 신문왕(神文王, 681-691)을 훈계(訓戒)한 「화왕계(花王戒)」 설화(說話)이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위정자는 좌우의 공급이 비록 충분하여 고향진미(膏粱珍味)로 배를 부르게 하고, 차와 술로써 정신을 맑게 한다 하더라도 상자에 저장한 것 중에서 마땅히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도와주고 독한 돌침으로 병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¹⁸⁸⁾

설총은 할미꽃과 장미꽃을 의인화하여 차와 술이 함께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준다고 간언을 한다. 설총은 원효의 차생활에 영향을 받았고, 평상시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화왕계가 설총의 생활철학으로 나왔을 것이라 짐작된다. 왕은 “그대의 우화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소. 부디 그 말을 글로 써서 임금 된 자의 경계로 삼게 하오.” 라고 하며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 그 당시 차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음료로서가 아닌 철학적인 의미가 확인할 수 있다.

2) 고려시대

차는 귀중한 예물이어서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사했는데, 태조(太祖, 918-944) 왕건은 신라의 군민과 승려에게도 차를 하사하였다.¹⁸⁹⁾ 문종(文宗, 1047-1083) 때는 국사(國師) 해린(海麟)에게 차와 비단을 하사하였고 의

188) 『삼국사기』 권 46 열전 6 <설총>, ‘竊謂左右供給雖足 膏粱以充腸 茶酒以清神 巾衍儲藏 須有良藥以補氣 惡石以毒觸’.

189) 『고려사』 세가 권 2 태조 14년 8월 계축.

천(義天, 1055-1101)도 어차(御茶) 20각을 하사 받았다.¹⁹⁰⁾ 천태종의 중흥조인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차를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화답하다(和人謝茶)」라는 시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음다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봄날 동산에 이슬이 내렸으니 무엇을 할까
유화를 달이고 월단차를 끓여 먼지와 시름을 씻으리
몸은 가볍고 뒤쳐지지 않아 세 골짜기를 노닐고
뼈 속이 상쾌하여 잠깐사이에 가을을 맞았네.¹⁹¹⁾

의천은 차를 끓여 마시면서 세상의 근심을 씻어내고 신선과 같이 됨을 표현하였다.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하사받은 차는 고급 유단차임을 알 수 있다.

숙종(肅宗, 1096-1105)은 왕비와 원자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각산(三角山) 암자에 행차하여 재(齋)를 베풀 때 차와 향을 하사하였다.¹⁹²⁾ 또한 불사(佛舍)에 시주할 때나 왕을 대신하여 기우제를 지낼 때도 차를 하사하였다.

임신(壬申)에 상자사(常慈寺)에 들리고 갑술(甲戌)에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여 재(齋)를 설(設)하고 이어서 은향완(銀香椀)과 수로(手爐) 각 1좌(座), 금강자(金剛子)와 수정염주(水晶念珠) 각 1관(貫), 금대(金帶) 1요(腰), 금화과(金花果)를 수놓은 번(幡), 다(茶), 향(香), 의대(衣帶), 금기(金綺)를 시주(施主)하고 을해(乙亥)에 양주(楊州)에 들러 도성(都城) 세울 땅을 상(相) 보고 경진(庚辰)에 인수사(仁壽寺)에 행차하였다.¹⁹³⁾

190) 『고려사』 세가 권 8 문종 20년 6월 정유.

191) 의천, 『대각국사문집』 권 18 「和人謝茶」, ‘露苑春峰底事求 煮花烹月洗塵愁 身輕不後遊三洞 骨爽俄驚入九秋’.

192) 『고려사』 세가 권 11 숙종 4년 9월.

193) 『고려사』 세가 숙종 4년 윤9월조.

3) 조선시대

다음은 궁중에서 어의가 차를 탕약으로 조제한 것이나 대신이 왕을 알현하거나 대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다례를 행한 기록이 있다.

약방이 계피, 꿀, 차 한 첩을 봉하여 넣고 약방의 어의(御醫)가 들어가서 진찰한 다음 계피, 꿀, 차, 부자(附子) 한 돈을 첨가하여 달여서 넣었다.¹⁹⁴⁾

순조 원년 11월 그저께부터 옥체의 다리와 발에 크고 작은 발진이 많이 솟았다. 분부를 내려 금은화(金銀花) 두 돈, 산사육(山査肉) 한 돈으로 차를 만들어 올렸다. 그 달 24일에 약원(藥院)이 들어가서 진찰하였다. 금은화, 차, 사탕부스러기 세 돈, 안신환(安神丸) 반 환을 조제하여 올렸다.¹⁹⁵⁾

온전(溫全)과 양영(楊寧)이 상왕전(上王殿)에 갔다가, 다음에 대군(大君) 화(和)·대군(大君) 방의(芳毅)·부원군(府院君) 민제(閔霽)의 집에 갔으므로, 모두 다례(茶禮)를 행하여 대접하였다.¹⁹⁶⁾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차는 발진에 효과가 있어서 탕약으로 조제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왕을 알현하거나 대군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다례를 행한 것은 차로써 예를 갖춘 의미도 있지만 차의 효능을 알았기 때문에 다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였다. 임금이 헌수(獻壽)하고자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이제부터 술과 고기는 먹지 않고, 차 한 사발(椀)을 마시고 그만두겠다.”¹⁹⁷⁾

승정원에 전지하시기를, “매월 초1일, 11일, 21일은 세자의 사부와 빈객이 모여서 진강(進講)하고 인하여 주과(酒果)를 베푸나, 더울 때에 술을 마시면 땀이 나서 병이 생기게 된다. 사부가 세자에게 술잔을 바치면 세자가 부득이하여 마

194) 『영조실록』 52년 3월 3일.

195) 『순조실록』 1년 11월 27일.

196) 『태종실록』 2년 10월 16일.

197) 『태종실록』 3년 12월 17일, ‘上欲獻壽, 太上王曰 自今不飲酒食肉 飲茶一椀而止’.

시키고, 서연관도 부득이하여 마시게 되니, 6월에는 회강을 없앨 것인가. 비록 회강을 할지라도 다례(茶禮)만 행할 것인가.” 하니, 좌대언 김종서와 우부대언 송인산 등은, “회강하는 법을 겨우 세웠는데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며, 또 심한 더위라고 하여 예(禮)를 폐한다는 글이 없으니, 다례만을 행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동부대언 이궁(李兢)은, “6, 7월에는 회강을 없애고, 8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하니, 종서 등의 의논에 따랐다.¹⁹⁸⁾

태상전(太上殿)에 임금이 헌수(獻壽)하고자 하니, 태상왕은 ‘차 한 사발을 마시고 그만 두겠다.’고 한 것을 보면 태상왕은 술을 좋아하지만 몸이 편치 않아 차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 한 것으로 차가 신체적 효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매월 세 번씩 세자의 사부(師父)와 빈객(賓客)이 모여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주과(酒果)를 베풀던 회강시(會講時)에도 다례를 행한 것은 날이 더운 여름에 술을 마시면 병이 되지만 차를 마시면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회강시마다 다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왕실의례에 차가 사용된 것은 신라에서 있었다. 고려 궁정에서 길례, 흥례, 빈례, 가례에 다의례가 행하여졌는데, 특히 연등회나 팔관회가 국가의례로 행해졌다. 조선시대는 ‘사대교린’의 시대여서 다른 의례보다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가 조선의 궁정에서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다.

신라에서는 설총은 왕에게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라는 계몽적 시를 올리고 승려들은 차와 시를 지어 올리고 차일습을 받는다. 이것으로 신라에서는 일부 귀족과 승려, 궁정에서 차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궁정에서는 왕이 신하나 노인, 사신에게 차를 하사하였는데, 그것은 차가 귀중한 선물로 여겨졌으며, 송나라의 다문화와 많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고려에 이어 사헌부에서는 다시가 있었는데, 차의 성품을 닮아 청덕을 지니고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다례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198) 『세종실록』 13년 6월 30일.

고려에서 행한 일상적 다례가 그대로 궁정에서 행하여져, 상왕을 알현하거나 회강에 다의례가 있었고, 차를 하사하기도 한다. 중기 이후에는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 차 대신에 인삼차가 다례에 행하여지기도 하였다.

V. 민간의례

신라시대의 다문화는 ‘귀족차 시대’로 궁정과 귀족, 승려들의 차생활로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산되지 못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궁정과 사원에서의 음다풍속의 영향으로 민간에서도 차생활이 가능해졌고, 다점이 생겨날 정도로 일반 서민들에게도 다문화가 확산되었다(전완길, 1987 : 192). 그러나 문헌으로 전하는 신라시대의 민간 다의례는 찾아 볼 수 없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사원에서의 의례가 많았던 ‘사원차 시대’로 사대부나 일반 서민들도 사원에서 행한 의례가 보인다. 주로 상례와 제례에 대한 의식을 행하였으며, 공양물로 차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불교적 색채가 퇴화되고 모든 의식이 유교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 말 들어 온 주자학에 기인한 것으로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규범이 민간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왕실과 사원을 제외한 사대부, 문인, 서민들이 행한 다의례를 민간의례로 통칭하며,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행해진 불교식 다의례와 고려말의 『주자가례』에 나타난 다의례, 조선시대에 행해진 유교식 다의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민간에서 행한 차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식 다의례

고려시대의 일반 서민의 상례와 제례에 차를 사용한 것은 앞서 최승로의 사망에 차를 하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성종 때에 최지몽, 최승로, 최량의 부의에 뇌원차와 대차를 하사하였는데¹⁹⁹⁾ 뇌원차는 고급차로 전

199) 『고려사』 지, <예, 흉례, 제신상>

의(奠儀)에 사용되었고, 대차는 조문객의 대접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최승로의 사망은 989년이고 주자의 생몰이 1130-1200년이며,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기이다. 이로 미루어 차가 의례에 사용된 것은 주자학이 들어오기 전이다.

조선 초기 사대부, 서민의 상제(喪祭)는 불교의례인 수륙재(水陸齋)가 국가의 공식 상제로 인정되어 가묘제(家廟制)와 병행된 것은 사대부 계층에서 유교식 의례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까닭이다. 세종 14년(1432)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제가 불교식과 유교식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기(末期)에 임금과 신하들이 부처 받들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문수 법회(文殊法會)의 기록을 역사에 쓰지 않은 때가 없으며, 불경을 강설하고 중들을 음식 대접하는 일에 걸핏하면 거만(鉅萬)의 경비를 소모합니다. 전지(田地)와 노비는 다 사찰(寺刹)에 귀속(歸屬)되어, 군국은 경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고, 도둑은 날뛰었으며,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지더니, 마침내는 요망한 중이 정사(政事)를 어지럽게 만들고 종묘와 사직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

더욱 불교에 억제(抑制)를 가하시어 선(禪)·교(敎)의 두 종파(宗派)를 두는 데 그치고, 나머지 종파들은 죄다 없애 버렸습니다. 나라에 통하는 상제는 수륙재(水陸齋)만을 설행(設行)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예절의 조목은 하나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게 하였습니다.

수륙재의 설행(設行)도 또한 폐지하도록 하며, 종문의 승선도 전주(銓注)와 함께 의논하여 모두 폐지하게 하고, 경외(京外)의 사찰들은 공용건물(公用建物)에 충용(充用)하게 할 것이며, 놀고먹는 무리들이 만약 권선문(勸善文)을 갖고 다니며 백성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빼내거나, 불경을 인간(印刊)하며 불상을 만들거나, 절을 짓고 법회(法會)를 개설하거나, 수륙재·강경당(講經堂)·안거작법(安居作法) 등속에 이르기까지 일절 금단(禁斷)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하며, 그의 노비와 재산을 적몰(籍沒)하여 빈핍(貧乏)한 자를 넉넉하게 하여 주고, 사람은 그 주인에게 주고 그 서적(書籍)은 불태워 버려서,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하여금 다 그 부양(扶養)을 얻게 한다면, 실로 만세에

걸쳐 유도(儒道)에 있어서 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200)

위 기록에서 보듯이 사원에서 행한 의례의 폐단이 많았다. 민간에서 재를 지내기 위한 경비가 많이 들고, 사원에서는 부를 비축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사원은 부패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원을 통폐합하고 나라에서 수륙재만을 허용하게 된다. 나중에는 수륙재까지도 폐지하는 강경한 정책을 펴게 되었다. 따라서 사원에서 제사와 재의 실행하는 데 있었던 차공양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고려 말 주자학을 도입하여 조선조에는 모든 국가정책으로서 실행되었던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사대부 계층에는 법적 강제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교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에 기초한 예제(禮制) 질서를 실현하되 현실에 강고히 뿌리박혀 있는 불교와 민간 신앙 등의 예제를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현철, 1998 : 3). 불교에서 유교식으로 의례의 형태는 변화하였지만 『주자가례』에도 차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 다의례는 계속 되었다.

고려말의 사대부들은 불교 억압책을 주장하면서 왕실의 불사(佛事)에 반발하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불사를 벌이기도 하였다(이영하, 1992 : 43). 조선 초기 불교 상장의(喪葬儀)의 일면을 보여주는 묘실벽화가 발견되어 상례에 차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묘실의 주인인 송은박익(松隱, 朴翊, 1332-1420)²⁰¹⁾의 천도를 위한 공양의식 행렬도가 있는

200) 『세종실록』 14년 3월 5일, ‘…麗季君臣奉佛尤謹, 文殊法會, 史不絕書; 講經飯僧, 動費鉅萬, 田民盡歸於寺社, 軍國難支於經費, 寇盜陸梁, 民生塗炭, 卒致妖僧亂政, 宗社覆亡… 益加裁抑, 止置禪教兩宗, 餘悉汰去. 通國喪制, 令設水陸, 其餘節目, 一依『家禮』…水陸設齋, 亦令停罷; 宗門僧選, 共議銓注. 悉皆罷去京外僧舍, 俾充公廩. 遊手之徒, 如有把持勸文, 誘民抽財, 印經造佛, 構寺設會, 以至水陸齋、講經堂、安居作法之事, 一切禁斷. 其有違者, 痛行科罪, 籍其民財, 以贍貧乏. 人其人火其書, 使鰥寡孤獨咸得其養, 實萬世斯道之大幸也…’.

201) 박익(朴翊)은 밀양태생으로 고려말기의 공민왕조(恭愍王朝)에 등재하여 소감(東京判官)에서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올라 세자전(世子傳) 중서령(中書令)을 겸하고, 남으로 왜구와 북으로 여진을 토벌하였다. 고려 국운이 기울자 관(官)을 버리고 귀향하여 나오지 않았다.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등과 교류하고 팔은(八隱), 구은(九隱)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 552)

데, 행렬 중 두 여인이 각각 들고 있는 다병과 찻잔이 있다(한기정, 2003 : 77).

2. 주자와 『주자가례』

주자(朱子, 1130-1200)는 남송 안휘성 무원현 태생으로 그는 무이산(武夷山)에서 차로써 철학을 갈고 닦았다. 그래서 주자는 차의 철학자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는 무이산의 문공서원(文公書院)에서 『가례』를 완성했으며, 선종의 헌다식을 유교에 응용하여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 헌다식을 하였다(김명배 역, 1984 ; 56).

그는 『주자가례』에서 각종 의례에서 차로써 예를 행하도록 하여 송대(宋代)의 사례(四禮)에는 다례의식이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남송대(南宋代)에 성행한 조주선풍(趙州禪風)과 선승(禪僧)의 음다풍속이 주자의 예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황을순, 1988 : 49).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주자의 시(詩)이다. 남송(南宋)의 주자는 중국의 십대명차가 나는 무이산의 차를 마시며 잠시 망형에 젖기도 하였다. 그는 차를 직접 따서 만들어 길손과 나누기도 하고, 폭포수의 물을 길어 차를 달이면서 시름을 잊기도 하였다. 주자는 「차를 노래함(詠茶)」과 「강왕곡 폭포[康王谷水簾]」에서 봉래산을 그리워하며 무위자연을 꿈꾸고 있다.

무이산 높은 곳은 봉래산이라
신령스런 차 싹 따다가 손수 가꾸었네
외진 땅에 꽃 향기는 절로 나는데
추운 골짜기에 벌 나비 아직 날지 않네
미인이 나그네 유혹하여 머물게 하려는 듯
비단 휘장 활짝 길손에게 열어주네
차 맛보고 취한 마음 어디로 가나
먼 산 굽이굽이 푸른 차밭이라네²⁰²⁾

폭포수 하늘에서 내려와
 산산이 흩어지네
 바위에 부서지며 햇빛에 반짝이고
 벼랑에 떨어지며 바람소리 몰아치네
 빨갭 주워 불 지펴 차를 달이니
 온갖 시름 씻기는 구나
 삼가 옥우님께 감사드리며
 언제 다시 와 노닐 수 있을는지²⁰³⁾

주자는 제자들과 차로 도를 논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힘쓰면 나중에
 편해진다는 삶의 이치를 차에 비유해서 처음에는 쓴맛이 나다가 뒤에 단
 맛이 나는 것과 부합시켜 학문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했다(김길자, 1999
 : 140). 옥우는 강왕곡에서 흘러내리는 곡렴천의 물이 천하제일천(天下第
 一泉)이라고 한 바 있는데, 주자는 옥우·백거이·소식 등이 다녀간 곡
 렴천의 물로 차를 마시며 차를 알게 해준 옥우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주자가례』의 「사당조(祠堂條)」²⁰⁴⁾에는 참례와 천신례는 고사례(告
 辭禮)의 절차에서 차를 올리는 의식이 있다.²⁰⁵⁾ 그 절차에는 차례라는 말
 이 없고 속절즉현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즉 ‘민속명절이면 명절 음식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것을 차례라고 말하게 된 유래는 확실한 기록은 보이
 지 않으나 중국의 고례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의 망참(望參)
 에 다른 음식은 차리지 않고 차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예가 있는 데 “차만
 올리고 예를 드린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례라 말한 것이라(김

202) 주희. 「詠茶」, ‘武夷高處是蓬萊 採取靈芽手自栽 地僻芳菲眞自在 谷寒蜂蝶未全來 紅裳似欲留人
 醉 綿幢何妨爲客開 咀罷醉心何處所 遠山重疊醉成推’.(김길자, 1999 : 139)

203) 주희. 「康王谷水簾」, ‘飛泉天上來 一落散不收 披岩日璀璨 噴壑風颼颼 採薪炊絕品 淪茗澆窮愁
 敬謝古陸子’.(김길자, 1999 : 204)

204) 사당제는 신알례(晨謁禮), 출입필고(出入必告), 정지삭망 즉참례(正至朔望 則參禮), 속절즉현이시
 식(俗節則獻以時食), 유사즉고(有事則告)의 다섯 종류로 나뉜다.

205) 『주자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는 차례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다른 제례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헌작(獻酌)과는 달리 참례와 천신례의 절차는 진설(陳設), 출주(出主, 신주를 내어 모심),
 강신(降神), 참신(參神), 단헌(單獻), 점다(點茶), 사신(辭神), 납주(納主)로 요약된다.(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1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21권)

득중, 1997 : 468)는 의견이 있다(진복선, 2003 : 39). 다례는 차를 올린다는 뜻과 절차를 갖추어 올린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다례가 우리의 독자적 문화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정영선, 2000 : 56).

『주자가례』의 사당조에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한다.”고 하고 “정월 초하루와 동지 및 매월 초하루에는 신위마다 찻잔과 술잔을 각각 하나씩 놓고 주인이 술을 따라 올리고, 주부도 차를 따라 올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달의 보름에는 술을 진설하지 않고 신주도 내놓지 않고 주인이 차를 올린다”고 했다. 정월 초하루, 동지, 매달의 초하루와 보름의 참례 외에도 속절의 절일(節日)에 제철 음식을 올리는 속절즉현이시식(俗節則獻以時食)은 『주자가례』에는 청명, 한식, 단오, 중오(重午), 중원(中元), 중양(重陽)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격몽요결』 「제의초」의 속절의 절일(節日)에는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짇날, 단오, 유두(乳頭), 칠석, 추석, 중구, 납일이고, 『가례집람』에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례편람』에는 청명, 한식, 중오(重午, 重陽)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원단, 추석, 단오, 동지 등의 명절 다례와 생일다례, 가묘다례, 참다례 등을 지냈다.

『주자가례』의 상례 의식 중에는 조전(朝奠)에서 상식(上食), 석전(夕奠),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대상(大祥)까지의 상장례 기간에 다의례를 행하였고, 우제를 집사자가 올리는 것 외 주인 이하가 차를 올리도록 [點茶] 하였다. 조전(朝奠)은 매일 진시(7-9시)에 일어나면 집사자는 영좌 앞의 탁자 위에 채소(蔬), 과일(果), 포(脯), 젓갈(醢), 국(羹), 밥(飯), 차(茶), 술(酒), 시저(匙箸)를 놓는다. 조전의 의식 중에 주인 이하의 점다가 있었다. 상식(上食)은 조전을 철거하고 집사자가 전과 같이 진설하는데, 주인 이하의 점다가 있었다. 석전(夕奠) 때에도 집사자가 구전(舊奠)을 철거하고 전과 같이 진설하며, 주인 이하의 점다가 있었다. 우제(虞

祭) 중 장일(葬日)의 낮에 지내는 초우제(初虞祭)는 복위(復位)와 고리성(告利成) 사이에 집사자가 차를 올리게 되어 있다. 졸곡제(卒哭祭)는 삼우(三虞)가 지난 뒤의 강일(剛日)에 지내는데, 주인 이하 복위와 고리성 사이에 주부의 점다가 있었다. 대상(大祥)은 죽은 지 2년 만에 지내는 의식으로 짐주(斟酒) 다음에 주부의 점다가 있었다.

또한 상례절차의 조전부(弔奠賦)의 의식문²⁰⁶⁾에도 전제에 차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예문과 관련한 『가례강록(家禮講錄)』의 조전부²⁰⁷⁾에서 상례시 예물로 향·차·촛불 등의 제물이 있음을 주석을 달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의(賻儀)예물로 차가 망자의 전제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유교식 다의례

조선시대 모든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조상을 모시는 제사였으며 제사는 조상에 대한 숭배와 효성의 연장이라 하여 조야귀천(朝野貴賤)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예식이었다(한기정, 2003 :83). 즉, 보본반시(報本反始)로서 자손이 선조를 생시와 같이 섬김으로써 계속 효를 실천하는 일은 당연한 정례(情禮)의 표현이었기에 의례에 사용되는 예물의 선택과 올리는 행위는 정성스럽게 행하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제(時祭), 속절제(俗節祭), 기제(忌祭)는 더욱 중요시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 구별 없이 4대조 제를 모시게 하였다.

『용재총화(慵齋叢話)』를 보면 제사에 여러 가지 과일과 떡과 차와 탕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차를 제수(祭需)로 쓴 것은 조선시대, 고려는 물론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206) 『주자가례』 「弔奠賦」, ‘... 奠用香茶燭酒果...’.

207) 金隆. 『家禮講錄』 「弔奠賦韓」.(國精神文化研究院 研究編, 1997 : 34)

갑인(1494)년 봄에 원자(元子)가 탄생하실 때 내가 헌관이 되어 행사를 맡았다. …대개 소격서(昭格署)는 중국 도가(道家)의 행사를 모방하여 태일전(太一殿)에서 칠성(七星)과 제숙(諸宿)을 제사지내는데, …… 헌관과 서원(署員)은 모두 흰옷에 검은 두건으로 채를 올렸고, 또 관(冠)을 쓰고 홀(笏)을 들고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전(祭奠)은 과실·인절미·차(茶)·과자·술이며 분향백배(焚香百拜)한다. 208)

『성호사설(星湖僮說)』 권 6에는 ‘다식(茶食)’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차를 마실 때 다과로 쓰여진 다식(茶食)은 제수(祭需)로 제상에 오르게 되었다.

차란 맨 처음 생겼을 때에는 물에 끓여서 먹게 되었다. 가례에서 쓰는 점다(點茶)는 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잔속에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 솔로 휘휘 젓는 것인데, 지금 일본차가 모두 이와 같다. <중략> 지금 제사에 다식을 쓰는 것은 바로 점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만 남아 있고 실물은 바뀌진 것이다. 209)

이익(李穡, 1681-1763)은 가례에 차가 사용되었으며, 제사에 차를 올릴 때에 ‘점다’라 하였는데, 차는 없고 다식을 쓴 것을 점다라 하여 이름만 전해진다고 하였다. 성호사설의 기록에 의하면 다식은 송나라 때 용봉단차가 변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단차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차 모양[團茶]의 틀에 곡물로 찍어내서 차처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 시대에는 차를 징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차산지로부터 공물로 궁궐에 바쳐졌다(김운학, 1982 : 146-151). 이에 따르는 폐단으로 공다(貢茶)는 백성을 해치게 되어 차 재배의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 또한 차를 지나치게 사치하는 사대부들을 절제시키기 위해 태종 7년 ‘금주다

208) 성현. 『용재총화』 권 2, ‘余爲獻官行此事也大抵昭格署皆憑中朝道家之事 太一殿祀七星諸宿 … 獻官與署員.皆白衣烏布致齋 以冠笏禮服行祭 祭奠諸果餗餅茶湯與酒 焚香百拜’.

209) 이익. 『성호사설』 권 6 <만물문>, ‘茶始煎湯 家禮用點茶 則以茶末投盞中 沃以湯水末擊以筭也 今之倭茶皆如此…今之祭用茶食卽點茶之義 名存而物易也’.

탕지사(禁酒茶湯之事)’를 법령으로 내세워 조정에서 행하는 많은 의례 속에 다의례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의 다의례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밝혔으니, 헌부(憲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헌부의 소(疏)를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청하였다. “헌부(憲府)의 장신(狀申)에 의하여, 각사(各司)의 병술[瓶酒]과 영접(迎接)·전송(餞送), 사신(祀神)·다탕(茶湯)을 병자하여 허비하는 따위의 일은 일절 금지하고, 조반(朝班)과 거리[街里]에서 술에 취하여 어지럽게 구는 대소 원리(大小員吏)를 또한 규찰(糾察)하게 하되, 다만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과 여리(閭里)에서 술을 팔아 살아가는 단한(單寒)한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²¹⁰⁾

왕실의례에서 금주령은 왕실의 제사(기신제, 태종 5년)에도 술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상소를 왕실에서는 그대로 술을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일반 사대부와 서민들의 제례에서는 술의 사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재 이목(寒齋 李穆, 1471-1498)의 전주이씨 한재공파에 전해오는 제례홀기(1673)에는 “계문 후 초헌관이 갹을 물리고 차를 받들어 양위전(兩位前)에 나누어 올린다”²¹¹⁾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제사 홀기의 내용은 생전에 차생활을 한 경우에는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시는 제례에 차를 올렸을 것이며, 그 만큼 차가 생활화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제자 정도가(鄭道可)와의 문답에서 “차는 고인이 상용하는 고로 제사에 역시 이를 사용한다. 지금은 드물게 점다하는데 어찌합니까?” 하니 “요즘 사람들이 올리는 탕수가 옛날 차를

210) 『태종실록』 7년 8월 27일, ‘申禁酒令. 從憲府之請也. 上下憲府疏於政府擬議, 政府請: “依憲府狀申, 各司瓶酒及迎餞祀神茶湯, 依憑糜費等事, 一行禁理; 朝班街里沈湎迷亂大小員吏, 亦令糾察, 惟老病服藥及閭里單寒買賣資生者, 不在此限.” 從之’.

211) ‘乃啓門獻官以下皆降復位 初獻官升詣位前 徹羹奉茶 分進兩位前’. (최진영, 2003 : 15-16)

올리는 의미이다”²¹²⁾ 라고 답하고 주부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물으니 주부의 제사 참여가 좋다고 하였다. 당시인 명종(明宗, 1545-1567) 때에는 중국사신의 접빈과 왕실의 다례가 차로 행해졌음에도 퇴계가 예서에 그와 같은 기록을 한 것에 대하여 정영선(2000 : 87)은 당시의 작설차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쌌으며, 『주자가례』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려면 대다수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퇴계는 차를 구하기 어려웠던 때인데도 집에 준비해 두고 ‘손님에게 차만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다(전완길, 1987 : 22). 전완길은 퇴계는 차생활을 하였으나 정영선과 같은 생각으로 의례를 행할 때에 구할 수 있는 것을 올리라는 의미에서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사료된다.

울곡(栗谷 李珣, 1536-1584) 의 『격몽요결』 「제의초(祭儀鈔, 1577)」 시제의(時祭儀) 참례의(參禮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식(侑食) 후 갱(羹)을 물려 퇴하고 주인 주부가 차를 받들어 고비전(考妣前)에 나누어 나아간다. 혹 숙수로 대신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함께 모셔진 다른 위패에도 여러 자제와 부녀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차를 올리게 한다.²¹³⁾

상고하건데, 『가례』를 보면 보름날에는 신주를 내모시지도 않고 술도 올리지 않으며 다만 차를 올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 차를 쓰는 예는 없다. 마땅히 보름날에도 신주를 내모시지 말고 다만 독만 열어 놓을 뿐 술도 올리지 말고 향만 피워서 차등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²¹⁴⁾

212) 이항. 『퇴계집』 「답정도가」 <問目>, ‘茶是古人常用 故祭亦用之 今既罕用點茶 何以爲之 今人進湯水 是古進茶之意’.

213) 이이. 『격몽요결』 「제의초」 <時祭儀>, ‘奉茶或代以熟水 分進于考妣之前 徹羹而退 有祔位 則使諸子弟 衆婦女分進’.

214) 이이. 『격몽요결』 「제의초」 <參禮儀>, ‘按家禮, 望日則不出主 不設酒 只設茶 今國俗無用茶之禮 當於望日 不出主 只啓櫝 不酌酒 只焚香 使有差等’.

『가례집람』의 「도설」 부분에 정지삭일속절출주독전가중서립지도(正至朔日俗節出主櫝前家衆紘立之圖)에는 정월초하루와 동지, 초하루와 속절에 차례를 올릴 때에는 차와 술과 과일을 올리고 있으며, 망일불출주도(望日不出主圖)에는 보름에 신주를 내 모시지 않고 차와 과일만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²¹⁵⁾. 제기도(祭器圖)에는 제사를 올리는 데 필요한 제기들의 그림과 설명이 있는데, 제기도에 보이는 다기는 병(餅), 다선(茶筴), 찻잔(茶盞), 다탁(茶托)이다. 제시된 그림을 볼 때 다선은 자루가 긴 모양으로 병에 넣어 차를 고르게 하여 찻잔에 따르고 다탁에 올려 헌다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사상이나 관분, 술 주전자 등은 중국을 모방하였으나 배교, 축판, 다선과 찻잔받침은 내가 생각으로 추측해서 그린 것이다.²¹⁶⁾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참례와 천신례는 모두 사당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례는 일반적으로 정침(正寢)의 대청에서 지내고 있고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는 주부와 맏딸 등 여자들이 참여하여 여자조상들의 신주를 내어 모시거나 들어내고 출주와 납주, 점다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차례에서는 여성들의 제사 참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李緯 陶庵., 1678-1746)는 『사례편람』²¹⁷⁾을 보면 “ 차는 본래 중국에서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풍속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차를 준비한다거나 차를 따른다는 등의 글은 모두 삭제했다²¹⁸⁾ 하고 ‘차례’의 절차에 나

215) 김장생, 『사계전서』 권 24 「家禮輯覽圖說」, <正至朔日俗節出主櫝前家衆紘立之圖>, <望日不出主圖>

216) 김장생, 『사계전서』 권 24 <家禮輯覽圖說> <祭器圖>

217) 조선후기의 학자 정치가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관혼상제의 사례(禮)에 대한 저술을 『儀禮』, 『禮記』, 『家禮』, 『喪禮備要』의 예서와 司馬溫公, 文中子, 程子, 金長生,, 宋時烈 등 諸家の 예설 및 예제와 시속을 보충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저술(1844년)한 예서이다.

218) 이재, 『사례편람』, 권 8 祠堂條, ‘茶是中國所用而 國俗不用故設茶點茶等文一拜剛去’.

와 있는 ‘설다(設茶)’. ‘점다’ 와 같은 글귀는 홀기(笏記)에서 뻗 것으로 보면 당시에 차례에 차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조의 명으로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지은 농업서적인 『사시찬요(四時纂要)』의 누에치기(養蠶) 조에는 “잠신(蠶神)에게 제사지내는 법은 정월 초닷셋날 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잠실은 오방(午方 정남(正南))에 있어야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향(香)과 음식을 갖추고 누에를 칠 여인을 시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때 술 대신 차를 사용한다.”²¹⁹⁾라고 하여 누에치기를 하는 부녀자들이 제주(祭主)가 되어 잠신에게 다의례를 올렸다고 한다.

1560년대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이문건(李文健, 1535-1567) 집안에서도 거르지 않고 생일다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경숙, 2000 : 23-24). 생일다례를 생휘일제(生諱日祭) 또는 생기일제(生忌日祭)라고도 하는데, 망자(亡者)가 태어난 날에 지내는 제사로 대상은 고비(考妣)로 한정되었다. 이는 『주자가례』에도 나와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형태로, 조선전기까지만 보이고 후기에는 거의 사라졌다. 사실 유교적인 예제에는 원칙적으로 생일다례는 없다. 이문건도 생일다례가 예에 벗어난다고 하였으나情理(情理)상 후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만두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일다례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잠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나 생일다례를 준비한 것을 보면 속절이 아니어도 양잠이 잘 되기를 기원하거나 조상을 생각하는 효의 마음 등이 제사로 행해지면서 여성들이 준비하고 담당해야 할 제사가 다양했으며 당시로서는 그 의미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주자의 학문이 중심이 되면서 사대부들은 『주자가

219) 강희맹. 『사시찬요』, ‘祀蠶神 月初五日祀蠶神 室當午處 具香食餅 令蠶婦禱祀 用茶代酒’.

례』를 받아들여서 주석과 해설을 붙여 『가례집람(家禮輯覽)』, 『가례증해(家禮增解)』, 『가례언해(家禮諺解)』 등 10여종의 가례 주석서를 펴내는가 하면 『주자가례』와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비교 연구하여 『사례편람』을 저술하였고, 민간에서 준용되었던 유교식 제례의 종류와 절차, 내용을 『광례람(廣禮覽)』에 담았다.

주요 규범들이 조선초기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규범대로 제례에 다의례를 행하려 하였으나, 조선 중기로 갈수록 차를 구할 수 없어 폐하거나 물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의례의 격식은 더욱 발달하는 기현상을 빚었다(박숙희, 1994 : 50). 그러나 차 대신에 다른 것을 올리더라도 ‘헌다(獻茶)’의 의미와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명칭까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민간의 차생활

민간의 차생활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신라의 최치원이다. 최치원(崔致遠, 857-894-?)은 12세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18세에 진사가 되어 당나라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28세에 조서(詔書)를 받들고 신라로 와서 부성태수까지 역임하였다. 그가 남긴 차에 관한 기록은 당나라에서 쓴 것이고, 비석문으로 남긴 것은 신라에서 쓴 것이다.

하물며 고국의 사신이 없어 집에 보낼 편지를 부치기도 어려워서 오직 척호(陟岵)의 시를 읊으며 바다를 건너가는 기별편을 만나지 못하다가 본국의 사신을 태운 배가 바다를 지나가기에 차와 약을 사서 집에 편지를 부치고자 하오이다.²²⁰⁾

최치원이 당(唐)에 있을 때 본국 사신의 배편으로 와 차와 약을 사서 부

220) 최치원. 『계원필경』 권 18 <謝探請料錢狀>, ‘況又無鄉使 難附家書 唯吟陟岵之詩 莫遇渡溟之信 今有本國使船過海 某欲買茶藥.’

모님께 보낸 기록은 일부 귀족들에게 차는 일상용품으로 귀하게 여기는 선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여럿이 모여 같은 뜻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모임을 조직하여 차를 마시며 시도 지으며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끼리 모임을 갖거나 왕이 참석하는 기사(耆社)도 있다. 또한 차를 마시며 선 수행을 했는데 세종 때 선비들은 선사(禪社)를 만들어 삼각산의 진관사 등에서 차를 마시며 학업을 닦았다. 민간에서의 차생활은 접빈에서, 수신의 도구로, 다선일미의 경지로 차는 정신적인 생활의 하나였다. 관리들의 차생활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여성과 서민들은 많지 않지만 소박한 삶과 소중한 기원을 차생활에 담았다.

1) 접빈의 차생활

고구려는 차가 생산되는 국가는 아니나, 중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했으며 중국의 역대조(歷代朝)와 국교를 맺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다문화의 전파가 빨랐을 것이다. 1940년에 발굴된 만주 집안현 통거우에 위치한 고구려 무덤인 무용총(舞踊塚)의 북벽(北壁)에는 접객도(接客圖)가 그려져 있다.

당시의 고구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이 벽화는 두 분의 고승을 초청하여 법문을 들으며 차와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벽화는 고구려의 음다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차를 마신 계층이 적어도 귀족이었고 일반 가정 내에서 차를 즐겼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차 대접은 최상의 예우의 표현이었고 고구려에서는 공경의 음료로 여겨졌으며, 차 시중을 드는 시녀나 시종들이 차를 달여 가져온 것은 손

님 앞에서 차를 직접 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벽서를 통해서 본 귀족층의 음다 흔적은 고구려에서 음다문화가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문헌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귀족과 문인사회에도 차가 접빈을 위해 사용되는 풍속이 성행하여 명석(茗席, 찻자리)을 마련하여 차를 마시며 차시(茶詩)를 나누며, 차에 대한 칭송을 하며, 담소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다인들은 우리 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여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손수 차를 끓여 마시며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시대의 문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다례는 여염집에 문득 찾아오거나 초청한 손님에게 차를 접대하는 것인데 『난파선생시권(蘭坡先生詩卷)』의 후서(後敍)에 손님맞이 다례의 좋은 예가 보인다.

손이 오면 반드시 물 뿌려 쓸고 향불을 피우고는 술상을 베풀고 茶를 달여 놓고, 시를 지으며 서로 부르고 수답하였으며, 술자리가 한창 즐겁게 어울리면, 혹은 계집종으로 하여금 거문고도 뜯고 시도 짓게 하여 환락을 흠족히 한 연 후에 파하였으나, 난잡한 데에 이르지 않는었다. 221)

권근(權近, 1352-1409)은 난파선생의 인품에 대하여 시문(詩文)에 능하고 지취가 매우 높아서 진실로 그가 허여하는 사람이 아니면, 비록 능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이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손님이 왔을 때 정성을 다하고, 차를 마신 후에 술을 마셨는데, 취하도록 마시지 않음을 칭송하였다. 또한 차와 술로서 일어난 시흥(詩興)은 자연 시를 짓게 하였으니, 그 당시의 선비들의 흔치않은 모습을 후서(後序)에 기록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의 상류사회 선비들은 차생활과 일상생활이 단아하고 세속에 초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문인과 승려들의 차생활이 다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차의 참 맛을 알려 하였으며, 그것이 3장에서

221) 권근. 『양촌집』 「書蘭坡先生 詩卷後」

언급한 ‘명전회(茗戰會)’라는 풍속을 생겨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차를 귀한 선물로 교환하거나, 상당수의 차시(茶詩)를 남겼다.

다문화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에 투다가 생기면서 차를 마시는 데 중요한 것이 차만큼 좋은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좋은 물을 구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여말선초의 이행(騎牛子, 李行, 1352-1432)은 어느 날 상곡(桑谷)의 위생당(衛生堂)을 방문하였다. 상곡이 지은 조촐하고 작은 집(위생당)에서 이행은 상곡의 차를 대접받았다.

상곡이 공도공(恭度公)으로 창 밖에서 차를 달이게 하였는데, 찻물이 넘쳐서 다른 물을 더 부었더니 이공이 맛을 보고서 “이 차에는 네가 두 가지 날물을 보냈구나.”라고 하였다. 이공은 능히 물맛을 가렸는데, 충주의 달천(達川水)을 첫째로 뽑고, 한강의 우중수(牛重水)를 둘째로 뽑고, 속리산의 삼타수(三陀水)를 셋째로 뽑았다.²²²⁾

이행은 차를 우리기에 좋은 물을 가렸는데, 달천수와 우중수와 삼타수라 하였다. 당나라의 장우신(張又新)은 『전다수기(煎茶水記)』에서 중국에서 차를 달이기에 알맞은 물을 20등급으로 매긴 육우와 이계경(李季卿)의 일화를 전하였고²²³⁾, 장원(張源) 『다록(茶錄)』에도 좋은 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²²⁴⁾, 이것은 차를 우리는 데 있어 물을 감별하는 것[品泉]은 아주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 1435-1493)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종 10년(1465)에서 성종 2년(1471)까지 경주의 금오산에서 은거하였다. 그는 금오산에서 차나무를 가꾸어 차를 만들어 마셨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222) 이행. 『기우집』 권 2 「유사척록(遺事摭錄)」, ‘桑谷令恭度公烹茶於牕外 茶水溢 更添他水 公嘗之曰 此茶必添二生水 公能辨水味 以忠州達川水爲第一 漢江中之牛重水爲第二 俗離山之三陀水爲第三’.

223) 장우신. 『전다수기』, ‘夫茶烹於所產處 無不佳也 蓋水土之宜 離其處 水功其半 然善烹潔器 全其功也’.

224) 장원. 『다록』 「品泉」,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莫顯其神 非精茶具窺其體’.

선사하였다. 육우는 차를 만들어서 마실 때에 어려움으로 아홉 가지를 말하였다²²⁵). 그러나 매월당은 차 심기에서 마시기까지의 열 가지 어려움[十難]을 수련한 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명배, 1999 : 188).

해마다 차나무에 새 가지가 자라는 데
그늘에 키우노라 울을 엮어 보호하네
육우는 다경에서 빗깔과 맛을 논했는데
관가의 과세에는 창기만을 취한다오
봄바람이 아직 불지 않아도 퍼진 싹이 먼저 싹트고
곡우초가 돌아오면 잎이 절반 열리네
작은 동산 한난한 곳 즐겨 향하면
비 때문에 옥같은 꽃술 불어도 무방하리²²⁶)

위의 「차 기르기(養茶)」에서 조선초기의 차밭에서 차의 해가림 재배를 하였다는 것과 관청에 바치는 공차(貢茶)는 기창(旗槍)²²⁷)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²⁸).

손님을 초빙하여 다회를 베푼 예를 다음의 「작설(雀舌)」이라는 다시(茶詩)에서도 볼 수 있다.

남국에 봄바람 가벼이 부니
차나무 잎 밑에 뽀족한 부리 들어 있네.
가려 탄 눈아(嫩芽)는 신령스러움에 통하고
맛과 품격은 일찍이 다경에 실려있네.

225) 육우. 『다경』 「六之飲」, ‘茶有九難. 一曰造 二曰別 三曰器 四曰火 五曰水 六曰炙 七曰末 八曰煮 九曰飲’.

226) 김시습. 『매월당집』 권 20 「養茶」, ‘年年茶樹長新枝 養編籬謹護持 陸羽經中論色味 官家權處取槍旗 春風未展芽先抽 穀雨初回葉半披 好向小園閑暖地 不妨因雨着瓊蕤’.

227) 기창차(旗槍茶)는 한 싹에 한 잎이 달린 일창일기(一槍一旗)나 한 싹에 두 잎이 달린 일창양기(一槍兩旗)의 차를 가리킨다.

228) 차나무의 해가림 재배를 하면 찻잎의 광합성을 억제하여 아미노산류를 늘려 단맛을 늘리고 떫은맛인 커테킨류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차잎이 한 잎이나 두 잎 정도 나올 무렵 채엽부위 95-98%의 차광막을 씌워 재배하는 방식이 1834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시작되었다.

자순은 잎과 싹 사이에서 따고
 봉병차와 용단차는 그 모양이 아름답구나.
 벽옥의 차관에 활화로 끓이면
 게 눈이 처음 생기고 다음으로 솔바람 소리 들려온다.
 산당의 고요한 밤에 손과 둘러앉아
 운유차를 한 잔 마시니 두 눈이 밝아지네.
 산집에서 잔을 비우는 사람은 멋없는 사람
 어찌 승설차의 맑음을 알 수 있으랴.²²⁹⁾

김시습은 자신의 산실(山室)로 문인들을 초대하는 것을 즐겼는데, 예를
 갖추어 손님을 초대하여 운유차(雲腹茶)를 눈을 녹여서 차를 달여 마시는
 운치를 적고 있다. 그는 차와 손님과 다담자리가 간절히 지속되기를 간절
 히 바라는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인들은 계회를 조직하여 차를 마시며 시도 짓고 결속과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계회란 공통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술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시도 읊고 풍류를 즐기는 모임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끼리의 모임이 있고 다신계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왕이 참가하는 기사도 있었다. 계회도는 계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계회의 장면을 그림을 그려 나누기도 하였고, 시를 이어짓
 기도 하였다. 다음은 한 모임에서 시를 이어 짓기를 한 것이다.

이침이 먼저 시를 읊기를,
 깊은 봄에 즐겨 노는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모여 마음 속을 말하기 위함이네
 매화도 또한 우리들의 뜻을 알아 주는지
 먼저 빛을 차지하여 향기를 보내오네

229) 김시습. 『매월당집』 권 5 「雀舌」, ‘南國春風軟欲起 茶林葉底含尖靨 揀出嫩芽極通靈 味品曾收
 鴻漸經 紫筍抽出旗槍間 鳳餅龍團徒範形 碧玉甌中活火烹 蟹眼初生松風鳴 山堂夜靜客圍坐 一啜雲腹
 雙眼明 黨家淺斟彼粗人 那識雪茶如許清’.

승종이 차운하여 읊기를,
9일 동안 바빴다가 10일 만에 찾으니
지난날의 회포는 그리움에 몇 번이나 애태웠던가
차가운 매화와 맛있는 대[竹]가 맑은 모습을 같이 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내온(內醞 궁중(宮中)의 술) 향기에 취하였구나

희분(希奮)이 읊기를,
그대는 한가하고 바쁨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철석 심장(鐵石心腸)이 더욱 굳기만 원할 뿐이네
오얏은 회고 복숭아는 붉은 것을 모두 상관할 것 없으니
겨울철에 지조 지켜 성명(姓名)이 향기롭기를 기약할 뿐이지

이각은,
소리(小吏)들아 숙직이 바쁘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 진정(眞情)일세
정원에 가득히 피어 있는 도리(桃李)는 볼수록 좋은데
겉에서 웃어 주고 말하는 기생이 없음이 한스럽도다

이창후(李昌厚)는 읊기를,
동궁(東宮)에 예(禮)를 마치자 문에 나오기 바빴으니
신선의 차(茶)를 얻어 뱃속을 적시기 바라네
이 모임이 응당 우연이 아니겠지
만난 이 장소에서 작은 매화 향기를 기억해야 하네²³⁰⁾

이 모임은 1636년 대북(大北)과 소북(小北)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연을 베풀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다. 광창(廣昌) 부원군 이침은 대북당(大北黨)의 괴수이고, 밀창(密昌) 부원군 승종과 문창(文昌) 부원군 희분은 소북당(小北黨)의 괴수이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일컫는 ‘삼창(三昌)’이다.

230) 이공익. 『연려실기술』 제 21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 ‘不是深春樂事忙 只要相會話心腸 梅花亦解吾人意 先占天香送暗香 ▶ 十日相尋九日忙 向來懷抱幾回腸 梅寒竹秀同清標 盡醉芳樽內醞香▶憑君休道異閒忙 但願彌堅鐵石腸 李白桃紅都不管 歲寒期保姓名香 ▶小吏休言直宿忙 吾儕說話摠肝腸 滿園桃李看看好 只恨傍無笑語香 ▶ 冑筵禮罷出門忙 請得仙茶潤肺腸 此會應知非偶了 逢場須記小梅香’.

이각과 이창후는 대북당이였다. 두 북당이 서로 물과 불보다 심하게 공격하였는데, 이경전(李慶全)이 두 당과 사이를 조정시키려고 대비를 폐하자는 의논에 협력하게 만들어 이와 같이 화해는 시켰으나, 그 후에 더욱 심했다고 한다.

2) 수신의 차생활

강릉의 경포대 및 한송정에는 사선(四仙)의 무리가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하였던 다구가 고려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곡(李穀, 1298-1351)은 동해안 지방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 『동유기(東遊記)』에 사선(四仙)의 다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포대에는 옛날 국선의 석조(石竈)가 있는데, 대개 차를 다리는 도구다. …… 한송정 역시 사선이 노닐던 곳인데, 고을 사람이 유람자(遊覽者)가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집을 철거해 버렸고, 소나무 또한 들불(野火)에 타 버렸다. 다만 석조 및 석지(石池), 그리고 두 개의 석정(石井)이 그 곁에 남아 있을 뿐인데, 역시 사선의 다구다.²³¹⁾

이 기록으로 사선들은 야외에서 찾자리를 가졌으며,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를 잘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 다구를 이용하여 즐긴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의 차생활에 필요한 석지조는 14세기 전반 묘련사(妙蓮寺)에 전해지는 석지조(石池竈)와 유사한 것으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묘련사의 순암 법사가 찾자리를 벌이고 그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옛날에 쓰던 석지조를 가져와 그 내력을 설명하고 차를 한 잔씩 마신 후에 그 석지조의 내력을 다 설명하고 익제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함에 익제는 『묘련사석지조기(妙蓮寺石池竈記)』를 지었다.

231) 이곡. 『가정집』 「東遊記」, ‘臺舊無屋 近好事者爲亭其上 有古仙石竈. 蓋煎茶具也…飲餞于寒松亭 亭亦四仙所遊之地 郡人厭其遊賞者多 撤去屋 松亦爲野火所燒 惟石竈石池二石井在其旁 亦四仙茶具也’.

순암법사(順庵法師)가 …… 한송정을 구경하였는데 거기에 석지조가 있었다. 그 고장 사람에게 물어보니 옛 사람들이 차를 다려 마시던 것인데 어느 시대에 만들었는지는 몰랐다. 법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릴 때 묘련사에 두 개의 돌이 풀 속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동해안에서 본 사선(四仙)의 다구유물은 묘련사에 남은 두 바윗덩이와 같다. 하나는 샘물을 담은 것이며, 또 하나는 두 군데가 오목하게 패어 있는데, 둥근 곳은 불을 두는 곳이고, 원형에는 물을 담아서 찻그릇을 씻는 곳이며, 또한 구멍을 내어 둥근 데와 통하였으니, 이는 바람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름하여 석지조기라고 한다.²³²⁾

위의 기록으로 보면 석지조는 화랑들이 풍경 좋은 산수를 찾아 유람하면서 차를 달여 천신(天神)에게 공양하고²³³⁾ 차생활을 하면서 고행과 수행을 할 때 꼭 필요한 다기임을 알 수 있다. 통일 직후인 7세기 말 신라 특유의 다구가 있었다는 것은 화랑 뿐 아니라 신라의 음다풍이 이미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세 사람들은 회자하면서 차생활을 즐겼는데, 고려의 문장가인 김극기(金克己, 1148-1209)와 안축(安軸, 1287-1348)은 한송정에 관한 시와 이곡(李穀, 1298-1351)의 동유기(東遊記) 등으로 알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의 다도는 산천을 유람하면서 수도와 수행생활의 연속이므로 한 잔의 차는 정신수양을 하는데 유익하였을 것이다(석성우, 1981 : 70). 화랑이 다도를 수련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꽃처럼, 미륵부처처럼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려는 수련수단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의 다도수련으로 포괄성 있는 덕을 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다도란 형이하학적으로는 몸을 수련하는 것이고, 형이상학적으로는 마음을 수련하는 양면의 효과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232) 이제현. 『익제난고』 <妙蓮寺石池竈記>, ‘三藏順菴法師奉天子之詔 祝釐于楓岳之佛祠 因游寒松之亭 其上有石池竈焉 訊之士人 蓋昔人所以供茗飲者 而不知作於何代 師自念曰 幼時嘗於妙蓮寺 見二石草中 想其形製 豈此物耶 及歸 物色而求 果得之 其一 方剗之如斗爲圓 其中如臼 所以貯泉水也 下有竅如口 啓以洩其渾 塞以畜其清也 其一則有二凹 圓者所以厝火 橢者所以滌器 亦爲竅差大 以通凹之圓者 所以來風也 合而名之 所謂石池竈也’.

233) 나라를 걱정하는 화랑들이 오악·삼신의 산신과 같은 산악승배의 토속신을 받들었던 재래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권태원, 2001 : 48)

다.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서경 사상(西京使相) 이용헌(李容軒) 공이 돌솥을 선물했기에 시로 보답하다.(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碬以詩答之)」라는 시를 통하여 고려 문인들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다.

산 샘물에 차를 넣고 불 지펴 달여 놓으니
한 잔을 마시자 선골이 되려 하네.
어찌하면 집집마다 이 맛을 분배하여
앉아서 천하의 비린내를 씻어 내지²³⁴⁾

변계량은 차 마시는데 필요한 돌솥을 선물 받고 차를 달여 마시면서 자신이 신선이 되고자 하였으며, 세상의 어지러움을 차로 씻어 내려 한다.

다도에 역리를 처음 도입한 것은 육우이다. 그는 역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짓고 풍로에도 적용하였다(김명배, 1984 : 286). 『다경』에는 풍로의 세 다리 중 한 다리에 옛 글씨체로 위에는 불(坎), 밑에는 바람(巽), 가운데는 불(離)을 쓰고, 한 다리에 몸은 오행(五行, 木火土金水)의 요소가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건강해진다고 하며 오행을 가지런히 하여 백 가지의 질병을 물리친다고 적었다. 풍로의 칸막이에 각각 불을 상징하는 꿩과 불괘(☲), 바람을 상징하는 표범과 바람괘(☴),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물괘(☵)를 그려 넣었다.²³⁵⁾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역경읽기(讀易)」와 「돌솥에 차 달이기(石鼎煎茶)」에서 역리를 도입하였다.

돌솥의 차는 비로소 끓고

234) 변계량. 『춘정집』 권 4 「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碬以詩答之」, ‘香活茶火煮山泉 一椀才傾骨欲仙 安得家家分此味 坐令天下洗葷羶’.

235) 육우. 『다경』 「四'之器」, ‘一足云 坎上巽下離于中 一足云 體均五行去百疾 …其一格有翟焉 翟者 火禽也 畫一卦曰離 其一格有彪焉 彪者 風獸也 畫一卦曰巽 其一格有魚焉 魚者 水蟲也 畫一卦曰坎 巽主風 離主火 坎主水 風能興火 火能熟水 故備其三卦焉’.

풍로불은 빨갱게 피었구나.
물불은 천지의 쓰임이니
곧 이 뜻은 무궁하도다.²³⁶⁾

『역경』의 설괘전에 감리(坎離)의 괘는 불·물이다. 정몽주의 시에 보이는 감리는 천지(天地)를 뜻하는 건곤(乾坤)으로 차를 우리기 위한 물의 끓음을 주역으로 해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 청홍을 제외한 네 괘를 말하고 있다(김동욱, 1998 : 21). 시의 내용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데 불을 피우고 차를 끓인 것인데 시 제목을 역경이라 한 것은 천지의 정기를 느끼는 역리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에 보답할 공도 없는 늙은 서생이
차 마시는 버릇만 늘어 세상 물정에 어둡네.
눈보라 치던 밤에 홀로 누워서
즐겨 듣느니 돌솥의 솔바람 소리라네.²³⁷⁾

포은이 노년기에 그윽한 산골을 찾아 홀로 자연을 벗 삼아 과거사를 회상하고 그 당시의 세정을 한탄하면서 지은 시이다. 포은은 항상 나라를 위한 충성심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포은은 그 자신이 청산과의 완전 동화된 현상 속에서 자아의 희열을 담았으며, 체험의 자기관을 산심(山心)에 묻고 자연과 동숙(同宿)하고 있는 것이며 자연과 대화하고 있는 시이다(임환주, 1981 : 88).

이조참판까지 지낸 신위(申緯, 1769-1845)의 다옥²³⁸⁾에 대한 시이다.

236) 정몽주. 『포은선생문집』 권 2 <讀易>, ‘石鼎湯初沸 風爐火發紅 坎離天地用 卽此意無窮 以我方寸包乾坤 優游三十六宮春 眼前認取畫前易 回首包羲迹已陳’.

237) 정몽주. 『포은선생문집』 권 2 <石鼎煎茶>, ‘報國無效老書生 喫茶成癖無世情 幽齋獨臥風雪夜 愛聽石鼎松風聲’.

238) 대개 떠나 역새나 짚으로 지붕을 이른 초가집으로 草堂, 草廬, 茅屋, 茅齋, 茅菴등으로 표현한다. 초당은 사대부의 기와집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서 역새나 벗집으로 이른 지붕에 흙벽으로 만든 조그만 집으로 주로 공부방으로 따로 지었다.

오난설(吳蘭雪)에게 보내는 답시

내 오두막은 소쇄하게 왕성에 숨어있고
거느림채 아래 남산에는 이내가 가로 끼었네
돌을 두른 목지(먹물 씻는 연못)는 비 올 기미 머금었고
창 앞의 갈대 잎은 가을 소리 도와주네
손님이 오니 다옥에 외로운 연기 피어나고
공직에서 물러나 사는 이끼 낀 뜨락에는 두 학이 노네
약한 사람이 티끌세상에서 늙은 것을 웃지마오
물러난 사람의 삶은 보통 유생과 같구나(권경렬 역, 1988 : 88)

조선시대 문인들은 대체로 대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차를 즐겼다. 문인들은 선비정신인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차생활을 하였다. 다옥(茶屋)은 작고 소박한 초당(草堂)이었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는 방이 작고 좁아서 누실(陋室)이라 이름 짓기도 하였다.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한 솥은 신라의 화랑이 사용한 석지와 석조, 진감국사가 사용한 석부(石釜), 묘련사에 있던 석지조, 포은이 사용한 석정(石鼎) 등 모두 돌로 만든 다기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 물을 끓일 때에 돌이 적합한 재질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3)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차생활

고려의 문인들은 자연에서 차를 마시며 스스로 취해 자신을 잠깐 잊는 무위자연의 차생활에 대한 시(詩)가 있다. 이규보는 “강가를 방랑하니 저절로 형체를 잃네”²³⁹⁾라고 하였고, 임서하(林西河)는 “무너지듯 평상에 누우니 문득 형체를 잃네”²⁴⁰⁾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숭인(李崇仁)은 “담쟁이덩굴 무늬 옷과 흰 장삼 차림에 이미 형체를 잃네”²⁴¹⁾ 등이 있다. 망형(忘形)이란 자신의 형체를 잊고 무위자연의 도(道)를 깨치는 것으로서 망기(忘機)

239) 이규보. 「빈 강의 촌집에 묵다(宿瀕江村舍)」, ‘江邊放浪自忘形’.

240) 임서하(林西河). 「차집에서의 낮잠(茶店晝眠)」, ‘頽然臥榻便忘形’.

241) 이숭인(李崇仁). 「신효사 감스님방을 적다(題神孝寺堪師房)」, ‘蘿衣白衲已忘形’.

또는 좌망(坐忘)이라고도 한다. 좌망이란 단정하게 앉아서 잡념을 떨쳐 버리고 무차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던 이규보는 차를 마시는 일이 참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는 「장원 방연보의 화답시를 보고 운을 이어서 답하다.(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라는 시에서 다선일미를 말하고 있다.

초암의 다른 날 선방을 두드려
몇 권의 오묘한 책 깊은 뜻을 토론하리.
늙기는 했어도 오히려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한 사발은 곧 이것이 참선의 시작이라네. 242)

이규보는 손수 차를 달이는 것을 좋아하였고 차를 마시기 위한 일체의 일(茶事)을 참선이라 여겼다. 이러한 다선일미의 정신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도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이제 산집을 찾는 것이
술 마시기가 본뜻이 아니건만
올 때마다 마실 자리 베푸시니
얼굴 두꺼운들 어찌 땀이 나지 않겠소
스님의 인격이 진실로 높은 것은
오직 이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네.
곧잘 몽정차(蒙頂茶)를 혜산(惠山)물로 달여
한 사발에 문득 한 마디
점점 심오한 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네
이 즐거움 진실로 맑은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어지럽게 취할까 보나.243)

24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3 「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 ‘草庵他日叩禪居 數卷玄書討深旨 雖老猶堪手汲泉 一甌卽是參禪始’.

243)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 <古律詩> 「訪巖師」, ‘我今訪山家 飲酒本非意 每來設飲筵 顏厚得無泚 僧格所自高 唯是茗飲耳 好將蒙頂芽 煎却惠山水 一甌輒一話 漸入玄玄旨 此樂信清淡 何必昏昏醉’.

위의 시에서 ‘스님이 인격이 높은 것은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네’라고 한 것은 인간의 인격과 차와의 관계를 결부시킬 만큼 차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유명한 몽정차를 뛰어난 혜산의 물로 다려 마시면서 다담선(茶談禪)이 이루어지는 그윽하고 묘한 경지에 빠져들어 다도삼매의 경지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정상구, 1995) 고려시대의 사원에서는 일반인들이 방문하면 술대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술을 좋아했지만 차를 마시고 나누는 다담이 술과 견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추사는 예술가, 학자 뿐 아니라 다인의 품모를 갖춘 선학자(禪學者)였다. 그는 젊은 시절 연경(燕京)에서 맛본 승설차²⁴⁴(勝雪茶)를 못 잊어 승설도인(勝雪道人)이라는 호를 즐겨 썼다. 훗날 완당이 제주도에 귀양 갔을 때(1840-1848) 초의는 제주도에 찾아가 같이 지내며 차나무도 심고 참선도 하였다. 추사는 「참선과 다 끓이는 일로 한해를 보냈다」는 말이나 초의에게 ‘명선(茗禪)’과 ‘일로향실(一爐香室)’을 써서 주기도 하였는데, 명선은 초의의 호로 추사가 지어 보낸 것이고(박동춘, 2004 : 40)²⁴⁵, 일로향실은 편액이다. 명선과 함께 「초의가 손수 만든 차를 보내어 왔는데 그 제다(製茶) 솜씨를 칭찬하고 글로써 이를 보답한다」(김명배, 1997 : 28)는 글도 함께 보냈다.

고요히 앉아 차를 반쯤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음이어
묘용의 때에
물은 흐르고 꽃은 피누나.(김명배, 1997 : 30)²⁴⁶

244) 승설(勝雪)은 북송의 선화2년(1120)에 조신(漕臣) 정가간(鄭可簡)이 은선수아(銀線水芽)를 창안하고 방촌신과(方寸新銙)를 만들어 그 위에 꿈틀거리는 용을 그려 넣어 용단승설(龍團勝雪)이라 칭하였다. (참조:宣和北苑貢茶錄) 이런 종류의 차가 당시 북송의 조정으로부터 고려 조정에 보내왔고 매대도 이루어진 것은 『고려도경』에도 실려져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김정희가 연경에서 마신 후 승설의 풍미를 좋아하며 스스로 승설이라 이름하였다.

245) 黃裳. 「걸명시」, ‘茗禪佳號學士贈 草衣茶名廳先生’.

246) ‘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

위 시는 추사가 즐겨 쓰던 차의 선귀(禪句)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번역되고 회자되었다(김명배, 1997 : 30-35). 최범술은 이 선귀의 드높은 경지는 원문대로 음미하는 것이 좋다. 번역을 하면 비단을 뒤집어 놓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진실로 다도용심(茶道用心)은 이러한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최범술, 1980 : 44-45).라고 하여 추사의 선의 경지를 그대로 이해하기를 강조 하였다.

중이 와서 초의의 서한을 전하고 또 다포(茶包)도 전해주었네. 이곳의 샘맛은 바로 관악산(冠岳山) 한 맥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두륜산(頭輪山)에 비하면 갑을(甲乙)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공덕(功德)의 삼사(三四)는 있겠기에 빨리 보내온 차를 시험해 보니 샘 맛도 좋고 차 맛도 좋아서 바로 한 조각 회환의 인연이었네. 이는 차가 그렇게 만든 것이요 편지로 그런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차가 편지보다 낫단 말인가? 더구나 근일에는 일로향실에 죽 머물러 있다니 무슨 좋은 인연이 있는 거요. 왜 갈등을 부숴버리고 한 막대를 멀리 날려 나와 이 차의 인연을 같이 아니하는 거요. 또한 근자에 자못 선열(禪悅)에 대하여 자경(蔗境)의 묘가 있는데 더불어 이 묘체(妙諦)를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몹시도 사(師)와 한 번 눈썹을 펴고 토론하고 싶는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소. 약간의 줄서가 있어서 부쳐 보내니 거두어들이기 바라오. 비오기 전의 잎은 얼마나 가려 놓았는지. 어느 때나 부쳐 보내 이 차의 굵주림을 진정시켜 주려는가 날로 바라며 불선. 향훈에게 가는 한 장의 편지는 행여 전달해 주기 바라네.²⁴⁷⁾

추사의 차생활은 초의가 보내주는 차로 의지를 하였는데, 초의에게 보낸 39통의 편지 중에 9통이 차에 관련한 것으로 알 수 있다(김명배, 1997 : 14). 차를 얻어 마시고 차와 물맛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차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과 글을 써서 화답을 하였다. 초의에게 차를 구하

247) 김정희, 『완당전집』 권 5 <與草衣 36>

는 모습에서 차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강진에서 유배생활²⁴⁸)을 할 때 혜장(惠藏, 1772-1811)선사²⁴⁹)로부터 차를 배워 이를 즐기며(김상현·김봉호 : 1984) 산차(山茶)를 배양하고 스스로 ‘茶山’이라 호를 지었다. 그는 혜장, 초의, 색성(曠性)스님으로부터 차를 구해 마셨고 그의 아들 학연(學淵), 학유(學遊) 또한 훗날 초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차를 즐겼다. 다산은 차가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혜장에게 차를 구했다. 다산이 대홍사의 아암 선사에게 보낸 「걸명소(乞茗疏)」는 다음과 같다.

나그네가 요즈음 차를 탐음하고 겸하여 약으로 충당한다오. 책 속에 오묘함을 열어준 옥우의 다경 3편을 전통하고 병을 다스리자니 한 밥 잡힌 누에로 마침내 노동 칠완을 다 들이키고 비록 수척하고 정신이 잠기나 기무려 말을 잊지 않은지라. 응체를 해소하고 흥터를 지우자하니 끝내는 이찬황의 버릇이 생겼오. ……애오라지 차 비는 정분을 신함이라 적이 들으니 인생 고해는 부처님의 진량 중 가장 소중한 단나의 보시라 하고 명산에 잠긴 경혈과 고액은 서초가 으뜸이라 하거늘 마땅히 갈망 회구함에 아끼지 마시고 은혜 베풀기 염원합니다. ²⁵⁰⁾

다산은 차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 하며 아암에게 차를 간절히 구하였다. 그가 막막한 가슴을 열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을 차의 덕(德)이라고도 하였다. 차를 약으로 알고 마신 다산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학문을 집대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산이 이렇게 검박한 차를 즐긴 것처럼 일본에서도 다도에 검소함을 중요시 하였다. 그것은 선종의 영향을 받은 ‘와비

248) 정약용은 1801년 천주교 박해때 서교(西敎)를 가까이 했다는 죄목으로 19년간 전라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249) 혜장(惠藏)은 연담선사(蓮潭禪師, 1720-1799)로부터 禪과 茶道를 수업하였으며, 조선후기 茶僧으로 일컬어지는 草衣에게 다도를 가르쳤다. 저서로는 兒庵集이 있으며, 다시도 여러 수 보인다.

250) 정약용. 『걸명소』, ‘乙丑冬(1805) 贈兒菴禪師 旅人近作茶羹 兼充藥餌 書中妙辟 全通陸羽之三篇 病理雄蠶 遂碍盧仝之七椀 雖侵精瘠氣 不忘慕母嬰慮之言 而消壅破癥 終有李贊皇之癖 … 聊伸乞茗之情 竊聞苦海津梁 最重檀那之施 名山膏液潛輸 瑞草之魁宜念渴希 毋慳波惠’.(윤경혁역주, 2004 : 457-463)

[佗]의 미의식'으로 나타났는데, “와비와 같이 청빈(淸貧)을 즐기다”라는 것이다. 부족에서 만족을 아는 풍류의 의미로 차가 부(富)와 결부되어 호화스러워 질 때 풍류의 차는 있을 리 없다(야나기무네요시, 1998 : 126). 즉 부처의 수행방법을 본받아 비가 안 썰 정도의 소박하고 좁은 다실에서 와비의 미가 있는 다구를 즐겨 쓰며 불완전의 미를 추구하였는데, 심지어는 멀쩡한 꽃병의 한 쪽 귀를 망치로 깨어 버리고 꽃을 꽂았다는 설화(난소보케이외 1992 ; 164 : 167)가 유명하다. 이것은 민간에서 문인들이 차의 성(性)에서 검소함을 배워 가난하거나, 환난 속에서도 근심을 잊고 삶을 즐겁게 받아들여 차생활이 안빈낙도의 생활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산은 차가 나쁜 버릇을 고친다 하여 차의 신체적 효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김명배, 1995 : 22), 많은 사람이 차를 마시려면 아홉 번 말리는 제다 방법을 간단히 해야 한다고 하여 간소한 제다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때 양호가 선조에게 권한 토산차의 생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다산의 각다고(權茶考)에서는 중국의 각다제도를 설명하면서 우리차가 우수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251).

다산은 18년 유배생활이 끝날 때 다신계(茶信契)를 만들었는데 18명의 제자들과의 신의를 유지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규약에는 회원들이 차를 따서 만들어 부치고 시를 지어 보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었다. 곡우날 움썩차를 따서 은근한 불에 말려 잎차 한 근을 만들고, 입하 전에 늦차를 따서 떡차 두 근을 만들어 시와 함께 다산에게 부친다(김명배, 1983 : 18)²⁵²⁾는 내용에서 보듯 구체적인 규약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 잎차와 떡차를 함께 마셨음을 알 수 있다.

251) 정약용. 『경세유표』 권 22 地官修制 <賦貢制> 5 ‘權茶考’.

252) ‘穀雨之日 取嫩茶 焙作一斤 立夏之前 取晚茶 作餅二斤 右葉茶一斤 餅茶二斤 與詩札同封’.

4) 기원을 담은 차생활

민간에서는 차가 몸과 마음의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믿어서 붉은 글씨로 ‘차’를 써서 거꾸로 부치면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입춘에는 단오에 쓸 부적을 만드는데 ‘신다올루(神茶鬱壘)’ 녀자를 써서 붙이면 신다와 올루 두 신이 문의 양쪽에서 서서 흉악한 귀신을 쫓았다. 그 제도는 황제(黃帝)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²⁵³⁾라고 하였고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단오날 오시(午時)에 주사(朱砂)로 ‘다(茶)’ 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두면, 사갈(蛇蝎)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²⁵⁴⁾ 하였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차를 의례에 사용하거나 손님과 함께 마시는 것보다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첩자(帖子)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원은 1956년부터 1971년 사이에 경남, 경북, 부산, 전남의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차를 올리고 소원을 비는 서민들의 기복적(祈福的)인 풍속이 다민요(茶民謠)에 있음을 조사하였다(김기원, 1995 ; 1996 ; 1998). 조사지역은 과거 차 재배지와 야생 차나무 자생지, 사찰 근처 및 폐사지(廢寺趾)이고 조사 대상자들은 농부이며, 연령층은 70세가 넘었다.

용문사의 사천왕님 날가도록 대문여소
시어머니 눈을 피해 소원대로 차렸심더
무쇠작설 꿸렸심더 미륵님께 비나이다.
애달프다 다촌때기 가문종다 자랑마라
서방종다 자랑마라 이씨가문 장손되게
떡판같은 아들소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소원이 성취되게 감로작설 올리오니
미륵님의 코끝주소 미륵님께 비나이다. (김기원, 1998 : 50)

253) 홍석모. 『동국세시기』 <입춘조>

254) 홍만선. 『산림경제』 제3권 <辟蟲>, ‘端午日午時 用朱砂寫茶字 倒貼之 蛇蝎不敢近’.

위의 민요는 남해군 이동면에 위치한 용문사 미륵전을 관리하는 할머니로부터 채록한 민요이다. 아들을 낳기를 염원하는 여자들이 미륵님께 차를 올리며 비는 민요로 민간의 생활풍속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 조선 시대에 와서 일반 서민문화층에서 신앙적 가치로 구전(口傳)되어 전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기원, 1998 : 51). 이들은 언제부터 다민요를 불렀는지는 모르나 차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서민 다문화의 한 모습이라 하겠다.

5) 기타 차생활

려말선초의 검교 정당 문학(檢校政堂文學) 조운홀(趙云佐)은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관리였다. 그가 1393년 신병으로 관에서 물러났을 때 나라에서 그의 노고와 위민하는 마음을 치하하기 위해 녹봉을 받도록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정승 조준과의 일화가 그의 인품을 짐작하게 한다.

정승 조준(趙浚)이 조운홀과 더불어 교유가 있었는데, 손님을 전송하는 일로 인하여 한강(漢江)을 건넜다가 동렬(同列) 재상과 더불어 기악(伎樂)을 거느리고 주찬(酒饌)을 싸 가지고 가서 찾으니, 조운홀은 치의(緇衣)에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문(門)까지 나와 길게 읊(揖)하고 맞이하여 모정(茅亭)에 이르러 좌정(坐定)하였다. 조준이 풍악을 잡히고 술자리를 마련하니, 조운홀은 짐짓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척하고, 눈을 감고 정좌(正坐)하여 높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창(唱)한 것이 두 번이었는데, 옆에 마치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니, 조준이 사과하여 말하기를, “선생이 이를 싫어하는군요.” 하고, 명하여 풍악을 중지시키고, 차(茶)를 마시고 돌아갔다. 그가 세속을 희롱하고 스스로 고고하기가 이와 같았다. 255)

255) 『태종실록』 4년 12월 5일, ‘政丞趙浚與云佐有舊 因送客過漢江 與同列宰相 率妓樂齋酒饌 往訪之 云佐緇衣箬笠 扶杖出門長揖 迎至茅亭 坐定 浚張樂置酒 云佐佯聾不聞 閉目危坐 高聲唱南無阿彌

실록에 그를 평하기를 청렴한 선비의 덕과 고고한 절개를 갖추었다 하였다. 중국에서도 청빈한 관리가 되고자 하여 제(齊)나라 재상(宰相)인 안영(晏嬰)의 식사는 조미쌀밥에 구이 석 점과 다섯 가지의 푸성귀와 차나무가 고작이었다²⁵⁶⁾고 했다. 육납(陸納)은 오흥태수(吳興太守)로 있을 때 손님으로 오는 사안(謝安)을 위해 준비한 것은 차와 과일뿐이었는데, 조카가 걱정하여 많은 음식을 차렸다. 육납은 조카에게 “너는 숙부를 빛내 주지는 목할 망정 어찌 나의 평소 검소한 명성마저 더럽히느냐”²⁵⁷⁾ 라고 하여 곤장을 친 이야기는 관리들의 청렴성을 강조할 때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이다²⁵⁸⁾. 이러한 모습은 관리로서 청렴함과 선비가 지켜야 할 덕목을 차로써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 이목(李穆, 1471-1498)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인 『다부(茶賦)』를 지어 차는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차생활을 통해서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최진영, 2003 : 44) 하며 차생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차를 지나쳐
그를 알지 못했는데
육우의 다경을 읽음으로부터
그 성품이 마음에 매우 보배로움을 점차 알게 되었다.
옛날 중산의 거문고를 즐긴 부와
팽택이 국화를 사랑한 노래가
그리 미상함을 더욱 현저하게
하물며 차의 공덕이 으뜸인데도
기리는 이가 없는 것은
어진 이를 버려둠과 같으니

陀佛者再 傍若無人 浚謝曰: “先生厭是矣” 命止樂 啜茶而還 其玩世自高類此’.

256) 『다경』 「칠지사」, ‘食脫粟之飯 炙三弋 五卵 茗菜 而已’.

257) 『다경』 「칠지사」, ‘汝既不能光益叔父 奈何穢吾素業’.

258) 『다경』의 七之事에 안자춘추(晏子春秋)와 진(晉)의 중흥서(中興書)에 전한다.

또한 그릇되지 아니한가?
 이에 그 이름을 상고하고
 그 생산된 上下의 품수를 증험하여
 부로 지으려니, 혹 누가 말하기를
 차는 세금으로 들여오는데
 도리어 사람에게 병폐가
 그대는 하려는가 하면
 상대하여 이르리니, 그러나
 그러함이 어찌 하늘이 만물을 낸
 본뜻인가? 사람이 지 차가 아니로다.
 또한 나는 근심이 있어서
 이에 미칠 겨를이 없노라.”²⁵⁹⁾

이목은 차의 신령스러운 성품을 육우를 통해 듣고, 차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어진 사람을 버려 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차의 세금이 막중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병폐는 차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재는 하늘이 만물을 낼 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단체도의 폐해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사람이 잘못 운영한 것이라 하여 차를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최진영, 2003 : 48-48).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은 역관(譯官)으로 12차례나 중국을 왕래하면서 현실 및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사회제도, 사상체계, 경제문제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문학에도 기틀이 마련되어 정조(正祖, 1777-1809)의 규장각(奎章閣) 설치에 박차를 가해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학활동을 중인(中人)들에게도 넘겨주게 되었으니, 여기에서도 역관이 차지한 우치는 선봉이었다(정후수, 1989 : 2).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읍다(挹茶)」²⁶⁰⁾, 「기용단승설(記龍團勝雪)」²⁶¹⁾ 등의 차시를 남겼는데,

259) 이목. 『다부』, '余於茶越乎, 其莫之知, 自讀陸氏經, 稍得 其性心甚珍之 昔中散樂琴而賦 彭澤愛菊而歌 其於微尙加顯矣 況茶之功最高 而未有頌之者 若廢賢焉 不亦謬乎 於是考其名 驗其產上下其品 爲之賦 或曰 茶自入稅 反爲人病 子欲云云乎 對曰然 然是豈天 生物之本意乎 人也 非茶也 且余有疾 不暇及此云'.

「읍다」는 차와 선(禪)을 결합시킨 것으로 뛰어나다.

정조의 사위인 홍현주(洪顯周, 1793-1865)의 모친 영수합서씨(令壽閣徐氏, 1753-1823)와 그의 가족이 가족의 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그는 차를 좋아하여 가족을 모이게 하여 술과 차를 즐기며 시회를 하였다. 「고요한 밤에 차 끓이며(靜夜烹茶)」에서는 봄날 밤에 차를 달여 차반에 옥로차를 올리며 술보다도 좋다고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은근한 불과 화로에 차를 끓였으니
신기하고 영묘한 공덕이 조금은 있을 터요
차 한 잔 마신 뒤 거문고를 어루만지면
밝은 달이 떠올라 누군가를 부르다네
차반 위 잔에는 푸른 구슬빛 더하고
오래된 벽에 그을음이 앉아 그림이 되었네
차 한 잔 가득 하니 맛있는 술이야 필요없지.
답청 가는 내일은 차나 준비하리²⁶²⁾

가부장제로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한 영수합 서씨는 여러 해 동안 경험에서 터득한 자신의 차 달이는 솜씨를 겸손하게 자랑도 한다(김경자, 2003 : 57). 답청(踏青)은 청명절에 교외로 나가 새로 돋아난 풀을 밟으며 대자연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다. 영수합 서씨도 여느 부녀자나 아이들처럼 약수를 마시고 준비해간 다구로 차를 끓여 마셨을 것이다(박희준, 1994 : 158). 야외에서의 찻자리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시에 담고 있다.

다점은 일반 서민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만들어진 차를 사거나 차를 마시는 집을 말한다.

260) 이상적. 『은송당집』 권 2 <沍茶>

261) 이상적. 『은송당집』 속집 「문제열」 <記龍團勝雪>

262) 영수합서씨. 『영수합고』 「靜夜烹茶」, ‘幾年文火小茶爐 一點神功定有無 啜罷清琴還自撫 看來好月竟誰呼 春盤碗碧沃瓊露 古壁煙籠作粉圖 滿酌何須待旨酒 踏青明日更携壺’.

교를 내리기를 요사이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상소를 보니 “지금 성종(成宗)을 이어 돈을 사용하고 거친 베를 통화로서 쓰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시속을 놀라게 하니 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한갓 백성들의 원망만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다점(茶店)·주점(酒店)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전대로 돈을 사용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물건을 매매할 때는 돈 아닌 토산의 물품으로 돈 대신 사용한다고 했다. 263)

위의 내용은 고려 목종(穆宗, 998-1009) 때에 한언공(韓彦恭)의 상소로 성종(成宗, 982-997) 때에 일반 백성들이 돈 대신 베를 주고 다점(차집)에 흔히 드나들어 차를 사서 마셨고, 그 이후에는 돈을 주고 사 마시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점과 주점으로 상점을 구분한 것은 차를 판매하는 곳과 술을 판매하는 상점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의 문인 임춘(林春)은 봄날 다점의 누각에 있는 평상에 누워 낮잠에서 깨어나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의 여관[長亭]이로다, 평상에서 자는 봄잠이 천중(千鍾,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받는 녹봉)과 맞먹느니”²⁶⁴⁾라고 읊은 것으로 보아 다점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의 내용 중에 차가 성행함에 지리산 주변 주민은 차를 따서 서울로 수송하느라고 고생도 많았다고 하였다. 화계가 차의 생산지임을 말하며 차를 생산하는 백성들의 노고를 걱정하면서 「손한장(孫翰長)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기증하다」라는 시(詩)를 지었다.

...
 옛일 생각하니 서럽게 눈물이 나네
 운봉의 독특한 향취 맡아보니
 남방에서 마시던 맛 완전하구나
 따라서 화계에서 차 따던 일 논하네

263) 『고려사절요』 목종 5년 7월조, '秋七月 敎曰 近覽侍中韓彦恭上疏 言 今繼先朝而使錢 禁用羸布 以駭俗 未遂邦家之利益 徒興民庶之怨嗟 其茶酒諸店 交易依前使錢外 百姓等 私相交易 任用土宜'.

264) 임춘, 『서하선생문집』 권1 「이유의 다점에서 낮잠(李郎中惟誼茶店晝睡)」, ‘...乾坤都是一長亭... 一軒春睡敵千鍾’.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老弱)까지도 징발(徵發)하였네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머나먼 서울에 등짐 져 날랐네.
 이는 백성의 애끓는 고혈(膏血)이니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바야흐로 이르렀네
 한 편 한 구절이 모두 뜻 있으니
 시의 육의²⁶⁵⁾ 이에 갖추었구나
 ……
 어이 차 달여 부질없이 물 허비 할쏜가
 일천 가지 망가뜨려 한 모금 차 마련했으니
 이 이치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구려
 그대 다른 날 간원에 들어가거든
 내 시의 은밀한 뜻 부디 기억하게나
 산림과 들관 불살라 차의 공납(貢納) 금지한다면
 남녘 백성들 편히 쉬이 이로부터 시작되리 ²⁶⁶⁾

또한 「운봉(雲峯)에 있는 노규 선사(老珪禪師)가 조아다(早芽茶)를 얻어
 나에게 보이고 유다(孺茶)라 이름을 붙이고서 시를 청하기에 지어 주다」
 라는 시에서는 공다(貢茶)를 위해 차를 생산하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단
 차(團茶)의 생산과정 및 이것이 상품으로 거래되었던 상황 등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

…
 남방 사람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아
 험난함을 무릅쓰고 칩덩굴 휘어잡아
 간신히 채취하여 불에 말려서
 남보다 앞서 임금님께 드리려 하네 ²⁶⁷⁾
 …

265) 육의란 풍(風)·아(雅)·송(頌)·부(賦)·비(比)·흥(興)을 가리켜 말한다.

266)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3 「고을시」 <孫翰長復和。次韻寄之>, ‘懷舊淒然爲酸鼻 品此雲峯未
 嗅香 宛如南國會嘗味 因論花溪採茶時 官督家丁無老稚 瘴嶺千重眩手收 玉京萬里賴肩致 此是蒼生膏
 與肉 齷割萬人方得至 一篇一句皆寓意 詩之六義於此備 安用煎茶空費水 破却千枝供一啜 細思此理
 眞害耳 知君異日到諫垣 記我詩中微有旨 焚山燎野禁稅茶 唱作南民息肩始’.

26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13 「고을시」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
 之>, ‘南人曾不怕髭鬚 冒險衝深捫葛藟 辛勤採摘焙成團 要趁頭番獻天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함양군수로 있을 때 차가 생산이 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차를 공납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관영 차밭을 일구어 백성들의 다세를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영 차밭을 마련해 주었다.(이형석, 1998 : 29)

상공(上供)하는 차(茶)가 본군(本郡)에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해마다 백성들에게 이를 부과하는지라, 백성들은 값을 가지고 전라도(全羅道)에서 사오는데, 대략 쌀 한 말에 차 한 홉을 얻는다. 내가 처음 이 고을에 부임하여 그 폐단을 알고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관(官)에서 자체로 여기저기서 구걸하여 납부했었다. 그런데 일찍이 삼국사(三國史)를 열람 해보니, 신라(新羅) 때에 당(唐) 나라에서 다종(茶種)을 얻어와 명하여 지리산에 심게 했다 …… 는 말이 있었다. 아, 우리 군이 바로 이 산 밑에 있는데, 어찌 신라 때의 남긴 종자가 없겠는가. 그래서 매양 부로(父老)들을 만나서 그것을 찾아보게 한 결과 과연 엄천사(嚴川寺)의 북쪽 죽림(竹林) 속에서 두어 떨기의 다종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 땅을 다원(茶園)으로 만들게 하고, 그 부근은 모두 백성들의 토지이므로 그것을 관전(官田)으로 보상해주고 모두 사들여 차를 재배했는데, 겨우 수년 뒤에는 제법 번식하여 다원 전체에 두루 퍼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4~5년만 기다리면 상공할 액수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시 두 수를 읊는 바이다.

신령한 차 올려 성군께 축수코자 하는데
신라 때의 남긴 종자 오랫동안 못 찾았다가
지금에야 두류산 밑에서 채취하고 보니
우리 백성 일본의 힘 펴일 것이 우선 기쁘네

죽림 밖 황량한 동산 두어 이랑 언덕에
붉은 꽃 검은 부리가 어느 때나 무성할꼬
다만 백성의 심두옥²⁶⁸⁾을 치유하게 할 뿐이요
속립아²⁶⁹⁾ 룡에 담아 진상하기는 바라지 않네²⁷⁰⁾

268) 심장(心臟) 위의 살을 이름을 말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심장병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

269) 속립아는 싸라기처럼 생긴 초춘(初春)의 차싹[茶芽]을 말한다.

270) 김종직. 『점필재집』 「茶園二首」, ‘欲奉靈苗壽聖君 新羅遺種久無聞 如今擷得頭流下 且喜吾民寬一分 …竹外荒園數畝坡 紫英烏鶯幾時誇 但令民療心頭肉 不要籠加粟粒芽’.

위의 시는 그가 차밭을 만들고 그 기쁨으로 쓴 것으로 내용 중에는 신령스런 차를 임금에게 공납하면서 건강을 기원하는 것을 보면 차는 진상품으로 신령스러운 고급식품임을 알 수 있다. 현영조(2002 : 5)는 그의 삶이 자연과 차와 백성을 연계하고 ‘안빈낙도’ 하면서 검소한 차생활을 실천한 다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려 말의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의 학풍을 이어받은 아버지를 통하여 경학(經學)과 예학(禮學)을 깊이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점필재로 하여금 언행이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차로 예(禮)를 행하는 데 소중히 다루고 생활화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들과 자연 속에서 다담을 즐겼다.

요약하면 삼국시대 민간에서의 다의례는 전하는 문헌이 많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주로 제례와 상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의례가 고려 말의 주자학의 도입으로 민간에서는 사원의례와 유교의례가 혼입되어 나타났다. 유교적 제례에 차를 올리도록 되어 있으나 차가 귀해져서 구할 수 없게 되자 여러 예서들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국시대는 귀족과 고승들의 차생활 흔적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벽화 속에서 귀족과 고승들의 차를 마셨고, 최치원이 부모님께 차를 선물하였으며,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하면서 차생활을 하였다.

고려의 문인사회에서의 접빈이나 사원의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차를 마시며 차시(茶詩)를 나누며, 차를 칭송하고 다선일미의 경지에 들기도 하였다. 또한 찻자리에 술과 거문고가 함께하는 풍류를 즐기기도(安貧樂道) 하였으나, 술에 취하거나 예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차를 사서 마실 수 있는 다점이 생겨나면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었다. 그러나 융성한 다문화는 차를 생산하는 다촌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다문화가 이어지면서 늘어난 차의 수요로 백성들

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관리들이 차밭을 손수 만들어 공납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청렴하고 소박한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차생활, 예술적 승화를 이루는 다인들의 차생활이 있었으나 고려에 비해 다문화가 성행하지는 않았다. 양란 이후 다문화는 조금씩 쇠퇴해져 갔으며, 일반 서민들의 차생활은 찾아보기 힘들고 벽사와 기원을 담은 첩자(帖子)와 다민요로 남아서 전하게 되었다.

VI. 결론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다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사원과 궁정, 민간에 나타난 다의례의 고찰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원의례는 신라에서 크게 화엄사상(華嚴思想)에서 비롯된 문수신앙(文殊信仰)과 정토사상(淨土思想)에서 비롯한 미륵신앙으로 구분된다. 보천효명 태자가 문수보살에게, 충담사가 미륵세존께 헌다한 의식은 신라시대의 사원에서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신라인들의 호국불(護國佛)사상과 신라의 특수한 보살들이 출현하여 불국토(佛國土)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관계가 깊다. 삼국시대 승려들의 화랑출신이나 왕족출신의 특수한 계층이었고, 그들의 차생활은 자신의 수양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연기조사가 어머니에게 효도로서 진다한 것이나, 사포가 스승인 원효에게 차를 달여 바치는 것은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국가적 의례를 사원에서 거행하였다. 중국에서 『백장청규』를 의식에 받아들여 실천하다가 차차 고려 사원에 적합한 예법들의 출간으로 우리나라의 풍습에 맞는 불교의례가 생겨났는데, 계송(偈頌)으로 찬미하던 부처나 보살의 덕을 ‘다게(茶偈)’로 발전시킨 것을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고려의 사원에서 행한 법규와 의례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 않다. 고려의 승려들은 선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생활을 통하여 다선일미를 지향하였으며, 차를 제다하여 귀인이나 문인에게 보내거나 문인과의 찾자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송나라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투다는 고려의 사원에 영향을 끼쳐 명전회가 만들어지고, 사원내 승려들은 품다와 품천으로 차를 우리는데 가장 적합한 것들을 위해 겨루기를 하였으며, 차를 우리는데 필요한 다기구

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려의 발전된 사원 다문화로 꽃을 피웠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사원의 다문화는 쇠퇴되고, 의례는 서원 내의 각 전과 부도에서 행해지고, 차를 구할 수 없어 의례에 정화수로 올리면서도 의례의 격식은 더욱 강조되었다.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인데 반하여 조선시대에는 승려들의 지위는 낮았으나, 학문이 깊은 선승들은 다양한 경서들을 출간하였다. 조선의 사원은 소박한 차생활을 통한 다선일미를 얻고자 하였고, 초의는 『동다송』의 저술로 우리나라 다문화의 한 맥을 이었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연중행사와 결합하여 공양물을 올리고 축원하는 실천의례로 발전하였다. 사원의례는 재래의 조상숭배 및 자연숭배 등의 고유 신앙, 유교, 도교 등 여타의 관념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홍윤식, 1980 : 12), 이러한 혼입현상은 조선시대에 억불책속에서도 생활문화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궁정에서 차가 의례로 거행된 것은 7세기 신라 문무왕 때 수로왕 제사에서 비롯된다. 충담사는 경덕왕에게 차를 바치고 안민가를 지어 올렸으며, 월명사는 도술가를 불러 변괴를 물리치고 차와 염주를 하사받았다. 설총은 신문왕에게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하라는 계를 올렸다. 고려에서는 가례, 길례, 빈례, 흥례에 다의례가 있었는데, 가례인 연등회, 팔관회 등의 국가의례와 태후의 책봉이나 왕비·왕태자의 책봉 의식에 다례가 있었으며 다례를 행하기 위한 다방과 행로 다담도 있었다. 죽은 신하의 장례에 부의품으로 하사되기도 하였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다례(중형주대의)를 행하였다. 이 시대에는 궁정에서의 국가적 의례를 사원에서 호국불교로서 거행하고 승려들에게 차를 하사하였고, 신하나 일반백성, 사신에게도 차는 귀중한 예물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의례가 더욱 격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사대교

린'의 원칙에 의한 빈례이다. 사신영접을 위한 의례가 고려에서는 영조서의와 영칙서의로 가례에 포함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더욱 격식을 갖춘 의례로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영대명무조칙사의가 빈례에 포함되어 거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선왕(先王)의 제사를 모시는 오례의 규정은 없으나 선왕에 대한 정(情)의 표현으로 차와 다과로 지내는 약식 제사인 주다례가 설행되었다. 그 외 왕실에서 상왕을 알현하거나 회강시에 다례를 하였다. 상왕은 술 보다는 차를 마시려고 하였고, 차가 탕약에 조제된 것은 차가 열을 내려주는 효능을 이해하고 건강증진 측면에서 차생활을 하였다. 중기이후에는 다례에 차보다는 인삼차로 다례를 행하였다.

삼국시대의 민간의 다의례는 전하는 문헌이 많지 않아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고구려의 벽화속에서 귀족과 고승들의 차를 마셨고, 최치원이 부모님께 차를 선물하였으며,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하면서 차생활을 하였다. 이 시대는 특수한 계층인 귀족에서만 차생활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궁정과 사원에서 왕성한 다의례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민간에서도 상·장례의식과 조상을 위한 제례와 재를 사원에서 거행 하였는데, 의례물품에 차가 사용되었다. 고려의 문인사회에서의 접빈이나 사원의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차를 마시며 차시(茶詩)를 나누며, 차를 칭송하고 다선일미의 경지에 들기도 하였다. 또한 찻자리에 술과 거문고가 함께하는 풍류를 즐기기도(安貧樂道) 하였으나, 술에 취하거나 예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차를 사서 마실 수 있는 다점이 생겨나면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었다. 그러나 융성한 다문화는 차를 생산하는 다촌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였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주자학의 도입으로

사원에서의 의례는 각 집안의 가묘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주자가례』의 도입은 융성했던 불교문화와 함께 혼입된 모습을 보이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상·제례를 중심으로 민간에 정착이 되었다. 속절(俗節)에 다의례가 거행되었고, 잠신다례와 생일다례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억불정책과 양란을 겪은 조선은 중기 이후에 차의 구입이 쉽지 않게 되어 민간 의례는 술과 숙주로 대신하게 되었고, 차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름만은 ‘차례’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고려의 다문화가 이어지면서 늘어난 차의 수요로 백성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관리들이 차밭을 손수 만들어 공납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청렴하고 소박한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차생활, 예술적 승화를 이루는 다인들의 차생활이 있었으나 고려에 비해 다문화가 성행하지는 않았다. 양란 이후 다문화는 조금씩 쇠퇴해져 갔으며, 일반 서민들의 차생활은 찾아보기 힘들고 벽사와 기원을 담는 첩자(帖子)와 다민요로 남아서 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다의례의 고찰로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를 연결하지 못하여 한국 다문화의 전체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중국의 의례와는 다르게 격식을 갖춘 다의례 속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는 일상적인 음다문화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의례속에 좀 더 격식을 갖춘 문화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사원의례에서 차가 공양물로 올려지면서 중국의 청규에도 없는 다게가 만들어진 것이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원의례는 각 전과 부도에서만 행해지는 의례로 축소화되는 현상이 되었으나 의례에 대한 다양한 경서들의 출판은 의례의 격식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다문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렇듯 차를 올리거나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갈증해소가 아닌 정신적인, 철학적인 목적이 있었다. 다의례는 부처나 선왕, 선조들의 제사에, 왕실의 가례(嘉禮)에서 각 책봉의식과 왕자의 탄생이나 공주의 하가례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

에, 각 궁정의 빈례에 빠지지 않았다. 민간이나 사원에서 차를 수신의 도구로 여겨 차를 마시는 과정을 소중히 여긴 것과 왕실에서 주다례, 민간에서는 잠신다례와 생일다례에도 다의례가 거행되었다. 이것은 차가 그 어느 제물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 의식에 사용되었고,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 다의례의 격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시대를 궁정과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계층의 다문화로 ‘귀족차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고려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호국불교로서 궁정과 사원에서 의례가 다양하게 거행되는 이른바 ‘사원차 시대’이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불교적 의례가 유교적 의례로 변해 가면서 사대부·문인들의 차생활이 중심이 되는 ‘문인차 시대’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토속신앙에서 출발한 불교문화는 중국의 선종의 영향을 받으며, 고려시대 고유의 의례로 발전하였고, 조선시대에 차를 구하지 못하여 정갈한 물 한 잔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례를 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속 신앙으로 남아 있는 민간의 풍속이 유·불·도교와 만나면서 고유한 우리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의례의 다른 특징은 여러 종교가 혼입된 문화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다의례의 고찰로 한국의 다의례 전반에 대한 고찰로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는 웰-빙의 시대로 신체적 효능이 뛰어난 관점에서 차를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다. 차음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음식에 이용하거나 생활용품으로도 우리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하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차는 선조들의 의례 위주의 차생활이 아니고 문화로서 즐기고 있다. 다문화는 정

서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김인숙, 2004). 현대 가정의례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사원에서는 ‘장례의례통합’ 법당을 만들어 임종에서 납골까지 절에서 행례하면서 ‘추석차례법’을 시연하였는데, 일천여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박혜인, 2001). “술과 고기 대신 차와 과일을 올리세요” 라고 홍보하며 차례상을 진설하고 음복까지 시연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차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다의례가 현대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명절의 차례나 기제사 등에 적절히 응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은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 것처럼 성현들의 차생활에 부여한 정신적 가치로서의 차를 인식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차 한 잔으로 신이나 조상에게 경배하는 마음, 손님이나 가족을 향한 공경스러운 마음의 준비는 선조들의 차 정신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史料

禮記

周禮

儀禮

茶經

大觀茶論

北苑別錄

宣和北苑貢茶錄

茶錄

煎茶水記

全唐詩

舊唐書

禪院清規

百丈清規

勅修須白丈清規

朱子家禮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朝鮮佛教通史

家禮輯覽

四禮便覽

東茶頌

茶賦

茶故事

益齊集

東國李相國集

2. 單行本

1) 韓國

고세연(2006). 차의 역사. 서울 : 미래문화사.

구영본(2003).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서울 :형설출판사.

구영본 · 신미경(2006). 글로벌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 서울 : 도서출판 형설.

신위. (권경렬 편역)(1998).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 너럭바위.

권태원(2001). 우리의 차문화와 다례. 서울 : 경인문화사.

김길자 (역주와감상)(1999). 서울 : 中國茶詩. 현암사.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 교문사.

김명배(1988).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 大光文化社.

-----1984). 茶道學. 서울 : 學文社.

-----1999). 다도학 논고. 서울 : 대광출판사.

-----2001). 다도학 논고 II. 서울 : 대광출판사.

김명배 (편역)(1983). 韓國의 茶書. 서울 : 탐구당.

김명배 (역저)(1993). 中國의 茶道. 서울 : 明文堂.

-----1987). 日本의 茶道. 서울 : 보림사.

김봉건 (옮김)(2005). 치우치평. 다경도설. 서울 : 이큰아침.

김상보(1996). 조선왕조 제사음식문화. 서울 : 修學社.

- 김상현·김봉호(1984). 生活茶藝. 서울 : 太平洋博物館.
- 김상현(1987). 한국의 茶詩. 서울 : 태평양박물관.
- 김운학(1983). 韓國의 茶文化. 서울 : 玄岩社.
- 김종태(1996). 茶의 科學과 文化. 서울 : 保林社.
- 난보 소케이(南方宗啓)·기노 쓰라유키(紀貫之) 외. 박전열·이한창 옮김
(1992). 남방록. 서울 : 시사영어사.
-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1990). 한국불교전서 1-10권. 서울 : 동국
대학교 출판부.
- 동아시아연구소 (편저)(2003). 조주선사와 깍다거. 서울 : 불교춘추사.
- 류정아(1998).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모로오카 다모쓰(諸岡 存)·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김명배역)(1983).
朝鮮의 茶와 禪. 서울 : 도서출판 보림사.
- 모로오카 다모쓰(諸岡 存)·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崔順子譯)(1982).
朝鮮의 茶와 禪. 서울 : 삼양출판사.
- 무산(2000). 한국역대고승들의 茶詩. 서울 : 출판 명상.
- 무생법인(2001). 佛敎儀式解説. 서울 : 정우서적.
- 문화재관리국(1978). 안압지. 서울 : 문화공보부.
- (1983). 황룡사. 서울 : 문화공보부.
- 민족문화추진위원회(2006). 고전국역총서 ; 한국문집총간 ; 국학원전.
- 박영희(1985). 동다정통고. 서울 : 호영출판사.
- 박희준(1994). 차한잔. 서울 : 신어림.
- 棚橋篁峰箸. (석도윤·이다현공역)(2006).중국 茶 문화. 서울 : 하늘
북.
- 徐兢. (조동원·김대식·이경록·이상국·홍기표역)(2005). 高麗圖經. 서
울 : 황소자리.

- 석성우(1981). 다도. 서울 : 한겨레출판사.
- 석용운(1994). 韓國茶藝. 서울 : 도서출판 초의.
- 안신호(1961). 석문의범. 서울 :法輪社.
- 야나기무네요시(柳宗悅).(김순희 옮김)(1998). 다도와 일본의 미. 서울 : 소화.
- 역사민속학회(1996). 한국의 암각화. 서울 : 한길사.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8). 경남 : 영남문집해제. 송은집.
- 오출세(1996). 불교민속학의 유래. 서울 : 집문당.
- 왕충련. (김하림 · 이상호 옮김)(2004). 중국의 차문화. 서울 : 에디터.
- 陸羽. (짱유화 신역)(2000). 茶經. 경북 : 남탐산방.
- 윤경혁 (편저)(2005). 茶文化年譜. 서울 : 弘益齋.
- (역저)(1999). 茶文化古典. 서울 : 弘益齋.
- (역주)(2004). 增補 茶文化古典. 서울 : 弘益齋.
- 이광주(2002). 동과서의 차이 이야기. 서울 : 한길사.
- 李能和. (尹在瑛 譯)(1980). 朝鮮佛教通史. 서울 : 박영사.
- 이범직(1991). 한국 중세 예사상 연구. 서울 : 일조각.
- 이복규(1999).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 전기의 민속. 서울 : 민속원.
- 이상옥 (역주)(2003). 禮記 上, 中, 下. 서울 : 明文堂.
- 이성우(1978). 高麗以前의 한국식생활사연구. 서울 : 향문사.
- 一然. (僧家大學院 역주)(1998). 三國遺事. 서울 : 大韓佛教 曹溪宗 教育院.
- 정영선(1990). 한국의 차문화. 서울 : 너럭바위.
- (2000). 다도철학. 서울 : 너럭바위.
- 짱유화 (편찬)(2000). 경북 : 中國古代茶書精華. 남탐산방.

- 천병식(1996). 한국의 茶詩. 전남 : 아주대출판부.
- (1996). 韓國茶詩作家論. 서울 : 국학연구원.
- 최계원(1983). 우리茶의 再照明. 전북 : 三陽出版社.
- 최규용(1979). 금당다화. 서울 : 금당다우.
- 최범술(1980). 韓國의 茶道. 서울 : 寶蓮閣.
- 츠노야마 사가에(角山 榮). (서은미 옮김)(2001). 녹차문화 홍차문화. 서울 : 예문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편)(1997). 朝鮮時代 儀禮資料集成. I, II, III, IV, V. 경기도 : 정신문화연구원.
- 한만영(1981). 불교음악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홍식(2000). 고려시대 연구1. 경기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윤식(1980). 佛敎와 民俗. 서울 : 동국대학교불전간행위원회.
- (1985). 삼국유사와 고대의 한국문화. 전북 : 원광대학교출판부.
- 효동원(1986). 茶香禪味. 서울 : 비봉출판사.
- (1989). 茶香禪味2. 서울 : 도서출판 보림사.

2) 中國

- 郭孟良(2003). 中國茶事. 山西古籍出版社.
- 董尚勝·王建榮 (編著)(2003). 茶史. 浙江大學出版社.
- 婁子匡 (主編)(1940). 民俗叢書(中國茶書) 1. 國立北京大學中國民俗學會景印.
- 梁子(1997). 中國唐宋茶道. 陝西 人民出版社.
- 王玲(1995). 中國茶文化. 中國書店.
- 姚國坤·胡小軍 (編著)(1999). 中國古代茶具. 上海文化出版社.
- 陸天羽 (編著)(1993). 飲茶漫談. 臺灣:國家出版社.

陳顧遠(中華民國 八十一年). 中國婚姻史. 臺灣:商務印書館發行.
陳偉明(1995). 唐宋飲食文化發展史. 臺灣:學生書局.
陳祖槃·朱自振(編)(1995). 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 弘益齋.
中國茶葉博物館(1999). 品茶設茶. 浙江人民美術出版社.
蕭慧娟·許玉蓮(編著)(1999). 約會中國茶. Malaysia : 紫藤集團.
蔡榮章(中華民國 七十三年). 現代茶藝. 台灣:茶業改良場.
湯一介(1999). 佛教與中國文化. 宗教文化出版社.

3) 기타

Anthony Burgess, THE BOOK OF TEA, The Generous Permission of
Publisher, Printed in Italy.

布目潮颯(1987). 中國書全集 下卷. 日本:汲古書院.

3. 研究論文

구영본(2001). 韓國茶生活教育場 研究.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社會教育場의로서 茶生活教育場 研究. 한국차학회 9(3),
5-14.

김경숙(2000).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실행과 그 성격 - 이문건의 목재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39.

김경자(2003). 조선시대 여성 차문화(I). 한국차학회지 9(1), 47-90.

김기원(1995). 한국의 茶民謠 調査. 한국차학회 1(1), 81-94.

----- (1996). 한국의 다민요 조사 II. 한국차학회지 2(2), 189-196.

----- (1998). 茶民謠의 調査 IV. 한국차학회지 4(2), 45-52.

김길자(1998). 中國歷代茶詩研究.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1998). 포은 정몽주의 생애와 문학세계. 상명대어문학연구소 어문학 연구, 1-36.
- 김명배(2000). 백장청규의 다례 연구. 한국차학회지 6(1), 1-30.
- (1999). 신라·고려시대의 다례. 다도학 논고, 9-45.
- (1986). 한국 다도의 구조적 특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55-65.
- (1999). 매월당 김시습의 다도 연구. 다도학 논고, 160-189.
- (1997). 승설 김정희의 다도 연구. 한국차학회지 3(1), 1-35.
- (1996). 다산 정약용의 다도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2(2), 163-188.
- 김미숙(2003). 韓國 佛敎寺刹의 獻供茶禮.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 김인숙(2004). 차문화치료를 통한 전서행동장애 아동의 행동 변화. 한국가정과학회, 1.
- 김진숙(2005). 陸羽 茶經中 飲茶觀點的 研究. 中國;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 (2005). 唐朝 飲茶文化의 盛行 要因. 문화산업연구 1(1), 57-70.
- 김정규(中華民國74年). 中韓兩國飲茶禮俗之研究. 臺灣: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 (1995). 中國 茶禮 研究. 중국문학연구, 1-26.
- 김태경(2006). 다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12(1), 7-30.
- 구자완(2005). 韓國과 中國의 「차 끓이기」 용어와 方法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철(1998). 高麗末期 士大夫의 四禮 認識. 역사교육 제 65집, 1-19.
- 박동춘(2004). 초의 의순의 다도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1994). 韓國茶禮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박순주(2003). 한국 傳統茶會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전열(1992). 남방록 연구 - 일본예도론의 관점에서, 일본학보, 5-20.
- (1994). 일본 다도의 정신. 다문화연구지 3권, 3-6.
- 박준식·이순영(2005).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본 한국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31-48.
-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모색. 한국가족 복지학 6(1), 31-54.
- 서은미(1998). 北宋 茶 專賣의 施行 基盤과 茶法의 變遷. 서강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9). 北宋代 四川茶와 茶馬貿易. 부산사학 37, 127-144.
- (2003). 宋代 福建地域 茶 生産의 特徵과 地域文化. 中國史研究 제 24집, 175-207.
- (2004). 茶書와 宋代 茶文化. 中國史研究 32집, 131-162.
- 서옥경(2004). 우리나라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 궁중다례를 중심으로. 복식학회 54(5), 59-70.
- 송해경(2005).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 에 關한 研究.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2004). 東茶頌 이전의 다서, 한국차학회지 9(3), 15-23.
- 오원경(1996). 北宋 茶의 普及과 茶法에 關한 研究.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 婚禮, 喪祭禮中の 茶禮俗. 중국사연구 22, 129-159.
- (2003). 투다를 통해본 송대 차문화. 중국학보, 273-394.
- 육선자(2002). 한국 음다공간의 역사적 고찰.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 윤명희(2003). 朝鮮時代 迎使茶禮儀 研究.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1999). 五禮에 나타난 茶禮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1992). 조선초기 불교의례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1). 高麗時代 宮廷儀禮에 나타난 茶禮 研究.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일희(2004).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文化空間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2). 高麗時代 禪茶詩 研究. 다문화연구지 제11권, 61-75.
- 이재춘(1998). 조선왕조의 주다례에 관한 고찰. 다문화연구지 제7권, 38-43.
- 이주향(2002). 朝鮮時代 茶文化和 茶服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석(1986). 속리산 법주사 喜見菩薩 供養容器 研究. 다문화연구자료 제1집, 1-35.
- (1998). 점필재 김종직의 차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4(2), 25-44.
- 이혜자(1994). 한국 고전시가속의 다도사상.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0). 불교의 다도사상 연구, 한국차학회지 6(3), 43-70.
- (2001). 한국 불교의 다례. 한국차학회지 7(1), 1-39.
- (2005). 유교의 다례 연구. 한국차학회지 11(1), 61-78.
- 임환주(1981). 정포은의 시세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현(2003). 朝鮮時代 茶樂 研究.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완길(1987). 高麗時代의 茶文化論.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185-205.
- 정상구(1995). 韓國茶詩에 표현된 禪思想 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1(1),

5-44.

- 정영선(1995). 茶문화에 나타난 禪思想. 한국다문화연구 4권, 30-34.
- (1993). 韓國茶文化에 나타난 儒家思想.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2). 고려의 茶禮에 관한 연구. 다문화연구지 제11권, 5-31.
- (2006). 조선왕실 제사차례의 예제성립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55-93.
- 정후수(1989). 이상적의 시문학 연구. 한성어문학, 1-35.
- 조기정(2005). 한중 문화교류를 통한 백제 차문화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31집, 619-636.
- 진복선(2003). 祭祀茶禮와 接賓茶禮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병식(2001). 한국 전통 다실의 문헌적 연구. 한국차학회지 13호, 1-13.
- 최진영(2003). 다부의 분석적 고찰. 한국차학회지 9(2), 41-66.
- 탁효영(2004).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성신여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정(2003). 朝鮮時代 喪·祭禮를 통해본 獻茶禮 考察.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충순(1988). 韓國傳承茶禮의 時代的 考察.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을순(1988). 韓國茶의 由來와 그 禮俗에 관한 小考.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금이(2002). 高麗時代 宮中茶禮 考察. 성신여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광표(2005). 한국 사찰의 차문화와 차정(茶景).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 95-103.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ea Rituals in Traditional Korea Society

Ku, Young-bon
Dept.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Korean tea culture is not only to investigate our life and culture but also to examine cultural tradition and its present and future. In Korea tea is settled as a part of ceremonial culture at temples and Courts and among the aristocracy and the people. In our traditional society, nature worship was performed in the era of Gojoseon and tea rituals were performed for Buddha and nature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ea was offered for a memorial service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ad and to pray for happiness for those who held a ceremony. The rituals, which had been performed only at temples and Courts and among the aristocratic class before the era of Goryeo, were widely held on a national basis primarily by a royal family and spread even into the populace, making norms of tea rituals an important part of living in the era of Goryeo. In the period of Joseon whose national policy was Confucianism, tea culture developed according to Confucian ceremonies. In the era of Joseon, it failed to flourish as much as in the period of Goryeo but tea was strictly used for ceremonies. While an tea culture is a small form of culture in our culture, ceremonies expressed in tea culture were held in various forms at temples and Courts and among the aristocracy

and the populace.

This study considered various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ceremonies found in Korean tea culture and examined deep meanings of the ceremonies for tea cultu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d the process of changes in Korean tea culture.

Second, it classified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ceremonies found in Korean tea culture and real aspects of ceremonies found at temples and Courts and among the populace according to different times.

As for introduction and changes of Korean tea culture, it can be said that Silla was the era of 'aristocratic tea' in the sense that a specific class based on the Court and temples enjoyed it. Goryeo was the era of so-called 'temple tea' when Buddhism had been inherited from Silla and held various ceremonies at Courts and temples as guardian Buddhism. Joseon can be classified into the period of 'literati tea' when the aristocracy and the literati became the center of tea life as Buddhist ceremonies changed into Confucian ones with the introduction of Jujagarye.

However, Buddhist culture which started from folk belief of Silla developed into ceremonies unique to the era of Goryeo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Zen Buddhism and offering of a glass of clean water, because of failure to obtain tea, in the period of Joseon developed into unique culture through the encounter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with folk customs, which was left as folk belief in Korea; therefore, Korean tea ceremonies should be regarded as the development into mixed culture of many religions.

According to consideration of tea rituals from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o that of Joseon, Korean tea culture, contrary to that of China, failed to reach daily food and tea culture because it was present in formal tea rituals; while daily tea rituals disappeared, more formal culture developed in various ceremonies.

As tea was offered as consecration for a temple ritual, Dage was created which was not present even in Chinese Cheonggyu; temple rituals were reduced into those for each Jeon and Budo in the period of Joseon; however, Korean tea culture with emphasis placed on formality of a ritual is characterized by publishing of various Confucian classics related to rituals.

A royal ritual has a meaning of respect by putting devotion to a memorial service for King Suro with the utmost. A visitor-welcoming ceremony by which a royal family received an envoy had a meaning of respect for the other party, importance of which is proved by records of concrete procedures of the ceremony. Just as a royal family held Judarye, so the populace held Jamsindarye and Saengildarye, which demonstrates that a tea ritual was held for reason and sentiment although there was Orye or Sokjeol in its basis.

Tea became a present during a ritual because it was valued along with other offerings. It was given as a present to a guest, offered, or used as an Imperial gift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a spiritual thing and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here is also a philosophical reason that those who drink tea may possess the nature of tea. Korean tea rituals have created formality as a tool for moral training with the

mind of being courteous, expressing sincerity, and praying for living.

In short, as for Korean tea culture, a tea event can be a ritual, not simply drinking tea, but beautiful and profound culture with a philosophical mi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spirit of our predecessors who developed tea into a ritual and represent it in present and future living culture before drinking a cup of tea.